

연구보고서

# 서울 거주 중국동포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 연구

2013. 11



## 연구진

---

책임연구원 : 양한순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연구원 : 박 우 (한성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예동근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조교수)

강주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연구보조원 : 강미선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김용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과정)

문 민 (이주동포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사토 아키히토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서울특별시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제 출 문

서울특별시장 귀하

이 보고서를 “서울 거주 중국동포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 용역”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1월

책임연구원: 양한순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 목 차

<b>I. 서론</b> .....	<b>1</b>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중국동포의 국내 입국 및 체류 현황 .....	2
3. 국내 거주 중국동포의 특수성과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 .....	8
4. 연구 방법 .....	12
<b>II. 중국동포 관련 정책의 현황과 그 시사점들</b> .....	<b>16</b>
1. 중앙정부의 주요 동포 관련 정책 .....	16
2. 지방자치단체의 중국동포 정책의 현황과 한계 .....	21
3. 외국의 귀환 동포 사례와 그 시사점 .....	25
<b>III. 국내 체류 중국동포의 실태조사</b> .....	<b>41</b>
1. 조사 대상자의 특성 .....	41
2. 주거 및 주변 환경 .....	48
3. 경제수준 .....	66
4. 의료와 교육 .....	75
5. 사회참여와 사회적 인식 .....	86
6. 고용관계와 경제활동 .....	103
7. 소결: 실태조사의 함의 .....	116
8. 생활 실태의 거시적 결정 요인들 .....	118
<b>IV. 서울시 중국동포 정책수립 제안</b> .....	<b>120</b>
1. 서울 거주 중국동포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 .....	120
2. 중국동포 생활환경 개선 방안 .....	125
3. 중국동포 사회통합 방안 .....	135
4. 관리방안 및 기타 .....	144

[부록 1] 서울 거주 중국동포 실태조사 및 정책제안 설문지 .....	150
[부록 2] 중국동포 인터뷰 대상자 리스트 .....	165
[부록 2-1] 중국동포 면담자료_일반근로자 .....	166
[부록 2-2] 중국동포 면담자료_전문직 .....	168
[부록 2-3] 중국동포 면담자료_자영업자 .....	169
[부록 2-4] 중국동포 면담자료_유학생 .....	173
[부록 2-5] 중국동포 면담자료_결혼이주여성 .....	175
[부록 3] 한국인 인터뷰 대상자 리스트 .....	177
참고문헌 .....	178

## 그림 목차

〈그림 1-2-1〉 2013년 국내 외국인주민의 국적별 분포 .....	5
〈그림 3-2-1〉 거주 만족도(지역구분) .....	56
〈그림 3-2-2〉 거주 만족도(직업구분) .....	57
〈그림 3-2-3〉 거주지 환경 만족도(지역구분) .....	59
〈그림 3-2-4〉 거주지 환경 만족도(직업구분) .....	60
〈그림 3-2-5〉 지역 주민과의 관계 만족도(지역구분) .....	64
〈그림 3-2-6〉 지역 주민과의 관계 만족도(직업구분) .....	65
〈그림 3-3-1〉 경제수준 만족도(지역구분) .....	72
〈그림 3-3-2〉 경제수준 만족도(직업구분) .....	73
〈그림 3-4-1〉 의료 복지 만족도(직업구분) .....	81
〈그림 3-4-2〉 자신과 가족 교육수준 만족도(직업구분) .....	85
〈그림 3-5-1〉 중국동포 관련 미디어 접촉 .....	92
〈그림 3-5-2〉 선호 호칭(지역구분) .....	101
〈그림 3-5-3〉 선호 호칭(직업구분) .....	102
〈그림 3-6-1〉 직업 만족도(지역구분) .....	108
〈그림 3-6-2〉 직업 만족도(직업구분) .....	109
〈그림 3-6-3〉 직장내 관계 만족도(직업구분) .....	112
〈그림 3-6-4〉 서울시에서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문제(지역구분) .....	114
〈그림 3-6-5〉 서울시에서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문제(직업구분) .....	115

## 표 목차

〈표 1-2-1〉 외국인주민으로서의 중국동포 거주 현황(2013년 1월) .....	6
〈표 1-2-2〉 연도별 서울시 거주 중국동포의 변화 추이 .....	6
〈표 1-2-3〉 서울시 중국동포 비자유형별 체류현황(2013년 1월) .....	7
〈표 1-2-4〉 서울시 자치구별 중국동포 현황(2013년 1월) .....	7
〈표 2-1-1〉 중국동포 출입국과 취업관련 제도와 정책의 변화 .....	17
〈표 2-3-1〉 북경시 화교 및 교민 관련 정부 기구 .....	38
〈표 3-1-1〉 국적, 지역별 조사 대상 .....	42
〈표 3-1-2〉 설문조사 협력기관 및 단체 .....	43
〈표 3-1-3〉 성별 비율 .....	44
〈표 3-1-4〉 직업 구성 .....	44
〈표 3-1-5〉 지역 구성 .....	45
〈표 3-1-6〉 연령 구성 .....	46
〈표 3-2-1〉 현 거주지 거주 이유 .....	49
〈표 3-2-2〉 현재 주거 유형 .....	50
〈표 3-2-3〉 집세 부담금(전세) .....	50
〈표 3-2-4〉 집세 부담금(월세보증금) .....	51
〈표 3-2-5〉 집세 부담금(월세) .....	52
〈표 3-2-6〉 집세 부담금(기숙사) .....	52
〈표 3-2-7〉 주거를 위한 은행 대출(지역구분) .....	53
〈표 3-2-8〉 주거를 위한 은행 대출(직업구분) .....	53
〈표 3-2-9〉 공공임대주택 신청 .....	54
〈표 3-2-10〉 거주면적 .....	54
〈표 3-2-11〉 동거 인원 .....	55
〈표 3-2-12〉 거주 만족도(지역구분) .....	56
〈표 3-2-13〉 거주 만족도(직업구분) .....	57
〈표 3-2-14〉 거주 불편사항 .....	58
〈표 3-2-15〉 거주지 환경 만족도(지역구분) .....	58



〈표 3-2-16〉 거주지 환경 만족도(직업구분)	59
〈표 3-2-17〉 거주지 환경 만족도	60
〈표 3-2-18〉 중국동포 지역 주민과의 관계(지역구분)	62
〈표 3-2-19〉 중국동포 지역 주민과의 관계(직업구분)	62
〈표 3-2-20〉 한족 지역 주민과의 관계(지역구분)	62
〈표 3-2-21〉 한족 지역 주민과의 관계(직업구분)	63
〈표 3-2-22〉 한국인 지역 주민과의 관계(지역구분)	63
〈표 3-2-23〉 한국인 지역 주민과의 관계(직업구분)	63
〈표 3-2-24〉 지역 주민과의 관계 만족도(지역구분)	64
〈표 3-2-25〉 지역 주민과의 관계 만족도(직업구분)	65
〈표 3-3-1〉 동향 지인과의 외식	66
〈표 3-3-2〉 한국 지인과의 외식	67
〈표 3-3-3〉 소비평균	67
〈표 3-3-4〉 저축평균	68
〈표 3-3-5〉 송금평균	69
〈표 3-3-5〉 소비변화(지역구분)	69
〈표 3-3-6〉 소비변화(직업구분)	70
〈표 3-3-8〉 저축 변화(지역구분)	70
〈표 3-3-9〉 저축 변화(직업구분)	70
〈표 3-3-10〉 송금 변화(지역구분)	71
〈표 3-3-11〉 송금 변화(직업구분)	71
〈표 3-3-12〉 경제수준 만족도(지역구분)	72
〈표 3-3-13〉 경제수준 만족도(직업구분)	73
〈표 3-3-14〉 경제수준 만족도	74
〈표 3-4-1〉 처치 방법	76
〈표 3-4-2〉 가족 질병	76
〈표 3-4-3〉 병원 방문 횟수	77
〈표 3-4-4〉 병원 방문 어려운 이유	77
〈표 3-4-5〉 건강검진(직업구분)	78

〈표 3-4-6〉 돌봄자 유무(직업구분) .....	79
〈표 3-4-7〉 보험(직업구분) .....	79
〈표 3-4-8〉 주관적 건강(직업구분) .....	80
〈표 3-4-9〉 의료 복지 만족도(직업구분) .....	81
〈표 3-4-10〉 의료 복지 만족도 평균(직업구분) .....	82
〈표 3-4-11〉 언어능력 .....	82
〈표 3-4-12〉 자녀 입학시 어려운 점 .....	83
〈표 3-4-13〉 자녀 교육기관에 다니지 않는 이유 .....	83
〈표 3-4-14〉 자녀 중퇴 이유 .....	84
〈표 3-4-15〉 자신과 가족 교육수준 만족도(직업구분) .....	85
〈표 3-5-1〉 단체 참여(종교단체) .....	87
〈표 3-5-2〉 단체 참여(비종교단체) .....	87
〈표 3-5-3〉 모임 및 단체 참여 .....	88
〈표 3-5-4〉 단체 참여 이유(직업구분) .....	89
〈표 3-5-5〉 불이익 대체 방법(직업구분) .....	89
〈표 3-5-6〉 미디어 접촉 빈도 .....	90
〈표 3-5-7〉 미디어 접촉 내용 .....	91
〈표 3-5-8〉 중국동포 관련 미디어 접촉 .....	91
〈표 3-5-9〉 미디어 접촉 내용 .....	92
〈표 3-5-10〉 중국동포 이웃찬성(지역구분) .....	93
〈표 3-5-11〉 중국동포 이웃찬성(직업구분) .....	93
〈표 3-5-12〉 한족 이웃찬성(지역구분) .....	93
〈표 3-5-13〉 한족 이웃찬성(직업구분) .....	94
〈표 3-5-14〉 한국인 이웃찬성(지역구분) .....	94
〈표 3-5-15〉 한국인 이웃찬성(직업구분) .....	94
〈표 3-5-16〉 동남아 이주노동자 이웃찬성(지역구분) .....	94
〈표 3-5-17〉 동남아 이주노동자 이웃찬성(직업구분) .....	95
〈표 3-5-18〉 기타 외국인 이웃찬성(지역구분) .....	95
〈표 3-5-19〉 기타 외국인(직업구분) .....	95

〈표 3-5-20〉 중국동포와의 사회적 거리 (지역구분)	96
〈표 3-5-21〉 중국동포와의 사회적 거리 (직업구분)	96
〈표 3-5-22〉 한족과의 사회적 거리 (지역구분)	96
〈표 3-5-23〉 한족과의 사회적 거리 (직업구분)	97
〈표 3-5-24〉 한국인과의 사회적 거리 (지역구분)	97
〈표 3-5-25〉 한국인과의 사회적 거리 (직업구분)	97
〈표 3-5-26〉 동남아 이주노동자와의 사회적 거리 (지역구분)	97
〈표 3-5-27〉 동남아 이주노동자와의 사회적 거리 (직업구분)	98
〈표 3-5-28〉 기타 외국인과의 사회적 거리 (지역구분)	98
〈표 3-5-29〉 기타 외국인과의 사회적 거리 (직업구분)	98
〈표 3-5-30〉 차별인식	99
〈표 3-5-31〉 차별이유	99
〈표 3-5-32〉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지역구분)	100
〈표 3-5-33〉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직업구분)	100
〈표 3-5-34〉 선호 호칭(지역구분)	101
〈표 3-5-35〉 선호 호칭(직업구분)	102
〈표 3-5-36〉 외국인 지원 기관 방문	103
〈표 3-6-1〉 수입(지역구분)	104
〈표 3-6-2〉 수입(직업구분)	105
〈표 3-6-3〉 이직 횟수	105
〈표 3-6-4〉 구직 시 고려 사항	106
〈표 3-6-5〉 구직 방법(지역구분)	106
〈표 3-6-6〉 구직 방법(직업구분)	107
〈표 3-6-7〉 직업 만족도(지역구분)	107
〈표 3-6-8〉 직업 만족도(직업구분)	108
〈표 3-6-9〉 직업 만족도 평균	109
〈표 3-6-10〉 구직과 노동 시 어려운 점	110
〈표 3-6-11〉 일 평균 근로 시간	110
〈표 3-6-12〉 월 평균 휴식일	111

〈표 3-6-13〉 직장 동료 민족 구성 .....	111
〈표 3-6-14〉 직장내 관계 만족도(직업구분) .....	112
〈표 3-6-15〉 어려운 일 상담 대상 .....	113
〈표 3-6-16〉 애로사항 .....	113
〈표 3-6-17〉 서울시에서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문제(지역구분) .....	114
〈표 3-6-18〉 서울시에서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문제(직업구분) .....	115
〈표 4-2-1〉 현재 중국동포 이용 센터 .....	127
〈표 4-2-2〉 중국동포 관련 주요 언론 .....	130
〈표 4-2-3〉 중국동포 관련 단체 .....	136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한국사회는 점차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2003년 68만여 명이었지만 10년이 지난 2013년에는 그 두 배가 넘는 142만 2,57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sup>1)</sup>. 이런 체류외국인 수의 증가는 단지 양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의 대다수는 국내에서 장기체류하면서 한국인들과 함께 일하고 거주지에서 한국인들과 이웃으로 살아간다. 또한 귀화나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들과<sup>2)</sup> 외국인의 자녀들도 증가하면서 오늘날의 한국사회는 질적인 변화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 사회적 변화는 한국을 “다문화사회”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변화로 인해 오늘날 정부의 정책은 단순히 외국인의 입국자격과 취업을 관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한국인과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외국인주민 정책으로 확장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거주지를 등록하는 장기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귀화자와 외국인주민 자녀까지 “외국인주민”의 범주에 포함시켜 분류하고 있는데, 안전행정부(2013)가 발표한 『20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1월1일 기준)』에 따르면,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144만 5,631명이다. 이들 외국인주민의 대다수인 63.1%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30.5%는 경기도에(440,735명) 그리고 27.4%는 서울시에(395,640명)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전체 거주인구에서 외국인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3.9%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외국인주민을 갖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이들에 대한 주민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정책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들은 문화적 배경이 같은 출신 별로 사회집단을 형성하거나 집중 주거지를 형성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각 분야의 실태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다문화관련 정책이나 외국인주민 정책은 종종 외국인이나 외국인주민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 집단은 매우 다양한 국적, 문화, 민족, 역사적 배경, 그리고 입국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3년 01월호)』. 본 연구에 나타난 각종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가통계포털, 그리고 안전행정부 통계자료로부터 구하였다.

2) 2013년 1월 현재 결혼이민자는 148,499명이며 혼인귀화자는 68,963명이다.

다. 그 가운데서도 중국동포 집단은 여타의 외국인 집단과의 법적, 사회문화적 차별성이 뚜렷한 편이다. 이들은 한국어를 비롯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으로서, 대다수의 국내체류 중국동포들은 비록 국적은 중국이지만 그들이 다른 외국인과 같은 집단으로 취급당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입국자격에 있어서도 “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사람들도 많고 국적을 회복하거나 귀화한 사람들도 많아서 다른 외국인들과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진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중국동포들은 국내 전체 외국인주민의 38.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시 거주 외국인주민의 57%에 달하는 많은 인구를 가진 집단이다.

중국동포들은 또한 서울시에서 가장 뚜렷하고 커다란 밀집 거주를 하는 집단이다. 가리봉동과 대림동은 중국동포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서 중국동포들은 이곳의 지역경제와 생활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알려진 이 지역은 중국동포들의 유입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동포들과 한국주민들은 문화적 차이와 더불어 소통과 이해의 부족으로 갈등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동포들에 대한 별도의 관심은 이들이 집중하여 거주하는 서울의 서남부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들 사이의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가 된다. 본 연구는 중국동포 집단의 이러한 특수한 성격을 반영하여, 서울시의 외국인주민 정책을 보다 현실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중국동포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출발하였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국동포에 대한 별도의 정책은 거의 없었고, 지금까지의 중국동포에 관한 정책은 “외국인주민” 혹은 “다문화” 정책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은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를 대상으로 할 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재외동포를 정책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주민과 재외동포라는 두 범주 모두에 속한 국내체류 중국동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어떠한 차별적인 정책이 가능한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 2. 중국동포의 국내 입국 및 체류 현황

### 1) 중국동포의 국내 입국 배경

중국동포의 한국입국은 이미 1980년대에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가 독립유공자의 후손

의 영주귀국과 이산가족들의 친척상봉을 위해 모국방문의 길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중국동포들의 국내 입국은 80년대 동안 주로 친척방문이 주목적이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동포들의 입국 목적이 점차 친척방문에서 경제적 목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친척방문으로 입국한 사람들 가운데 국내에서 취업하거나 “보따리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다. 그리고 이 당시 친척방문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의 출신 지역을 보면 주로 흑룡강성이 많았다. 그 이유는 중국동포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중국의 동북3성 가운데 흑룡강성에 남한 특히 경상도 출신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80년대 말부터 중국동포의 입국이 증가하게 된 중요한 사회적 배경은 바로 국내의 저임금 노동에 대한 수요증가이다. 이에 따라 1991년부터 중국동포들은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입국하게 된다.

이러한 중국동포들의 유입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더욱 늘어나게 된다.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직후 1993년부터는 한국기업이 중국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는데, 이와 함께 현지 한국기업에 고용된 인력의 기능 향상을 위해 국내 기업에서 연수 받기 위해 국내에서 일시적 취업을 허가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통해 중국동포들의 국내 입국이 늘어났다. 그런데 산업연수생제도는 법적으로는 연수생 자격인 외국 인력을 실제로는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연수취업제가 도입된다. “연수취업제”란 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하여 2년 연수를 받고 그 뒤 1년 동안 취업이 가능한 제도였다. 그리고 2002년에는 “외국국적동포 취업관리제”가 시행되면서 국내에 들어 온 중국동포들이 다른 외국인과 달리 건설업, 음식점업, 청소업, 간병인, 가사 등의 특정 업종에도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2001년 59,966명, 2002년 70,325명이었던 국내 체류 중국동포의 규모가 2003년에 126,383명으로 급증한다. 또한 2004년부터 정부는 국내 노동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는 중국동포의 입국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로서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국내 체류 중국동포의 규모는 153,510명에서 259,245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90년대부터 친척 초청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중국동포들의 입국은 늘어났고 국내 노동 시장에서 중국동포 인력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중국동포들이 합법적으로 체류와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불법체류라는 현상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법이 중국동포와 구소련지역(CIS)동포를 제외하게 되자, 이

지역 동포들의 국내 불법체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이 지역 동포들에 대한 차별이란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 법이 가진 문제는 결국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른 2004년 재외동포법의 개정으로 해결되게 된다. 그리고 이 법의 개정으로 인해 중국과 CIS의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친척초청 범위가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7년에는 한국 내 호적이나 친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제”라는 제도가 등장함으로써 이제까지 커다란 문제였던 불법체류문제가 크게 해소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하는 중국동포 대다수는 이 방문취업제도(H-2)를 통해 입국하게 되었다. 국내 연고가 없는 길림성과 요녕성 지역의 동포들이 많이 입국하게 된 것도 이 제도의 영향이었다. 방문취업제의 영향으로 국내체류 중국동포의 수가 2008년 12월에는 376,563명으로 크게 증가한다. 그리고 이들의 80%인 299,332명이 방문취업비자를 통해 입국하였다.

그런데 방문취업제도에 의한 체류가 4년 10개월이기 때문에 2012년 말 부터 비자가 만료돼 출국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2012년 1월 29만여 명에 달하던 방문취업 입국 중국동포들은 2013년 1월 현재 22만3천여 명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동포들 가운데 재외동포비자(F-4)를 통해 입국한 중국동포들은 같은 기간 동안 78,546명에서 121,275명으로 증가하였다<sup>3)</sup>. 즉 현재 정부에서는 중국동포에 대해서 방문취업비자 대신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외동포비자 발급의 확대는 내국민의 일자리 잠식의 우려가 없는 만 60세 이상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그리고 방문취업비자를 갖고 제조업, 농축산업, 그리고 육아도우미 서비스와 같이 국내 인력이 부족한 업종의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2) 중국동포의 서울시 체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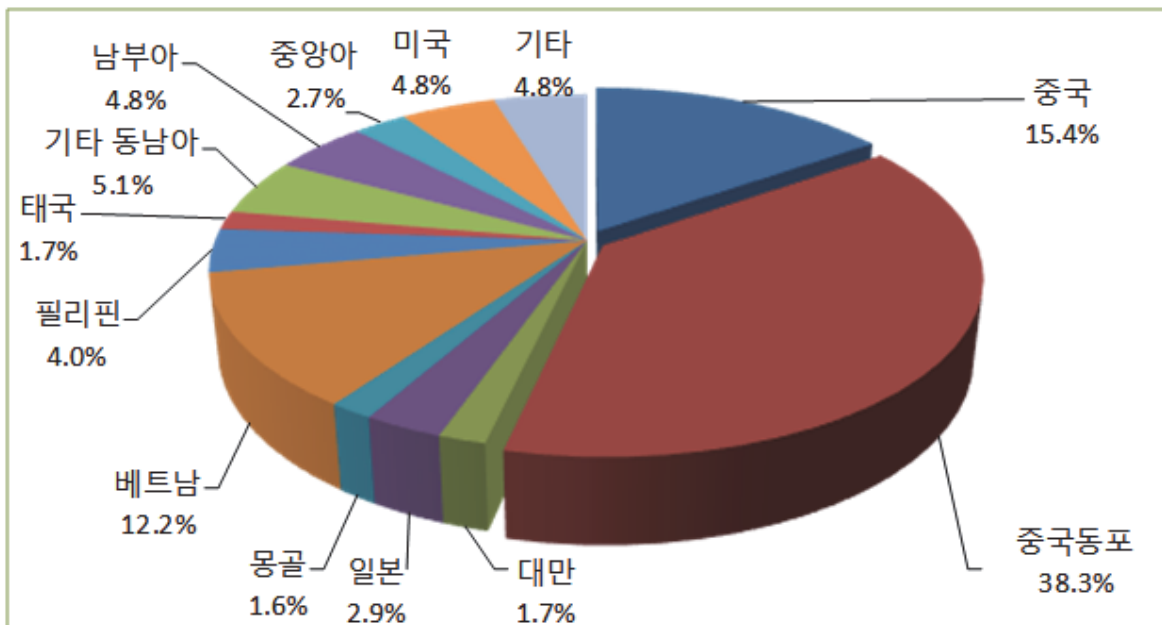
국내에 들어 온 외국인인 90일 이하의 단기 체류를 하고 떠나는 경우 거주지 등록을 할 필요가 없지만,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사람들은 거주지 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90일 이상을 체류하는 외국국적 재외동포는 거소신고를 하고 “거소신고증”을 받게 된다. 안전행정부의 2013년 1월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이렇게 외국인등록증이나 거소신고증을 가진 중국동포는 2013년 1월 현재 전국적으로 438,592명이다. 그리고 혼인, 귀화, 혹은 국적회복 등을 통해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3)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3년 08월호)』에 따르면, 2013년 8월 재외동포비자를 가진 중국동포의 수가 142,013명으로 증가하였다.



중국동포는 2013년 1월 현재 72,631명에 달한다. 같은 해 중국동포의 자녀는 전국적으로 42,294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3년 1월을 기준으로 볼 때, 국내에 장기 거주하며 실질적 주민으로 살아가는 중국동포는 전국적으로 553,517명에 달한다. 이는 같은 방식으로 체류하고 있는 전체 외국인주민의 38.3%에 달하는 규모이다. 외국인주민 가운데 가장 커다란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은 한국사회에서 가시적인 존재가 되어 있다. 아래 그림<1-2-1>은 2013년 국내 외국인주민의 국적별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1-2-1〉 2013년 국내 외국인주민의 국적별 분포



지역별 거주 분포를 보면, 중국동포의 거주지는 수도권 즉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13년 1월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중국동포의 수는 225,201명으로서, 이는 전체 서울 거주 외국인의 5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198,955명의 중국동포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전체 경기도 거주 외국인주민의 45%에 해당하는 커다란 규모이다. 이러한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수도권 특히 서울시의 경우 중국동포 관련 정책이 외국인주민 정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아래 표<1-2-1>은 2013년 1월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국동포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1-2-1〉 외국인주민으로서의 중국동포 거주 현황(2013년 1월)<sup>4)</sup>

구 분	합 계	국적 미취득 중국동포	국적 취득 중국동포	중국동포의 자녀
전국	553,517	438,592	72,631	42,294
서울시	225,201	183,617	30,382	11,202
경기도	198,955	161,534	23,653	13,768

아래 표〈1-2-2〉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국동포의 지난 8년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방문취업제가 도입된 2007년 이후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 2008년에는 서울시 외국인주민의 66%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런데 방문취업제의 기간 만료에 따라 2012년부터 출국자가 늘어남에 따라 2013년 서울시 거주 중국동포는 2012년에 비해 9%가 감소하였고, 외국인주민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도 약간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표 1-2-2〉 연도별 서울시 거주 중국동포의 변화 추이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외국인	148,966	207,417	260,019	334,910	336,221	366,279	406,293	395,640
중국동포	77,386	127,240	173,646	206,485	203,428	219,509	247,036	225,201
비율(%)	51	61	66	61	60	59	60	57

아래 〈표1-2-3〉는 2013년 서울시 거주 중국동포의 체류자격별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에 나타나듯이, 서울시 거주 중국동포의 43%는 취업비자를 가진 근로자들이다. 그리고 재외동포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19%, 혼인귀화자를 포함한 결혼이민자는 10.7%, 중국동포의 자녀들이 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정부의 최근 재외동포비자 발급의 확대로 재외동포비자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가고 있다.

4) 안전행정부, 『20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에서 정리

〈표 1-2-3〉 서울시 중국동포 비자유형별 체류현황(2013년 1월)<sup>5)</sup>

(단위 명, %)

합 계	근로자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포함)	중국동포의 자녀	유학생	재외동포	기 타
225,201	96,438	24,135	11,202	778	42,724	49,924
(100%)	(42.8%)	(10.7%)	(5.0%)	(0.3%)	(19.0%)	(22.2%)

서울시내 중국동포의 거주 규모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 〈1-2-4〉과 같다.

〈표 1-2-4〉 서울시 자치구별 중국동포 현황(2013년 1월)

총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225,201	4,665	4,571	3,939	5,802	12,287	7,498	4,192	3,497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3,184	1,441	2,220	3,498	2,683	4,274	5,005	5,335	35,094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1,691	45,933	10,711	20,396	2,505	2,668	7,210	4,902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동포들은 서울시 남서부지역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에 밀집 거주하고 있다. 영등포구의 경우 중국동포가 45,933명이 거주하는데 이는 전체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인구의 8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구로구의 경우도 중국동포가 35,094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역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인구의 86%에 달하는 규모이다. 중국동포들이 이처럼 특정 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하게 된 결과, 영등포구의 대림동과 신길동 그리고 구로구의 가리봉동에는 “중국동포 타운”이라고 불릴만한 지역사회를 형성하고 있다.<sup>6)</sup>

5) 안전행정부, 『20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참조

6) 중국동포의 한국 입국과 정착 경로에 대해서는 박우 외(2012) 참조.

### 3. 국내 거주 중국동포의 특수성과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

#### 1) 국내 거주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 (1) 국내 경제의 활성화 차원

국내 거주 중국동포들은 한국사회에서 생산, 소비, 그리고 투자를 통해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산업의 많은 영역에서 중국동포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건설 분야와 같이 중국동포 노동력이 없이는 지탱할 수 없는 산업들이 많다. 특히,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의 희생자 명단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경제는 중국동포 노동자의 희생 위에서 유지되고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 중국동포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게다가 이들 분야의 중국동포 노동력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중국동포의 청년층 가운데 한국에서 단순노동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노동인력의 공급이란 차원에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중국동포들의 소비활동은 국내 경제활동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들이 중국으로 송금하는 액수는 점점 적어지고 소득의 많은 부분이 국내에서 소비 되고 있다. 또한 중국동포들 가운데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귀화자나 영주권자들이 늘어 감에 따라 이들이 국내 각종 사업에 투자하는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국내 거주 중국동포들은 내수의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는 단순히 시혜적 차원이라기보다는 국내 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2) 동포라는 법적, 사회적 지위

국내 거주 중국동포집단은 다른 외국인들과 다른 역사적/문화적 배경과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동포”이기 때문에 일반 외국인과 다른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외국의 이주민과 공존을 모색하는 세계화 시대에 지나친 “민족정서”만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더 커다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동포”라는 법적 지위를 무시할 수 없다. 중국에 살고 있

는 동포들은 2004년 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에 따라 재외동포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최계수 2004). 2013년 1월 현재 국내체류 중국동포들 대다수는 방문취업비자(H-2; 223,382명)나 재외동포비자(F-4; 121,275명)를 갖고 있거나 결혼, 귀화 혹은 국적회복을 통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약 7만 3천여 명)이다. 즉, 이들은 입국비자의 종류에 있어서도 일반 외국인과 구별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과 뚜렷이 구별되는 집단이다. 그리고 최근 중앙정부는 중국동포에 대해서 방문취업비자를 줄여가고 그 대신 재외동포비자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이들의 “동포”라는 지위는 법적으로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대다수는 언어, 생활문화, 가족관념, 삶의 가치 등의 측면에서 일반 한국인과 같은 문화적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한국체류 중국동포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불만과 한국인에 대한 정서적 반감은 사실 이러한 “동포”로서의 지위 때문에 발생한다. 다른 외국인들과 달리 이들은 입국에서부터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입국 후에 이들은 한국에서 자신들을 일반 외국인과 같이 취급을 당하거나 오히려 더 멸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는 실망과 반감을 갖게 된다. 그리고 한국인들도 이들에 대해 다른 외국인에 비해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실망감도 상대적으로 크다. 이처럼 이들의 “동포”라는 지위는 역사적, 문화적, 법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 갈등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집단이 갖고 있는 이런 특수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외국인 집단으로 취급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3) 집단의 규모

중국동포는 한국체류 외국인들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정책이 있다면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는 매우 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내 거주 중국동포는 2013년 1월 현재 145만여 명에 달하는 전체 외국인 주민의 40%에 이르는 55만 3,517명이다. 그리고 여기에 1만여 명에 이르는 단기체류자들까지 합산한다면 그 수는 60여 만 명 가까이에 달한다. 서울시만 보더라도 공식적으로 등록된 중국동포 체류자들이 225,201여 명인데 이는 서울 체류 전체 외국인주민의 57%에 이르는 규모이다.

따라서 인구 규모로 볼 때, 국내 체류 중국동포의 인구는 강남구의 인구와 비슷하고,

서울체류 인구만 보더라도 용산구 인구와 비슷한 엄청난 규모이다. 특히 이들의 대다수는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에 밀집 거주지를 형성하고,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나 생활양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중국동포들은 다른 어떤 외국인 집단에 비해서도 월등히 크고 그 사회적 영향력 또한 크기 때문에 그 규모만으로도 별도의 정책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체류 외국인들은 매우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성과 동시에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 (4) 외국인이면서 동시에 내국인인 존재

중국동포의 대다수는 법적으로 중국여권을 가진 외국인이다. 그리고 7만 3천여 명의 중국동포는 결혼, 귀화, 혹은 국적회복을 통하여 이미 국민이 되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수의 중국동포들이 귀화나 국적회복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중국동포들의 경우, 그들의 가족원들 가운데 일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가족원들이 서로 다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이런 현상은 한편으로는 가족원들이 순차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원들이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짐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양쪽을 쉽게 오가며 생활을 영위하려는 전략적 차원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국적을 가진 중국동포의 수는 7만 3천여 명에 불과하지만 이들과 실질적인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국적 미취득 가족원들을 고려한다면 그 수는 훨씬 더 크게 된다.

그리고 한국 국적을 가진 중국동포 대다수는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일반 한국인들 보다는 중국국적을 갖고 있는 가족 이외의 다른 중국동포들과 더욱 긴밀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생활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적으로는 한국인이지만 중국동포 밀집지역에서 다른 중국동포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귀화자들이 많은 것이다. 이런 현상 때문에 중국동포들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이 모호하다. 다시 말해, 국내의 중국동포란 집단은 외국인이면서 동시에 내국인인 집단인 것이다. 따라서 중국동포 집단은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외국인 집단과 구별되는 집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 2) 기존 다문화 정책과 차별되는 동포정책의 필요성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국내 거주 중국동포는 내국인과 외국인이라는 두 가지 범주에 걸쳐 있는 존재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동포관련 정책의 대부분은 외국인주민이나 다문화정책의 틀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국내의 외국인주민이나 다문화정책은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지만 일부 내국인들은 “역차별”을 말할 정도로 외국인주민과 결혼이주자의 가족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왔다.

그런데 현재 다문화정책은 국내의 “다문화담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문화”란 담론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는 “다문화주의”에서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 “다문화”는 기존의 한국문화를 포함하여 오늘날 한국사회의 문화 자체가 “다문화적”이란 의미이다. 하지만 현실속의 “다문화”란 이름의 정책과 담론이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들만을 주요 대상으로 하다보니, 어느새 “다문화”란 한국인이거나 한국문화가 아닌 “외국인” 혹은 “외국문화”만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착되기에 이른다. 본 조사 과정에서 인터뷰한 한 중국동포에 따르면, 그의 자녀는 학교에서 한국인 친구들로부터 “재는 ‘다문화’야”라는 표현을 일상적으로 듣고 있었다. 이처럼 “다문화”가 외국의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면서, 오늘날 국내의 다문화담론은 외국인주민과 외국문화를 타자화시키는 담론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담론”이 원래는 한국문화를 포함한 모든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강조한 의미에서 출발하였지만, 오늘날의 다문화담론은 이런 타자화의 의미를 띠는 방향으로 변모하게 되었기 때문에 중국동포들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주민들도 “다문화”란 말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특히 중국동포의 경우에는 그 거부감이 훨씬 더 강하다. 그 이유는 외국의 문화를 의미하는 “다문화”가 중국동포와 다른 외국인주민을 동질적인 하나의 집단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동포들은 외국인과 내국인 양쪽에 걸쳐 있는 집단인데, 국내의 다문화담론은 중국동포를 외국인과 동일시하려고 한다. 이런 이유로 특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동포들은 자신들이 외국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커다란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런데 중국동포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또 하나의 불만은 별도의 동포 관련 정책의 부재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중국동포들 가운데는 자신들은 다른 외국인과 같은 “다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문화”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각종 서비스나 행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혹은 그런 곳에 자신들은 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

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실제로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거나 중국동포들은 소외되기 일쑤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이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주민을 우선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동포 단체들 사이에서는 “다문화”란 이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내키지 않는 현실적 타협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흑룡강신문사가 운영하는 “다문화교실”의 경우도 그 한 사례이다. 흑룡강신문사는 중국에서 조선족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언론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신문의 한국지부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활발한 활동을 하기 힘든 형편이다. 따라서 이 신문사는 각종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 “다문화”라는 이름을 걸고 이들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그런데 흑룡강신문사의 이런 활동을 두고 동포사회에서는 “이해는 하지만 동의하기는 힘들다”라는 비판을 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동포들의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해 농성까지 했던 한 동포단체는 “동포가 왜 다문화인가?”라고 하면서 다문화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중국동포 사회에서는 “다문화”란 이름을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게 공인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문화”란 이름을 수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100여 명의 중국동포 배구동호인들로 구성된 재한중국동포 배구협회는 “다문화배구총연합회”란 이름으로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고, 14개의 중국동포 축구단 연합으로 구성된 재한중국동포축구총연합회도 최근 “다문화축구총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중국동포 사회에서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근본 원인은 바로 “동포”란 명칭이 붙은 별도의 정책이나 전담부서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다른 외국인주민과 국내 중국동포를 별도로 다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국동포와 다른 외국인주민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구별하여 정책을 만들 것인지, 나아가서 다양한 외국인주민 집단들 또한 구별하여 정책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4. 연구 방법

### 1) 문헌 조사

서울 거주 중국동포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을 제발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각종 문헌을 통하여 국내외의 동포관련 정책과 사례를 조사하였다. 첫째,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



서 시행해 온 중국동포 관련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런 정책의 효과와 한계는 무엇이었는지를 점검하고자 했다. 둘째로,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중국동포 관련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셋째로, 외국의 경우 그들의 귀환동포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은 어떠했고 정부는 그들에게 어떠한 정책을 취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서 초점을 둔 사례는 일본의 일계인(日系人), 독일의 아우스지들러(Aussiedler), 그리고 중국의 귀교(歸僑)이다.

## 2) 서울 거주 중국동포에 관한 실태조사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더불어 서울 거주 중국동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설문지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설문지 조사는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면접조사는 중국동포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서울시민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지 조사는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총 452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면접조사는 설문조사를 보충하여 보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그리고 면접조사는 중국동포들 뿐만 아니라 한국인 주민들을 포함시킨 이유는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일반 서울시민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중국동포와 그리고 중국동포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면접조사에서는 응답을 계량화하기 보다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직접 들어 봄으로써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의 시행이 보다 현실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했다. 따라서 면접조사의 내용은 별도로 분석하지 않고 정책제안 부분에서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와 면접조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3장에서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면접조사 대상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부록에 간략히 소개하였다. 아울러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들 또한 부록에서 소개하였다.

## 3) 본 연구의 대상과 “중국동포”란 개념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동포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중국동포를 지칭하는 용어가 여럿 존재한다. 용어나 호칭은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

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주 조사대상인 국내 중국동포 주민을 부르는 호칭으로 어떤 용어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한국에서는 중국동포를 부를 때, “중국동포”란 호칭 이외에도 “조선족”, “중국교포”, “한국계 중국인”, “재중동포”, “한국인”, “중국인”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이들 각각의 호칭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모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국동포”란 호칭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조선족”이란 호칭은 중국내 소수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용어다. 따라서 한국정부나 한국인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를 굳이 “중국의 한 소수민족”이라는 식으로 부르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또 그렇게 부를 필요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재중동포”란 호칭도 중국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한국인” 혹은 “중국인”이란 호칭은 국적만을 고려한 호칭이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으로 중국과 한국에 동시에 걸쳐 있는 중국동포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할 또 하나의 사항은 다른 재외동포와의 형평성이다. 한국인들은 재외동포를 “동포”나 “교포”로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본이나 미국의 교민을 부를 때는 “재미교포” 혹은 “재일교포”라는 식으로 “교포”라는 호칭을 주로 사용하지만 중국동포를 부를 때는 “재중교포”라는 용어 대신 “중국동포”나 “조선족”으로 불러왔다. 따라서 이러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중국동포 또한 “중국교포”라고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교포”란 용어가 주로 미국의 동포를 부를 때 사용되고 중국동포를 부를 때는 “동포”란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인해, “교포”가 “동포”에 비해 더 바람직한 호칭이라고 판단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본 연구의 설문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호칭 가운데 중국동포들이 가장 선호하는 호칭을 물어 본 결과 “중국동포”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히 높았다(3장 참조).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중국동포를 가장 적합한 호칭이라고 판단하였다.

중국동포는 원칙적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들 모두를 포함한다. 그런데 본 연구가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중국동포는 기본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동포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중국동포라는 개념은 중국국적을 갖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들뿐만 아니라 이미 한국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들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중국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방식은 귀화, 국적회복, 그리고 결혼이주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은 법적으로 한국인들이다. 그런데 사회문화적으로 보자면 이들 대다수는 여전히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중국동포 집단과 같은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많은 중국동포들의 경우, 국적회복을 하거나 귀화를 한 뒤에도 그들의 삶은 그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의 생활은 한국국적이 없는 다른 국내 중국동포들의 삶의 연장선 속에 있거나 그들과 밀접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들뿐만 아니라 귀화, 국적회복, 그리고 결혼이주를 통해 한국국적을 갖게 된 중국동포들 또한 전체 중국동포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 II. 중국동포 관련 정책의 현황과 그 시사점들

### 1. 중앙정부의 주요 동포 관련 정책

#### 1) 법무부

법무부는 중국동포들의 출입국과 체류자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이다. 법무부의 정책은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중국동포들은 79년 시작된 독립유공자 후손의 영주귀국을 허용하는 중국 거주교포 귀국대책이란 제도를 통해 처음 국내에 입국하게 된다. 그런데 당시 중국동포들에게 친척방문을 할 수 있도록 발급해주는 대한민국 임시여행증명서는 출입국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그러다가 1988년 정부가 중국동포에 대한 영주귀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게 되고, 한중간에 이산가족재회 사무 처리규정도 폐지하면서 중국동포들은 외국인 신분으로 미수교국가의 국민에게 발급하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하게 된다(하득선, 2011). 90년대 이후 중국동포의 출입국과 취업관련 주요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표<2-1-1>과 같다.

중국동포 관련 제도들은 초청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다른 외국인들과 구별된 동포의 자격이나 취업 분야에서의 우대를 받는 방향으로 변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 제도는 방문취업비자(H-2)와 재외동포비자(F-4)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도입된 방문취업제도는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국동포 관련 법무부 제도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곽재석, 2012; 김현미, 2009; 이진영, 2010; 하득선, 2011). 방문취업제도는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들이 최장 4년 10개월까지 자유왕래와 36개의 단순노무 분야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 제도는 국내에 연고를 가지지 않은 동포까지도 국내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추첨을 통해 입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전까지 많았던 불법체류 문제를 해소하고 중국동포들이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이러한 커다란 의미에도 불구하고 중국동포들이 기대하고 있는 체류자격은 3년에 한 번 씩 기간 연장만 받으면 계속 체류할 수 있고 왕래도 자유로운 재외동포라는 자격이다.

〈표 2-1-1〉 중국동포 출입국과 취업관련 제도와 정책의 변화

연도	제도 및 정책	주요 내용
1992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	국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산업기술 연수생 신분으로 도입
	한중수교	친척초청 범위: 60세 이상 5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993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도입 업종과 규모의 확대
1994	친척초청범위 확대	55세 이상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997	연수취업제도	2년 연수 후 1년 합법 취업 (IMF 금융위기로 중단 후 2000년 재시행)
1999	재외동포법	해외동포의 출입국, 체류, 국내 부동산 보유 등에 관한 권리 확대(중국 및 CIS 동포는 제외)
	친척초청범위 확대	50세 이상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2002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후 출국유예조치	불법체류자 27만 6천 명의 93%가 자진 신고
	친척초청범위 확대	40세 이상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취업관리제	동포들에게만 8개 서비스 업종 취업 허용
2003	친척초청범위 확대	30세 이상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2004	재외동포법의 개정	재외동포법에 중국동포 및 CIS 동포 포함
	친척초청범위 확대	25세 이상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2005-2006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산업연수제와 병행 실시
	동포귀국지원 프로그램	불법체류 중국동포의 자진 귀국 지원
2007	고용허가제로 단일화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지 고용허가제로 단일화
	방문취업제	무연고 동포들의 방문과 취업 확대 (H-2비자)
2013	재외동포비자 발급 확대	60세 이상 외국국적 재외동포에게 재외동포비자(F-4) 발급 확대를 비롯한 재외동포비자 발급 요건 완화

사실 방문취업제는 중국동포들에게 있어 재외동포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임시적 성격을 띤 제도였다. 그런데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사람들이 만기가 되어 출국하기 시작한 시점인 2012년을 전후로 중국동포들에 대한 재외동포비자 확대 문제가 다시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1999년 처음 제정된 재외동포법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이주한 동포들에게만 적용되었다. 따라서 각계의 이의 제기로 인해 이 법은 위헌심판을 받고 2004년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들도 포함되

도록 개정되었다. 이로서 중국과 CIS 지역 동포들도 재외동포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중국과 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재외동포법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국내 일자리의 충돌 문제였다. 따라서 정부는 재외동포비자로는 단순노무 분야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했고 대신 방문취업제도를 만들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법무부는 국내의 일자리 문제 등의 사정을 살펴가면서 단순노무 이외의 직종을 중심으로 중국과 CIS 지역 동포들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부여해 왔다. 2013년 현재 그 심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그리고 특정활동(E-7) 등의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국내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 이상 과정을 이수(2학기 이상 등록)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졸업한 사람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거주국 또는 제3국에서 동포단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전문 직업 및 지식을 가진 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이다.

또한 2009년부터는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농업, 어업, 제조업 분야에서 방문취업 자격자들을 적극적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주고 있다. 그 자격과 분야는 매년 조금씩 변해왔는데, 2013년 현재의 자격 조건에는 농축산업이나 어업,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도의 인구 20만 이상의 시·군을 제외한 지방 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한 경우와 기능사 이상의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건설분야는 제외)을 소지한 사람인 경우가 포함된다. 특히, 법무부는 2012년 4월부터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국내 체류동포의 만 19세 이상 25세 미만 자녀에 대해 1년간 유효한 단기일반(C-3-1)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입국기회를 확대해 주고 있고, 2013년 9월부터는 방문취업비자를 가진 만 60세 이상의 동포들에게 재외동포비자로 전환시켜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정책은 중국동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동포 사회는 중국동포와 CIS 지역 동포들에게도 재외동포법의 전면적인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 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무엇보다 국내 일자리문제를 우선 고려해서 외국인 고용정책을 펴고 있다. 1992년 이전은 외국인의 국내취업은 해당 직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특정직종의 전문기술인력에 한하여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교

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등 전문기술인력에 대해서 고용계약 체결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취업을 허용하였다. 단순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1992년부터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 운영하였다. 산업연수생제도는 국내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일정 기간 연수를 마친 뒤 취업자로 전환하는 체제를 갖고 있었다. 산업연수생제도에서는 외국국적동포와 다른 외국인 간의 구별이 없었는데, 2002년 12월부터는 외국국적동포만을 대상으로 8개의 서비스분야에 한해 취업을 허용하는 취업관리제를 도입하게 된다. 그런데 기존의 연수생제도 하에서는 외국인 인력을 편법 활용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추진하는데, 그 제도가 바로 고용허가제이다. 고용허가제는 한동안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하여 실시하다가 2007년부터는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단일화하게 된다. 그리고 같은 해부터 중국 및 CIS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방문취업제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아울러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외국인고용지원과 외국국적 동포들의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문취업 체류자격 동포들은 입국 초기 3일 취업교육을 받고 있으며, 건설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동포들은 건설업 취업교육을 추가로 받고 있다.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1년 11월 16일부터 방문취업 기간이 만료되어 2012년 12월 31일까지 귀국예정인 중국동포 근로자를 대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국비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해 훈련생을 모집하였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과정과 홍보과정이 짧았던 탓에 7개 교육기관이 모집한 인원이 100여 명에 불과했다. 2012년 체류기간 만료로 돌아가게 되는 중국동포들이 약 7만여 명에 달하는데 이 정도의 프로그램으로는 실제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sup>7)</sup>

### 3) 외교부

외교부는 산하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중국동포를 포함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재외동포재단법’에 의거하여 그 지원 대상 범위를 해외에 있는 동포사회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동포와 관련하여서는 해마다 ‘중국지역 조선어교원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그리고 내몽고 등에 소재하는 조선족학교에서 온 조선족 교원들을 상대로 보름간 최

7) 중국동포신문 2011년 12월 16일 보도 참조

신 국어 교수법을 가르쳐주고, 국내 초·중·고등학교를 참관 수업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 체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또한 중국과 CIS 지역의 재외동포에 대한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장학사업은 재외공관의 추천을 받아 현지 대학에 다니는 우수한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과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서 국내에서 학사나 석·박사 과정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입국경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이 있다. 이런 지원 사업으로 재외동포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문제는 관련 법규의 제한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 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중국동포 관련 정책으로는 2013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외국국적을 가진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장기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도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결혼이민자, 국내 거소신기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들도 장애인 등록을 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5) 교육부

교육부 또한 재외동포의 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재외동포교육을 위한 유아용 교재 보급, 재외동포자녀 모국방문 지원,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지원, 재외동포 교원 현지연수, 재외동포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모두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 관련 프로그램이고 국내 체류 동포들을 위한 관련 정책은 없는 상황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들 자녀 교육은 “다문화 교육”에 포함되어 일괄적인 적용을 받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 4월 1일 기준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5만5767명이다. 이것은 2012년 4만 7천여 명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들 학생의 부모 국적은 중국(34.4%)이 가장 많다.<sup>8)</sup> 그 뒤로는 일본(23.4%), 필리핀(15.4%), 베트남(11.3%) 등의 순이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교육부는 2012년 3월 “다문화 교육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를 통해 다문화 학생이 정규 학교에 배

8)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이 가운데 중국동포가 17.4%를 차지하고 일반 한족이 16.4%이다.



치되기 전에 사전 적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비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2013년 현재 52개 예비학교가 운영 중이다. 이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일반 공교육에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이 많은 경우 그 학생들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또한 다문화 학생의 장점인 언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이중언어교사 제도도 확대하고 있다.<sup>9)</sup>

### 6)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2011년 10월5일부터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인지 또는 귀화로 인한 한국인”과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까지 확대하면서 중국동포가 귀화해 한국국적을 얻은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중국동포끼리 혼인한 경우도 다문화 가족에 포함시켰다. 이는 2011년 4월 공포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정책으로 국적회복 혹은 귀화한 중국동포들과 그 가족들이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어 지원을 받게 되었다.<sup>10)</sup>

### 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재외동포 한국어교사 교육, 한국교육 보조자료 지원 등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있으나 재한동포 대상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세계해외동포축구대회” 역시 2002년 중국 연변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후 2004년 미국 시카고, 2006년 경기도 고양, 2008년 경기도 가평, 2009년 강원도 횡성, 2010년 경남 합천, 2011년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었지만<sup>11)</sup> 여기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동포는 제외되었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중국동포 정책의 현황과 한계

### 1) 지방자치단체 중국동포 정책

전국의 지자체에서 명확하게 국내거주 재외동포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조례가 명

9) 중앙일보 2013년 9월 14일 보도 참조.

10) 여성가족부 2011년 9월 29일자 보도자료

11) 연합뉴스 2011년 9월 26일 보도

확하지 못하다. 대부분 외국인지원조례에 근거하여 구체적 집행과정에서 중국동포지원에 조금씩 관심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지자체가 다문화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2007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들 수 있고, 지방정부차원의 「거주외국인지원조례」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이러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이다. 행정자치부는 2007년 2월 당시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조례안을 준거안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로 하여금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을 유도해 왔다(양기호, 2006; 박세훈, 2011).

각 지자체에서 다문화관련의 관련부서의 중앙-지방의 수직적 경직관계로 정책집행이 원활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더 나아가서 중국동포관련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는 행정적, 전문지식도 모자라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세가지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지자체의 지원조례나 시책이 각 지자체 특성이나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고려하면서 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모범답안적으로 제시된 조례안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독자성이 부족하며 지자체간 대동소이하다. 둘째, 각 행위자간(중앙부처간, 중앙-지방 간, 광역-기초 간, 중앙-지방-민간 등)의 역할에 대한 규정 미흡으로 효율적 정책집행의 어려움이 있다(한승준, 2009; 박세훈, 2011). 셋째, 지자체의 지원조례는 미등록외국인 등에 지원이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예외조항이나 단서조항을 첨가하는 형식으로 수행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한승준, 2009; 박세훈, 2011).

요컨대, 이러한 입법적 준거의 미비나 실효성의 미흡은 지방정부의 다문화사회 대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지자체의 외국인지원조례는 중앙정부 지침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기본내용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며, 문제는 지원의 근거가 되는 이 지원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지자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행정자치부, 2008; 한승준, 2009; 성은혜, 2011; 강휘원, 2013). 즉 중앙정부의 다문화관련법에서 명확하게 재외동포를 구분하지 못하였기에 ‘상위법’을 기반으로 한 각 지자체조례에서 ‘중국동포지원’의 법적근거는 매우 빈약하다.

## 2) 지자체의 사례

### (1) 다문화정책의 적극적 확산을 통한 동포의 간접지원

경기도는 외국인 집중도가 서울 다음으로 높은 곳이다. 특히 안산-시화, 화성 등 공단이 밀집되었고,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책의 개발과 집행과정에서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오경석소장의 인터뷰에서 경기도에 중국동포의 비중이 매우 높지만, 특별히 중국동포를 지원하는 정책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 공무원들은 중국동포에 대한 관심도 많고, 정책을 개발하는데 공감을 하지만, 구체적인 법안과 조례를 만드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 설명하였다. 그래도 노력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중국동포주민을 지원하지 못하지만,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동포관련의 지원기관, 담당공무원을 뽑을 때 중국동포출신을 뽑거나 중국동포관련 연구자인력도 중시하여 선발함으로써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얘기하였다. 경기도 안산의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2013년에 장기적인 정책 개발에 초점을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의 설립은 외국주민의 지역사회통합에서 전문연구인력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직접 중국동포분야를 특화하지 못하였지만, 경기도는 이미 중국동포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중국동포 연구인력을 전문배치하거나 중국동포실무지원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단기적 실무성과 장기적 연구개발에 중국동포에 눈을 돌렸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2) 부산의 차이나타운 공간재생과 개발이 주는 시사점

부산시는 시차원에서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 “삶의 질 향상·경쟁력 강화·문화의 육성을 통한 국제기반의 구축”이란 목표가 기본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부산광역시, 2009). 차이나타운이 있는 지역을 해양수도 부산을 건설하기 위한 5개 거점을 육성하는데, 정보관광거점과 역사전통예술거점이라는 두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근래에는 도시재생의 산업으로 산복도로 추진하면서 초량동 지역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부산은 이런 구체적인 에스닉, 다문화 공간변화의 정책이 존재함으로써 그 공간에 있는 화교학교, 화교단체,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조직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흥미롭다. 매년 동구지역 차이나타운에서 중국특색이 있는 “차이나타운특구 문화축제”를 조직한다. 매년 짧게는 3일, 길게는 한주일 동안 진행하는데 2013년에는 5월 31일-6월 2일까지 부산의 자매결연 도시 상하이 합

계 부산-상하이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축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특구공간의 국제교류의 특징을 잘 보여주었다. 주된 활동은 중국기예단, 거리공연, 중국전통차 시음회, 부산동구 스토리텔링, 중국 전통의상 체험, 마술, 저글링, 중국전통문양 페이스페인팅, 먹거리장터, 프리마켓 등 이벤트를 만들어 냄으로써 공간이미지의 변화, 지역주민의 공생관계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중국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징을 활용하여, “중국동포특구” 혹은 “미래 통일특구”로 지정하면서, 가리봉 등 동포밀집지역의 장기발전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매년 축제지원과 축제기획은 흩어져 있는 중국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들에 잠깐이라고 휴식, 긍정적 이미지로 노출되게 함으로써 동포이미지 개선, 나아가서 전반 외국인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 특히 중국동포들이 집중된 중국의 연길시와 함께 동포문화축제를 기획하면, 동포의 국제화와 가리봉지역의 변화를 점진적으로 유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3) 부산의 문화예술지원과 내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들의 상호이해 증진

문화예술지원에서 “컬처노마드 -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꿈”이라는 콘서트를 기획하였다. 콘서트에는 중국동포문화예술과 관중들이 많이 참석하였으며, 그 반응도 매우 좋았다. 한편으로는 부산·울산·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새터민, 중화권 외국인 노동자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뜻깊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이 중국동포들의 높은 예술성으로 동포이미지를 높이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자주 동포문화예술인을 초대하여 적극적인 문화교류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동포밀집지역의 문화예술의 품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으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서울에서 공부하는 연예인출신 유학생들이 많고, 문화예술인조직을 갖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동포유학생, 동포근로자,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교류와 상호이해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설문지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지역주민과 동포들의 접촉빈도가 낮은 것은 동포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이벤트가 적는데, 그 효과적인 대안이 질 높은 문화-예술공연이 아닌가 생각된다.

#### (4) 다문화예산의 적극적인 활용

부산은 외국인이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비례가 비교적 균형적이며,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대부분의 예산은 다문화관련의 예산이다. 즉 국제결혼이민자의 수가 부산시 외국인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예산 부분이다. 부산은 국제결혼여성의 비중이 기타 집단과 비율과 균형적이고, 서울, 경기 지역에 비해 국제결혼이민가족의 비율에 비해 외국인 수의 비율도 대폭 낮기에 기타 외국인들이 다문화예산의 혜택을 더 많이 간접적으로 보게 된다(강휘원, 2006; 2013).

즉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외국인, 동포지원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다문화이외의 예산 확보가 급선무이다. 다문화예산에서 소외되는 집단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자치조례안의 통과가 필요하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3년 9월 광주시에 거주하는 고려인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새터민 동포들은 통일부 산하에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이 있으며, 매년 280억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체류하는 중국동포에 해당하는 지원조례나 지원재단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 3. 외국의 귀환 동포 사례와 그 시사점

#### 1) 일본

##### (1) 일제인의 현황과 특징

현재 한국으로 돌아와 체류하고 있는 많은 중국동포들이 있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를 이웃 일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일본에서 일제인(日系人)이란, 일본에서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을 말한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남미의 브라질이나 페루에서 1990년대 이후 일본에 정주자(定住者)나 가족 비자로 입국하여 현재 커다란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귀환동포들을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 재류외국인 통계(在留外國人統計)(2012)에 따르면, 일제인은 2011년 현재 일제 브라질인이 210,032 명, 일제 페루인이 52,843 명 거주하고 있다.<sup>12)</sup> 그들의 대부분은 산업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도요타 자동차의 본거지 인 도요타시(豊田市)가 있는 아이치현(愛知県)에 54,458 명,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하마마츠시(浜松市), 이와타시(磐田市) 등이 있는 시즈오카현

12) 브라질과 페루라는 남미 출신자인 이유는 일제의 패망 후 일본인 이민이 계속된 지역이 제 2 차 세계대전과 무관하였던 남미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역사적인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靜岡縣)에 33,547 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도쿄나 오사카 등의 대도시에는 각 3,000 명 정도 밖에 거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큰 집단이지만 대부분 지방 거주자는 사실은 일제인에 관한 여러 문제들을 특정 지역에 국한한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을 낳게 되었고, 이들에 대한 정책 준비를 지연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대부분의 일제인들은 산업도시나 시골 공장지대의 공장 내에서 단순노동 작업에 종사하고 있다. 2010년 일본 국세조사(國勢調査) 결과에 따르면 일제 브라질인 66.1%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일제인의 전형적인 고용형태는 파견을 통한 간접고용이며, 단기간의 고용과 해고를 반복하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 대우가 좋지 않는 주변노동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상황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다. 2008 년 경제 위기에 따라 많은 일제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시가현 국제협회 조사(滋賀縣國際協會)(2009)에 의하면, 시가현 내에서 제일 브라질인 실업자 비율은 42.8 %에 이르렀다. 2005년에는 30만 명에 달했던 제일 브라질인 등록자수의 약 3 분의 1이 일본을 떠나고, 이에 따라 제일 브라질인 집주 지구에는 유명도시도 생겼다. 실업으로 자녀를 학교에 못다니게 시키거나, 또한 본인의 재취업을 위한 능력개발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서 일제인 교육문제가 크게 초점을 일으켰다. 지방자치체는 실업수당 지급 및 의료비 미납 대항 등으로 재정적으로 큰 압박을 받았다. 또한 경기 침체로 인근 주민과 일제인의 갈등이 심화된 경우도 생겼다. 이러한 문제들은 경제 상태가 비교적 양호했던 시절에 국가정부와 각 지방정부가 미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지 않았던 것도 상황 악화의 요인 하나가 되었다.

1990년을 전후해서 일제인들이 일본에 대량 유입되게 된 배경에는 1990년의 출입국관리법(出入國管理及び難民認定法)의 개정이 있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외국 국적을 가지는 일본인의 자손을 대상으로 한 '정주자(定住者)'라는 새로운 재류자격이 만들어졌다. 일제인들은 혈통을 근거로 하여 비자를 받아 입국·체재하게 되었다. '정주자' 자격으로는 취업에 거의 제한이 없고 체류 연장도 쉽다. 단순노동 목적의 입국·체류가 금지되어 있는 일본에서 일제인은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특수한 외국 국적 노동자 집단이 되어 갔다. 그러나 일제인 정책은 원래 대상자가 제2차 세계대전 결과로 귀국 못하게 된 중국잔류일본인이며 이들의 귀국과 정착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남미 출신 일제인들이 대량 유입되고 공장 내에서 단순노동자가 되고 간 것은, 일본 국내 3D업종의 인력난과 1980년대 남미 국가들의 경제불황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일계인 정책의 주요 주체는 일계인 집주지역의 지방자치체이다. 일본에서는 한국과 비교해서 지방 분권적인 구조가 되어 있어서 지방정부 자유 재량권이 많은 편이다. 각 지방정부는 짧은 기간에 급증된 일계인에 대응하기 위해 다언어화 대응을 중심으로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둔 정책을 세웠다. 다문화공생(多文化共生)이 그 슬로건이었으며(駒井洋·渡戸一郎編 1997 : 15), 일계인라는 민족적 동질성이 정책상에서 강조된 일은 거의 없었다. 대신 브라질, 페루라는 이들의 출신지가 강조되었고, 특정 국가 국적의 주민으로서 특화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되게 되었다. 단지 외국국적 주민 중에서 일계인의 비율이 많다는 점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체의 외국국적 주민 정책 담당 부서에서 일계인만을 대상으로 한 부서가 독립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다. 이것은 일계인의 대부분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화자이며 일본어나 영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다른 외국국적 주민이 종사하지 않는 단순노동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취업 지원 서비스 등을 별도로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2012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전후해서 일본에서는 일본인과 외국국적 주민 사이의 행정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대신 외국국적 주민의 존재를 강조하지 않는 통합형 정책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 배경에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지방자치체의 재정 상태가 악화돼버리고 외국국적 주민을 위해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한 반발이 강해졌다는 사정도 반영되고 있다. 즉, 외국국적 주민을 위해 별도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과 외국국적 주민을 섞어 버리는 것으로 애매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 각 지방자치체의 공보나 웹 사이트에서는 다문화공생의 문자가 점점 사라져, 대신 같은 사업에 대해 ‘미래지향’이나 ‘통합’ 등의 단어가 사용되게 되었다.

## (2) 일계인에 대한 중앙 정부 정책

최근 불황에 따라 일계인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서 일본의 내각부는 2011년 3월 31일에 “일계정주외국인 시책에 관한 행동계획(日系定住外国人施策に関する行動計画)”을 발표하게 된다. 다음은 이 계획에 나타난 주요 정책들이다.

① 일본어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언어 교육 지원

- 가. 일본어 교실의 설치 및 운영
- 나. 일본어 능력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설치
- 다.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천적인 연수 실시
- 라. 일본어 교육의 표준적인 교과과정 데이터베이스화
- 마. 일본어 학습을 위한 생활 핸드북을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 작성하여 배포

②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

- 가. 일본어를 지도하는 담당교원의 연수
- 나. 취학 촉진 담당직원 배치
- 다. 교사들에 대한 외국인 아동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교육
- 라. 외국인 아동이 공립학교에 입학·편입하기 쉬운 환경 정비
- 마. 검정고시에서의 외국인 수험생에 대한 배려
- 바. 일본 체류 브라질인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을 브라질 정부에 요청
- 사. 브라질인 학교 등 각종학교·준(準)학교의 인가 및 법인화 촉진 등의 지원

③ 직업 관련 정책

- 가. 업무에 필요한 일본어 습득을 도모하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 나. 일본의 노동법령, 고용관행, 노동·사회보장 제도 등에 관한 지식의 습득을 도모하는 일제인 취업준비 연수
- 다. 통역 및 상담원의 배치를 통한 다국어화된 취업상담
- 라. 일제정주 외국인 전문 상담 및 지원 센터 운영
- 마. 사업주에 대한 지도·상담 지원
- 바. 취업의 적정화를 위한 산업체와의 의견 교환

④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

- 가. 정보의 다언어화, 일본에 관한 정보와 일본어 기초에 대한 정보제공
- 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 일본인처럼 공공임대주택 등에 입주를 허용하도록 추진



- 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민간임대 주택에 입주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 보급
- 라. 외국인을 위한 재해대응 정보 제공
- 마.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 교실을 경찰 주최로 운영
- 바. 교통안전 교육
- 사. 외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 인재와 NPO 등 육성
- 아. 사회 보험, 국민 건강 보험의 가입 촉진 등

### (3) 일제인에 대한 지방 정부 정책

일제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체는 아이치(愛知)현은 일제인 정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아이치현은 2008년 경제 위기 때에도 일제인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 왔다. 그리고 2013년 4월에는 “아이치(愛知) 다문화공생 추진 플랜 2013-2017(あいち多文化共生推進プラン2013-2017)”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정책의 성격은 일제인만을 독자적으로 부각시키지 않고 일본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 전체를 통합하는 주민 정책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정부의 예산이 특정 외국인만을 위해 지원된다는 인상을 없애 내국인들의 반발을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아이치현 2013-2017 다문화공생 추진 플랜의 주요 내용이다.

#### ① 기본 목표: 다문화공생 사회 형성에 따른 풍부하고 활력이 있는 지역 만들기

#### ②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

- 가. 공립학교의 입학 및 학습 기회보장
- 나. 외국인 학교의 인가 추진 및 인가기준 완화
- 다. 학교 활동에서 학생들의 자기 정체성 확립과 부모-자녀의 커뮤니케이션 원활화를 위한 모국어 사용 권장
- 라. 일본어 학습 및 다국어를 통한 정보 제공
- 마. 외국인 주민의 취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 확대
- 바.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담당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제휴 및 협동하도록 권장

- 사. 외국인 주민이 정책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
- 아. 외국인 주민의 네트워크화 추진
- 자. 다문화공생의 담당자의 육성

③ 다문화공생 의식의 함양

- 가. 지역 주민의 다문화공생 의식 계발
- 나. 외국인 주민과 일본인 주민의 교류 추진
-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노하우 공유
- 라. 사업 내용의 조례화의 검토
- 마. 차별과 편견이 없는 지역사회 만들기를 목표로한 인권 교육·계발 추진
- 바. 학교에서의 다문화공생에 관한 학습과 교원에 대한 지도

④ 외국인 주민이 자립하여 안전하고 안심하면서 살 수 있는 지역 만들기

- 가. 다국어 상담 체제의 확립
- 나. 다문화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보다 전문적인 상담 체제 구축
- 다. 외국인도 일본인도 사회보장의 안전망에서 빠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 마. 의료 통역사 파견, 전화 통역의 보급
- 바. 외국어 진료가 가능한 의료 기관에 대한 안내
- 사. 외국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의 추진 및 정보 제공
- 아. 외국인 노동자의 적정한 고용 추진을 국가 정부에 요구
- 자.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 훈련
- 차. 공공임대 주택에 관한 생활정보 제공과 상담창구 설치
- 카. 외국인 주민의 수용에 적극적인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
- 타. 재해 발생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보 전달 강화 및 방재훈련 참가의 촉진
- 파. 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구축
- 하. 지방자치체와 경찰이 협력하여 다언어 교통안전정보 제공 및 교통안전 교육

(4) 일제인 사례의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일제인에 대한 현황과 일본정부의 일제인 정책으로부터 국내 중국동

포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의 중국동포와 일본의 일제인이 처한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일제인과 중국동포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성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로 취업의 기회를 찾아 1990 년을 전후해서 대량 유입을 시작해서 현재는 수십만 단위의 큰 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며 일부 특정 지역에서는 수만 명 규모의 집주 상황을 보여준다. 둘째, 이들 대부분은 혈통을 근거로 신설된 비자에 따라 단기노동을 목적으로 입국해서 내국인 노동자보다 대우가 나쁜 주변노동시장에 종사하고 있다. 셋째, 비자 갱신도 비교적 쉬워서 본국으로 왕복을 반복하는 초국적인(Transnational) 이주 양상(三田 編2011 : 184)을 보인다. 그리고 점차 가족 단위로 장기체류하고 영주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넷째, 이주를 반복하면서 자녀교육, 보험, 연금, 그리고 고령자 문제 등에 대해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다섯째, 민족이라는 동질성을 근거로 입국하게 된 사람들이지만, 내국인 주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집주 지역에서는 갈등이 사회문제화 되기도 한다. 여섯째, 장기 체류해도 내국민에 비해 사회계층 상승의 기회가 적다.

다른 한편 일제인과 중국동포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이질성도 존재한다. 첫째, 일제인의 경우에는 남미에서 현지화, 혼혈화가 진행되어, 특히 이주 3, 4세대의 경우에는 일본어를 거의 못해서 일본문화에 적응하기가 비교적 어렵다. 하지만 중국동포의 경우는 말씨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한국어를 잘 구사하고 한국식 생활양식에 쉽게 적응하고 있다. 둘째, 과반수의 일제인들은 지방 산업도시의 자동차, 기계, 식품 산업 공장에서 파견형태 단기계약 노동자로서 일하고 있어서 해당 부문의 경제상황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다. 반면 한국의 중국동포들은 제조업이외에도 건설, 농업, 간병일, 식당일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 변화에 대해 덜 민감하며 주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셋째, 일제인들이 자녀교육이나 자기 능력 개발에 대체로 관심이 적은 반면, 한국의 중국동포들은 자녀교육이나 자기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유사성과 차이점을 종합해 보면, 일제인보다 중국동포들이 사회통합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진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외모, 언어, 그리고 생활습관에 있어 중국동포는 한국인 내국인 집단과 일제인의 상황만큼 그렇게 큰 차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중국동포와 일반 한국인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달리 보면, 중국동포들은 일제인보다 더 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차별에 더욱 민감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일본정부가 추진한 유용한 정책들을 참조해 한국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 가운데

데, 외국인들을 정책 기획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의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의 제공, 그리고 재난에 대비하는 정보 제공과 방재 훈련 등은 한국에서도 참고해 볼 만한 것들이라고 판단된다.

## 2) 독일

### (1) 독일의 재외동포의 귀환 이주 정책

한국과 마찬가지로 속인주의적 성격이 강한 시민권 개념을 갖고 있었던 독일은 오랫동안 재외동포들의 귀환이주를 추진해온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사례는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혈통에 기반한 민족국가의 수립을 추구해 온 독일은, 외국에 거주하는 독일인들의 귀환이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국가이다. 외국 거주 독일인들에 대한 첫 번째 귀환이주는 세계 제2차대전 직후에 커다란 규모로 실시된다. 이 때 독일정부는 중부와 동부유럽에서 탈출하거나 쫓겨난 1,200여만 명의 독일인들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여만 명의 독일계 사람들이 폴란드에 남아 있게 되었고, 소련에는 140-150여만 명이, 루마니아에는 40만 명 이상이, 헝가리에는 20여만 명이, 체코슬로바키아에는 15만여 명이 남아 있게 되었다(Skrentny et. al. 2007).

두 번째 이주는 냉전시기에 해당하는 1950-1987년에 이르는 시기인데, 이 기간 동안 동유럽 그 가운데서도 특히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남아 있던 독일인들이 160만명이 귀국하게 된다. 이들이 바로 재정착민이라는 의미의 Aussiedler(아우스지들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이주의 물결은 철의 장막이 무너진 1988년에서 1996년에 이르는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외부 특히 구소련 지역에서 230여만 명의 아우스지들러들이 귀환하게 된다(Skrentny et. al. 2007; von Koppenfels 2009).

독일이 이렇게 외국의 독일계 주민을 받아들인 데에는 노동력의 확보라는 경제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 거주 독일계 주민들에 대한 귀환정책은 무엇보다도 2차대 이후 외국에 남아 탄압을 받고 있는 이들 재외동포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최치원 2009; Skrentny et. al. 2007; Tsuda 2010). 그들은 현지에서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주변화 되고 차별받기 때문에 모국에서는 그들을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바로 이들 귀환동포들은 외국인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김명희 2003; 고상두·하명신 2010). 따라서 이들 아우스지들러들은 다른 외국인

이주자들과는 달리 귀환과 동시에 시민권을 얻는 우대를 받았고, 그 밖에도 복지, 정착프로그램, 거주, 주택, 언어교육, 직업교육, 재교육 등의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귀환이주를 하게 된 아우스지들러는 1950-1999년 사이에 400여만 명에 이른다.

## (2) 동포귀환 정책의 변화

90년대에 들어서부터 독일의 재외동포 귀환 정책은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무엇보다 동유럽과 구소련의 개혁개방으로 냉전이 사라지게 되면서 외국에 남아 있는 독일인들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 사라져서 이들을 서둘러 귀환시켜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리고 독일 통일 직후 수많은 재외동포들이 귀환함으로써 이제는 외국에 남아 있는 동포들의 수가 많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최근 러시아 지역에서 귀국하는 독일계 사람들 가운데는 독일인이라고 하기에는 그 자격이 의심되는 사람들의 귀환 신청자가 많았다. 따라서 독일정부는 아우스지들러의 심사를 강화하고 귀환을 제한하는 제도들을 도입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1992년부터 매년 아우스지들러 입국 인원을 할당하여 1999년까지 매년 222,000명으로 귀환이주 인원을 정했다. 그리고 1993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아우스지들러 자격을 신청할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1996년부터는 독일어 시험을 도입하였는데, 이런 정책들로 인해 입국자의 수는 크게 줄어들었다(Skrentny et. al. 2007).

2000년이 되면서 아우스지들러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다시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과거의 정책이 독일의 민족의식을 고양하는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외국인을 차별함으로써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로써 2000년 속지주의의 원칙이 부분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국적법이 등장하였다(고상도·하명신 2010). 이제는 부모 중 1인 이상이 8년 이상 독일에 합법적으로 거주했거나 영주권을 보유하고 최소 3년 이상 독일에 거주한 외국인 자녀는 독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아우스지들러에 대해서 민족주의적 성향에서 벗어나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아우스지들러는 이제 독일인의 특성을 가진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외국에서 들어온 이주민이라고 여기게 된 것이다(Levy 2003). 매년 20만 명씩 받아들였던 아우스지들러의 허용 숫자를 10만 명으로 축소하였다. 그리고 독일어가 귀환 자격을 평가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등장하면서 귀환 신청자의 수도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 (3) 귀환동포 통합과정의 어려움

독일정부는 오랫동안 속인주의에 기반하여, 귀환동포를 외국인과 달리 구분하여 우대하였다. 독일의 귀환동포들은 언어습득과 취업을 위한 교육기회와 주거를 보장받았다. 하지만 이들 아우스지들러는 입국과 동시에 독일국적을 얻는 특혜와 정착을 위한 각종 복지 등의 우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정착과 독일사회로의 통합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된다. 아우스지들러들이 비록 공식적으로는 환영 받으며 입국했지만 실제로 이들은 독일사회에 이상적으로 통합된 것은 아니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독일 주민들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아우스지들러는 비록 독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일반 독일인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어려웠던 이유는 바로 이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에 있었다. 특히, 아우스지들러들 가운데 독일어가 서툰 사람들은 다른 일반 독일인들로부터 외국인 취급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다른 외국인들처럼 계토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이주자들이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받게 되는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권 권리이라는 고전적 의미의 시민권(Marshall, 1950)만으로는 완전한 시민권을 누리고 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법적으로는 차별이 없지만 언어, 음식, 의복, 관행과 같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일반 독일인들로부터 완전한 독일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적인 자격이 아닌 문화적 차이가 차별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늘날 이주민들이 한 사회에서 완전한 시민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전적 의미의 시민권 이외에도 다르다는 이유로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남에게 인정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남과 다를 수 있는 권리”를 갖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날 학자들은 이런 권리를 “문화적 시민권”이라고 부른다(Ong 1996; Rosaldo 1994; 1999).

### (4) 독일 사례의 시사점

#### ① 재외동포의 포용과 우대

독일의 사례는 한국으로 귀환이주를 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해 준다. 먼저 독일은 오랫동안 속인주의적 시민권의 전통 하에서 그동안 재외동포에 대한 우대와 포용정책을 펴왔다. 독일의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과 우대 정책은 같은 속인주의적 전통을 갖고 있는 한국의 재외동포 포용정책에 비하

면 그 정도와 범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로 독일은 엄청나게 많은 규모의 재외동포에게 귀환과 동시에 시민권을 부여했다. 동유럽과 소련에서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더 이상 독일인에 대한 박해의 위협이 사라졌지만 그 뒤로도 199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230여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귀환을 받아들였다. 이로서 1950년 이후 귀환이주를 하게 된 아우스지들러는 총 400만이 넘는다. 둘째, 독일이 재외동포의 귀환을 받아들인 이유는 한국이 중국동포를 받아들이는 이유와 커다란 차이가 난다. 한국의 경우는 무엇보다 국내에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고자 했던 이유가 컸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는, 물론 부족한 국내 노동력에 대한 고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재외동포들이 외국에서 받고 있는 차별이나 위협으로부터의 구제라는 이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Tsuda 2010). 셋째, 독일은 귀환동포들이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다른 외국인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주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중국동포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일과 같은 우대 정책을 펴지 못했다.

물론, 독일도 2000년대에 들어서 귀환동포에 대한 우대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무엇보다 아우스지들러를 다른 외국인과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동일선상에서 접근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등장한 시점은, 그동안 400만 이 넘는 재외동포들을 받아들인 이후에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최근 귀환을 신청하는 재외동포들은 독일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볼 때, 이미 재외동포에 대한 배려는 충분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는 독일의 최근 변화뿐만 아니라 과거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던 정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다른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독일과 같은 정책을 펼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한국의 정책은 재외동포, 특히 중국동포의 포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약했다고 할 수 있다.

### ② 문화적 시민권의 중요성

법적인 자격까지 부여받았지만 많은 아우스지들러가 독일사회에서 여전히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즉, 이주자들에게는 법적, 제도적 차원의 차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음식, 생활방식 등과 같은 문화적 차이 또한 차별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이것은 한국 국적을 가진 10만 여 명에 이르는 중국동포 귀화자들의 경험과 유사하다. 귀화, 국적회복, 그리고 결혼이주를 통해 한국 국적을 획득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일반 한국

인들로부터 이방인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은 언어, 음식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생활양식의 차이는 또한 집거지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마찰과도 관련이 깊다. 바로 집거지의 한국 주민들이 제기하는 중국동포들의 쓰레기 문제나 각종 기초 질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런 문화적 차이에서 생겨나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런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쓰레기와 소음과 같은 기초질서 문제로 한국인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집중 거주지에서 한국인 주민과 중국동포들이 어울리는 활동을 통해 함께 공통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회를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 3) 중국

#### (1) 동포 관련 법률의 제정

중국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 동포들의 귀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에서는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를 화교나 화인이라고 부르는데, 오늘날 전 세계 흩어져 살고 있는 화교와 화인은 3400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毛起雄, 2007)<sup>13)</sup>. 여기서 중국정부는 화교와 화인을 구별하는데 화교는 중국국적을 갖고 외국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화인은 현지 국가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화교와 화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고 거주국에서 화교와 화인은 대개 강한 응집력을 갖고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게 되면서 중국으로 귀환하는 화교와 화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중국으로 돌아 와 정주한 화교를 귀교라고 부른다. 한국의 용어와 비교해서 다시 정리해보면, 중국에서 말하는 화교(華僑)는 한국의 재외국민에 해당하고, 화인(華人)은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고, 귀교(歸僑)란 귀국한 재외국민에 해당한다. 그런데 정부는 1990년부터 귀환하는 이들 교민을 지원하기 위해 귀교교권권익보호법(归侨侨眷权益保护法, 이하 귀국화교보호법)<sup>14)</sup>에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상은 귀교(歸僑)와 교권(侨眷)인데, 여기서 교권이란 귀교의 부모, 형제자매 및 친인척을 말한다. 그리고 유학이나 노무로 해외에 나가 있거나 해외에서 정

13) 毛起雄, 2007, “解读归侨侨眷权益保护法”, 『北京市司法行政』

14) 중화인민공화국 국교교권권익보호법 <http://baike.baidu.com/view/2489442.htm>



주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는 이 귀교의 범위에서 제외 된다. 그런데 정부가 법까지 제정하면서 이렇게 교민의 귀환을 지원하는 것은 바로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의 기술과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이 법의 대상이 되는 귀교 인구는 120여만 명으로서, 이는 중국 전체 13억 인구의 0.1%도 되지 않는 적은 인구이지만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이들을 제도적으로 지원 하고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귀국화교보호법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귀국화교보호법 제9조에 따라 귀국화교가 운영하는 농장이나 임업 등 기업을 지원한다. 또한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이 토지를 빼앗을 수 없으며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 아울러 농장이나 공장에 들어온 귀국화교를 위하여 농장과 공장의 소재지에서는 수요에 따라 학교와 의료보건기관을 설립하고 정부에서는 관련 인원, 설비, 경비 등을 보조하도록 했다. 그리고 귀국화교보호법 제10조는 정부는 취업한 귀교 및 교권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경우 관할 인민정부에서 구제를 하도록 명시하였다. 이 법은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 다시 나가 정주하는 화교들의 권익보호도 명시하고 있다. 제 10조에 따르면, 귀교 혹은 귀권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정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떤 기관이라도 그의 합법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 그리고 휴직, 이직 혹은 퇴직 후 해외에서 정주하는 귀교나 교권에게도 퇴직금, 연금 등을 그대로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그 외에도 귀교(교권 포함)가 국외에서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중국과 체결한 조약이나 국제관례 혹은 국제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 (2) 법의 집행과 귀교 관련 전담기구 설치

중국정부는 귀국화교지원법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국무원<sup>15)</sup> 혹은 국무원 관련 기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귀국화교인원이 비교적 많은 지방인민대표대회에서는 일정 인원을 귀국화교 가운데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게다가 중국의 최고 권력기구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아래에도 통일전선부<sup>16)</sup>라는 기구가 있어 민족, 종교 관련 사업을 관장할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통일전선부에서는 특히 홍콩, 마카오와 해외의 관

15) 국무원 교무판공실 [www.gqb.gov.cn](http://www.gqb.gov.cn)

16) 중공중앙 통일전선부 [www.zyztzb.cn](http://www.zyztzb.cn)

런 단체들과 연결하여 대만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대만 동포들이 대륙에서의 정착을 지원한다.

중국에서는 공산당의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에 귀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귀국화교, 해외교포 관련 최고의 행정기관은 중국 국무원에 설치된 교무(侨务)판공실이다. 국무원 교무판공실은 최고 중앙기관으로서 교무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관련 법률을 제안하고 실시,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국무원은 귀교법에 근거하여 그 지침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동법과 국무원이 제정한 실시방법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중국에서는 중앙에서 지방의 현(縣), 향(鄉)에 이르기까지 전담부서를 갖추고 있다. 중국공산당 통일전선부가 해외 동포, 특히 대만 관련 홍콩, 마카오의 동포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면, 국무원 교무판공실은 국내에 생활하는 동포들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이처럼 양대 기관은 국외와 국내, 대만통일과 국내정착 등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반동포들의 사업을 아우르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중앙정부에 귀교화교 전담부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귀교화교에 대한 전담부서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수도 북경시 정부는 46개 부서로 구성되었다. 그 중 외국인을 전담하는 부서와 별도로 화교화인들을 전담하는 교무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것이 “교무판공실”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시 산하에 있는 16개 구(區)과 현(縣)에도 교무판공실을 설치하고 있다.

〈표 2-3-1〉 북경시 화교 및 교민 관련 정부 기구

북경시 정부의 기구들							
시정부행정청	발전개혁위	시교육위	시과학위	경제 정보화위	시민위	공안국	감찰국
민정국	사법국	재정국	인력사회 보장국	국토국	환경국	기획위	주거건설위
도시환경위	교통위	농업위	수도국	상무위	관광위	문화국	위생국
인구계획위	회계감사위	외무판공실	사회업무	국가자산위	토지세국	공상국	품질감독위
안전감독국	방송국	신문출판국	문화유물국	체육국	통계국	환경미화국	금융국
지적재산권국	민방위국	<b>교무판공실</b>	법제국	정보행정	정부연구실	-	-

출처: 북경시 정부페이지 [www.beijing.gov.cn](http://www.beijing.gov.cn)

북경 교무판공실<sup>17)</sup>에서는 화교 관련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화교화인전문인력 귀국창업세미나와 중국 뿌리 찾기 여름캠프 등을 실시하였다. 북경시는 또한 귀교교권권익보호법에 근거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분야별 지침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sup>18)</sup>.

**참정권:** 시인민대표대회에 일정비율의 귀교, 교권대표를 둔다.

**단체:** 북경시 귀교화교연합회 및 그 산하 조직은 귀교, 교권을 대표하는 단체이며 회칙에 따라 권익신장을 도모한다.

**복지:** 이밖에도 시정부는 어려운 귀교, 귀권에게 생산, 취업을 지원한다.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경제래원이 없는 등 생활이 어려운 귀교, 교권을 구제한다. 귀교학생이나 자녀가 자발적인 조직을 통해 국내에서 취업, 창업 활동을 할 경우 관련 부서에서 지원한다.

**교육:** 북경시에 체류하고 있는 귀교학생이 북경시 행정구역내 비의무교육 학교에 진학을 희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국유기업 및 실업기관에서 직원 채용 시 귀교학생을 우선 채용한다.

### (3) 주요 귀교단체

중국에는 정부조직 이외에도 다양한 화교와 귀교 관련 단체들이 있다. 가장 큰 단체로는 1956년에 설립된 중화전국귀교화교연합회<sup>19)</sup>(중국교련)가 있다. 이 단체는 일종의 관변단체로서 정부에 의해 설립되고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단체는 정부와 귀교, 그리고 해외교포와의 교량역할을 한다. 그리고 중국교련은 중앙정치협상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따라서 화교를 대변하는 인민대표를 통해 정협위원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귀교법 집행에 대한 감독 및 법 개정에도 적극 참여한다.

중국교련은 교무판공실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귀교 및 교권의 관련 사업들을 추진한다. 중국교련 산하에는 중국화교공익기금회(中国华侨公益基金会), 중국교련법

17) 북경시 교무판공실 [www.bjqb.gov.cn](http://www.bjqb.gov.cn)

18) 북경시 귀교귀국권익보호법 조례(2005), 북경시 교무판공실 홈페이지 참조.

19) 중화전국귀교화교연합회 [www.chinaql.org](http://www.chinaql.org)

률고문위원회(中国侨联法律顾问委员会), 중국교련청년위원회(中国侨联青年委员会), 중국교상연합회(中国侨商联合会)가 있다. 이밖에도 지역별 성급, 자치구급 조직이 33개 있다. 그리고 위 단체 가운데는 한국에서도 익혀 알고 있는 화상과 비슷한 조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교상연합회이다. 이 단체는 중국 국내에 투자하였거나 국내에서 창업을 한 귀국동포나 해외의 화교와 화인들로 이루어진 민간단체이다.

#### (4) 중국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중국 화교의 역사와 한국의 재외동포의 역사는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하고자 해외로 나가 애국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60-70년대 정부차원에서 노무수출 등 해외진출을 했던 한국처럼, 중국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해외로 나가자(走出去)”정책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국내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해외인력, 해외자본을 유치하면서 해외에 있던 화교·화인들의 귀환을 환영하고 있다. 현재 귀교 인구가 아직 전체 화교·화인 인구의 4%도 되지 않는 120여 만 명이지만, 정부는 이들을 위해 귀교법을 제정하고 중앙에서부터 향, 촌에 이르기까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화교는 언제든지 중국으로 돌아 갈수 있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민이다. 이들은 중국인과 해외 화인을 연결하는 중간자 위치에 있다. 이들에게 일반 국민으로서의 처우 외에도 화교라는 감투를 줌으로써 해외에 있는 화인들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당장 큰 이익이 아니더라도 또한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들에 대한 전담기구를 두고 제도화함으로서 120만 귀교를 통해 3,400만 화교·화인들을 포용하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이렇게 ‘나가자(走出去)’라는 해외진출추진 정책과 귀교 지원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돌아온 중국동포와 중국으로 돌아온 화교는 국적의 유무뿐만 아니라 내국인과 비교한 계층적 위치도 다르다. 하지만 재외 동포를 중요한 국가적 자원으로 여기고 있는 중국의 정책은 아직도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을 머뭇거리고 있는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III. 국내 체류 중국동포의 실태조사

#### 1. 조사 대상자의 특성

##### 1) 설문조사자료

###### (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국적 중국동포와 한국국적을 회복했거나 취득한 중국동포 출신이다.<sup>20)</sup>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함은 먼저 외국인등록증과 거소신고증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지가 있는 사람이고, 다음으로 등록 거주지는 서울시가 아니지만 친척, 지인과 같이 사실상 서울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중국동포 이주민을 말한다. 이 중국동포 이주민은 직업별로 일반 거주자(장기간 노동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직 과정에 있으면서 새로운 직업을 찾고 있는 사람), 일반 근로자(일반 노동시장이나 중국동포 이주민 경제 내부 노동시장에 고용된 사람), 사업가(넓은 의미에서의 자영업을 포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고 있는 사람)<sup>21)</sup>, 전문직(1차 노동시장에 정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현재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면서 회사에 다니거나 휴학을 하고 회사에 다니는 유학생 출신 전문직 종사자), 유학생(취직을 하지 않고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재학생) 등이다. 이런 조사 대상을 국적과 지역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20) 한국국적을 회복했거나 취득하면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이들의 주요한 문화생활과 경제생활은 여전히 중국동포라는 이주민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기에 조사 대상에도 포함시켰다.

21) 한국에 회사를 두고 중국과 한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기업가도 있지만 조사가 어려워 조사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3-1-1〉 국적, 지역별 조사 대상

	집거지역 (영등포, 금천, 구로)	일반지역(기타 구)
한국적	일반 근로자 일반 거주자 사업가	일반 근로자 일반 거주자 전문직 사업가
중국적	일반 근로자 일반 거주자 사업가	일반 근로자 일반 거주자 전문직 사업가 유학생

(2) 조사 방법

설문조사는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하여 총 452부를 회수하였다. 설문조사는 중국동포와 관련된 여러 단체와 기관의 협조와 설문조사원의 노력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서울시 가리봉동에 있는 중국동포타운신문사에서 100부를 회수하였는데, 이 신문사는 여행업무와 행정업무를 동시에 보고 있어 서울시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이 임의로 방문한다. 이 방문하는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 신문사는 비자변경을 위해 필요한(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을 운영하는 바 이 학원에 등록한 수강생들과, 이 수강생들의 가족, 지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다음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중국동포들에 대해서는 재한중국동포연합회의 협조를 받았다. 이 단체를 통해 40부의 설문지를 회수했다.

재한동포연합총회는 중국동포 상인과 사업가들이 주축이 된 단체여서 이 단체를 통해 중국동포 혹은 중국동포 출신의 한국국적자들에 대한 설문을 40부 회수했다.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중국동포한마음협회의 협조를 받아 설문지 60부를 회수했다. 마지막으로 유학생으로 구성된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의 협조하에 순수 유학생 설문지도 30부 회수했다.

〈표 3-1-2〉 설문조사 협력기관 및 단체

기관 및 단체 명	주요 활동	응답자 특성
중국동포타운신문	중국동포 이주민 집거지 중심으로 지역 무가지 발행, 이민, 행정, 체류 관련 업무, 여행 업무	무작위
재한동포연합총회	중국동포 이주민 노인복지기관 운영 등 활동	자영업(소상공인) 위주
중국동포한마음협회	중국동포 이주민 스포츠 및 봉사 활동	50세 이하 일반 근로자 위주
중국조선족연합회	중국동포 이주민 권리 및 이미지 신장 위한 활동	50세 이상 일반 근로자 위주
재한조선족유학생 네트워크	중국동포 유학생 친목 모임	유학생 및 유학생 출신 전문직 위주

그 외 200부는 본 연구용역의 조사책임자와 연구보조원 외 설문조사원 5명, 모두 8명이 임의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한 것이다. 설문 문항이 구체적이고 많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장하고자 모든 조사원은 가급적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할 때 설문지를 점검하였고, 응답률이 너무 낮은 설문지는 다시 보완을 하게끔 노력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설문지가 90% 이상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였다.

설문지 배포는 서울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 모집단 분포에 대한 개략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조사책임자가 지역, 직업, 연령, 성별 등 비율을 설계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실태조사 문항이 많고, 응답자의 연락처와 주거지를 비롯한 구체적인 정보가 완벽하지 않았기에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설문조사협력기관의 협조와 조사원의 설문지 배포 및 회수라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수집된 452사례 설문지가 전체 서울 거주 중국동포의 실태를 완벽하게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3) 응답자 특성

〈표 3-1-3〉 성별 비율

구 분	빈도(N=442)	비율(%)
남	201	45.5
여	241	54.5

〈표 3-1-4〉 직업 구성

구 분	빈도(N=333)	비율(%)
공장 근로자	31	9.3
건설업 근로자	38	11.4
음식점 종업원	60	18.0
여관(숙박 업)	1	.3
학원 및 교육기관	10	3.0
가사도우미	12	3.6
간병도우미	15	4.5
전문직(교사, 의사, 회사원)	54	16.2
자영업자	30	9.0
소기업가	7	2.1
가정주부	8	2.4
학생	9	2.7
매장 판매원	36	10.8
기타	22	6.6

응답자의 성별 구성을 보면 남성이 45.5%, 여성이 54.5%로 분포되었다.

응답자의 직업 구성을 보면, 공장 근로자가 9.3%, 건설업 근로자가 11.4%, 음식점 종업원이 18.0%, 여관 및 숙박업 종사자가 0.3%, 학원 및 교육기관 직원이 3.0%, 가사도우미가 3.6%, 간병도우미가 4.5%, 전문직 종사자가 16.2%, 자영업자가 9.0%, 소기업가가 2.1%, 가정주부가 2.4%, 학생이 2.7%, 매장 판매원이 10.8%, 기타가 6.6%로 분포되었다.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시내 24개 자치구에 모두 분포되어 있고 그 중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금천구, 서대문구가 각각 26.1%, 25.4%, 9.6%, 8.1%로 분포되어 있다.



〈표 3-1-5〉 지역 구성

구 분	빈도(N=394)	비율(%)
강남	7	1.8
강동	2	0.5
강북	1	0.3
강서	7	1.8
관악	38	9.6
광진	6	1.5
구로	103	26.1
금천	28	7.1
노원	1	0.3
동대문	4	1
동작	13	3.3
마포	11	2.8
서대문	32	8.1
서초	1	0.3
성동	3	0.8
성북	4	1
송파	6	1.5
양천	6	1.5
영등포	100	25.4
용산	7	1.8
은평	4	1
중구	2	0.5
중랑	1	0.3
기타	7	1.7

주: 기타 7사례(서구1인, 소사 2인, 원미1인, 하남 1인, 부평 1인, 동안 1인)는 서울시 외에 거주하지만 서울시에 직장 있는 사람들의 경우이다.

〈표 3-1-6〉 연령 구성

구 분	빈도(N=434)	비율(%)
16~20	8	1.8
21~25	63	14.5
26~30	73	16.8
31~35	62	14.3
36~40	40	9.2
41~45	31	7.1
46~50	30	6.9
51~55	51	11.8
56~60	38	8.8
61~65	19	4.4
66~70	12	2.8
71~75	3	0.7
76~80	2	0.5
81~85	--	--
86~90	--	--
90세 이상	2	0.5

응답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20세 미만이 1.8%, 21~25세 14.5%, 26세~30세 16.8%, 31세~35세 14.3%, 36세~40세 9.2%, 41세~45세 7.1%, 46세~50세 6.9%, 51세~55세 11.8%, 56세~60세 8.8%, 61세~65세 4.4%, 65세 이상이 4.5%로 분포되었다.

## 2) 면담자료<sup>22)</sup>

### (1) 조사 대상과 방법: 중국동포

#### ① 인터뷰 시기

2013년 7월~8월

#### ② 인터뷰 대상 선정 기준

중국동포 면담은 설문조사 대상의 분류에 근거하였다. 먼저 집거지역과 일반지역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한국국적과 중국국적자로 분류를 한 다음 각각의 직업군 별로 나누어 대상을 할당하였다.

22) 면담자 리스트는 부록 참조.

(2) 조사 대상과 방법: 한국인

① 인터뷰 시기

2013년 7월~8월

② 인터뷰 대상 선정 기준

본 연구팀이 인터뷰를 시도한 인터뷰 대상은 총 63명이다. 그 가운데 30분 이상의 인터뷰 시간을 할애해주었고, 의미 있는 인터뷰 내용을 언급한 45명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인터뷰 조사는 소규모로 실시되는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터뷰 대상 선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연구팀 연구자들의 지인 및 소개를 받는 방식을 활용하였고, “서울시 중국동포 밀집지역의 주민 및 중국동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조사책임자를 비롯한 연구자들의 인맥을 통해서 주로 실시하였다.

③ 인터뷰 대상 분류, 규모, 배경 및 주 인터뷰 내용

구체적으로 인터뷰 대상 분류와 규모 그리고 선정 배경 및 주 인터뷰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동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서울 주민”의 경우, 6명을 통해서 중국동포에 대한 서울 주민의 일반적인 이미지를 듣고자 하였다. 이들의 경우 중국 경험과 중국동포와 교류가 없는 사람들을 선정 배경으로 삼았다. “중국 경험이 있는 서울 주민”의 경우, 5명을 통해서 중국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중국동포의 이미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중국 경험이 없는 자들과 어떻게 중국동포에 대한 시선이 다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중국동포 친구가 있는 서울 주민”의 경우, 5명을 통해서 중국동포와의 교류 경험이 그들의 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중국동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서울 주민”의 경우, 9명을 통해서 경제활동 과정에서 중국동포와의 교류 경험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중국동포에 대한 선입견과 어떻게 다른 지점이 있는지를 알고자 하였다. “중국동포 밀집 지역의 서울 주민”의 경우, 13명을 통해서 중국동포와 삶의 터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을 듣고자 하였다. 특히 그들이 중국동포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대상의 소규모를 보완하기 위해서, “중국동포와 관련된 NGO

활동가” 7명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시도하였다. 그들을 통해서 추상적인 생각보다는 구체적인 정책수립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하였다.

#### ④ 인터뷰 방법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팀은 질문지 작성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터뷰 대상에게 질문을 하였고, 그 이외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질문 내용을 추가하였다.

## 2. 주거 및 주변 환경

### 주거 및 주변환경에 대한 요약

개인 단위의 주거에서 가족단위의 주거로 변화하기에 구 공단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지하나 반지하의 주거에서 지상 주거로 변화하고 있고, 집세 부담금은 역시 과거처럼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로 부담하고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단 여전히 개별 이주자나 고령자처럼 소득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쉼터, 고시원, ‘별집’과 같은 주거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주거에 대해서는 이런 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주거를 위한 은행대출은 한국국적을 취득했거나 전문직 종사자처럼 대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특정 직업군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만약 단순노무직에도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고용계약이 체결되고 신용조회가 가능하다면, 은행대출의 가능성을 열어둘 경우 은행대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거주지 불편 사항에 있어 주변 소음, 쓰레기 분리수거, 공중화장실 부족 등이 언급됨과 동시에 주차공간 부족도 높게 나왔다. 이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들도 자가용 이용자가 급증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거주지 주변 환경이나 본인의 주거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만족이 불만족보다 높다.

1) 주거 실태

(1) 현 거주지 거주 이유

문18) 현재 거주지에 거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표 3-2-1〉 현 거주지 거주 이유

(단위: %)

구 분	N=397
집 값이 싸서	20.9
중국동포 집거지라서	11.3
교통이 편리해서	23.4
직장과 가까워서	20.7
가족이 먼저 살고 있어서	27.2
친구가 먼저 살고 있어서	2.0
회사나 학교에서 제공한 기숙사여서	3.5
주거환경이 깨끗해서	8.8
안전해서	4.8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해서	7.1

주: 복수 응답이기에 비율 총합이 100% 가 아니다.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이 거주지를 선택함에 있어 먼저 온 가족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교통의 편의성과 직장과의 접근성이 중요하게 나왔다.

집값이 싸거나 중국동포 집거지라는 이유도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서울시내 지역별로 거주지 선정 이유가 거의 차이가 없다.

(2) 현재 주거 유형

문19-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어떤 유형의 주택입니까?

〈표 3-2-2〉 현재 주거 유형

(단위: %)

구 분	N=366
연립 및 다가구주택 반지하	15
연립 및 다가구주택 지상	56
아파트	9
본인 소유 가게	3
일하는 가게나 기숙사	4
쉼터	4
고시원	2
기타	7

응답자 절반 이상이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그 중 지상층이 지하층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 그 다음으로 아파트로 집계 되었다. 쉼터나 고시원은 상대적으로 적게 집계 되었다. 그 이유는 현재 중국동포 이주민들은 가족단위로 이주한 경우가 많기에, 독신으로 이주한 경우에만 쉼터나 고시원을 찾기 때문이다.

(3) 집세 부담금

문20) 현재 집세를 얼마나 부담하고 있습니까?

〈표 3-2-3〉 집세 부담금(전세)

(단위 : 만원)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일반지역	일반근로자(N=19)	5631.58	4251.94
	자영업 · 사업가(N=10)	8550.00	3411.17
	전문직(N=10)	19700.00	39002.28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밀집지역	기타(N=14)	5307.14	2806.17
	일반근로자(N=11)	4136.36	2846.85
	자영업·사업가(N=3)	7333.33	1154.70
	전문직(N=8)	5437.50	2227.07
	기타(N=5)	6260.00	3929.12
전 체	일반근로자(N=30)	5083.33	3814.86
	자영업·사업가(N=13)	8269.23	3038.75
	전문직(N=18)	13361.11	29335.19
	기타(N=19)	5557.89	3050.19

응답자들 중 집세를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하는 직업군은 전문직 종사자들로 집계 되었다.

〈표 3-2-4〉 집세 부담금(월세보증금)

(단위 : 만원)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일반지역	일반근로자(N=61)	727.87	813.87
	자영업·사업가(N=13)	1500.00	1118.03
	전문직(N=13)	2376.92	1967.72
	기타(N=29)	1113.79	1526.19
밀집지역	일반근로자(N=45)	608.89	727.57
	자영업·사업가(N=8)	1562.50	1083.56
	전문직(N=19)	1416.84	1811.58
	기타(N=26)	586.54	510.60
전 체	일반근로자(106)	677.36	777.06
	자영업·사업가(N=21)	1523.81	1077.92
	전문직(N=32)	1806.88	1906.28
	기타(N=55)	864.55	1182.81

월세로 거주하는 중국동포들 중 역시 상대적으로 많은 보증금을 지불한 직업군은 일반 지역에서나 밀집지역에서나 모두 전문직 종사자들인 것으로 집계 되었다.

〈표 3-2-5〉 집세 부담금(월세)

(단위 : 만원)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일반지역	일반근로자(N=60)	37.20	23.83
	자영업·사업가(N=13)	49.08	17.97
	전문직(N=13)	34.23	11.37
	기타(N=31)	32.19	11.16
밀집지역	일반근로자(N=49)	29.76	11.72
	자영업·사업가(N=8)	46.25	25.46
	전문직(N=19)	35.89	13.05
	기타(N=26)	31.19	11.16
전 체	일반근로자(109)	33.85	19.62
	자영업·사업가(N=21)	48.00	20.56
	전문직(N=32)	35.22	12.23
	기타(N=57)	31.74	11.07

전세금이 아닌 월세 지불에 있어 일반지역이든 밀집지역이든 자영업자 혹은 사업가가 상대적으로 많은 월세를 지불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3-2-6〉 집세 부담금(기숙사)

(단위 : 만원)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일반지역	일반근로자(N=22)	26.59	19.72
	자영업·사업가(N=0)	--	--
	전문직(N=0)	--	--
	기타(N=6)	19.33	7.58
밀집지역	일반근로자(N=6)	20.33	12.72
	자영업·사업가(N=0)	--	--
	전문직(N=1)	38.00	14.03
	기타(N=11)	27.55	13.59
전 체	일반근로자(N=28)	25.25	18.42
	자영업·사업가(N=0)	--	--
	전문직(N=1)	38.00	12.54
	기타(N=17)	25.30	16.23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유학생 위주)의 경우 월 평균 25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일반 근로자 중국동포의 경우에도 월 평균 25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

상기 집계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전문직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고 소득 직업군이기에 높은 보증금을 지불하고 낮은 월세로 거주하는 반면, 사업가나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체 혹은 가게가 거주공간인 경우도 있어 지불하는 월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주거를 위한 은행 대출 여부

문21) 귀하는 주거를 위해 은행대출을 받은 적 있습니까?

〈표 3-2-7〉 주거를 위한 은행 대출(지역구분)

(단위 : %)

구 분	예
일반지역(N=233)	13.7
밀집지역(N=168)	10.1
전체(N=401)	12.2

〈표 3-2-8〉 주거를 위한 은행 대출(직업구분)

(단위 : %)

구 분	예
일반근로자(N=185)	9.2
자영업 · 사업가(N=37)	24.3
전문직(N=64)	15.6
기타(N=115)	11.3
전체(N=401)	12.2

대부분 사람들이 은행대출을 받은 적 없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 제도적으로 은행대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함께 고려하기에 은행 대출을 받으면 서까지 주거환경을 개선할 의사는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5) 공공임대주택 신청 여부

문22) 귀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한 적 있습니까?

〈표 3-2-9〉 공공임대주택 신청

(단위 : %)

구 분	N=394
있다	5.3

대부분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한 적 없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

(6) 거주면적

문24)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곳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표 3-2-10〉 거주면적

(단위 : 평)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일반지역	일반근로자(N=85)	13.88	9.31
	자영업 · 사업가(N=27)	21.81	9.94
	전문직(N=28)	18.14	14.44
	기타(N=53)	13.90	10.43
밀집지역	일반근로자(N=60)	13.43	9.25
	자영업 · 사업가(N=10)	22.00	11.54
	전문직(N=28)	17.43	15.20
	기타(N=37)	15.86	9.37
전 체	일반근로자(N=145)	13.69	9.25
	자영업 · 사업가(N=37)	21.86	10.23
	전문직(N=56)	17.79	14.69
	기타(N=90)	14.71	10.00

응답자의 거주면적을 보면 일반지역의 경우 자영업자 혹은 사업가가 가장 높게 나오고 전문직 종사자와 일반근로자가 그 다음으로 집계 되었다. 이런 순위는 밀집지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기타에 포함된 응답자들에는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이나 일반근로자들도 포함되기에 거주 면적이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되었을 수도 있다.

(7) 동거 인원

문25) 귀하는 현재 본인을 포함해서 몇 명과 함께 거주하고 계십니까?

〈표 3-2-11〉 동거 인원

(단위 : %)

구 분	N=395
1명	20.3
2명	37.5
3명	22.8
4명	10.1
5명	5.6
6명 이상	3.8

80% 가까이 되는 중국동포가 본인을 포함해서 1명 이상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중국동포와 관련된 정책이 변화하면서, 중국동포는 개인 단위가 아닌 가족 단위로 거주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본다.

또한 개인단위로 이주하여도 지인들과 함께 동거하는 경우도 있어 대부분이 1명 이상과 동거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본다.

(8) 거주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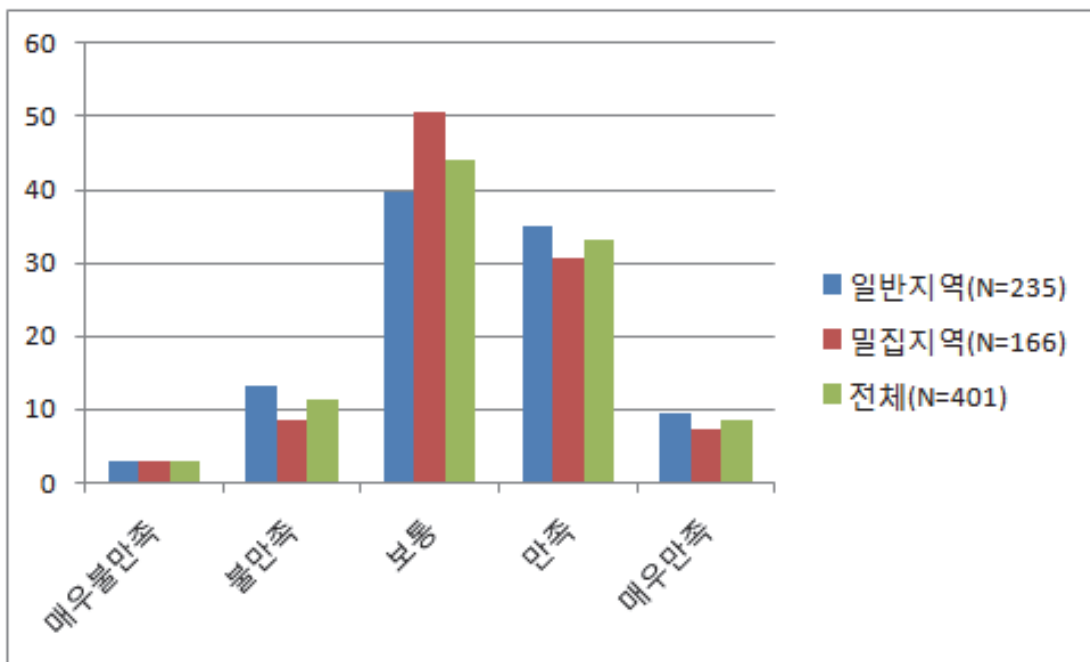
문29) 귀하는 현재의 주거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표 3-2-12〉 거주 만족도(지역구분)

(단위 : %)

구 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일반지역(N=235)	3.0	13.2	39.6	34.9	9.4
밀집지역(N=166)	3.0	8.4	50.6	30.7	7.2
전체(N=401)	3.0	11.2	44.1	33.2	8.5

〈그림 3-2-1〉 거주 만족도(지역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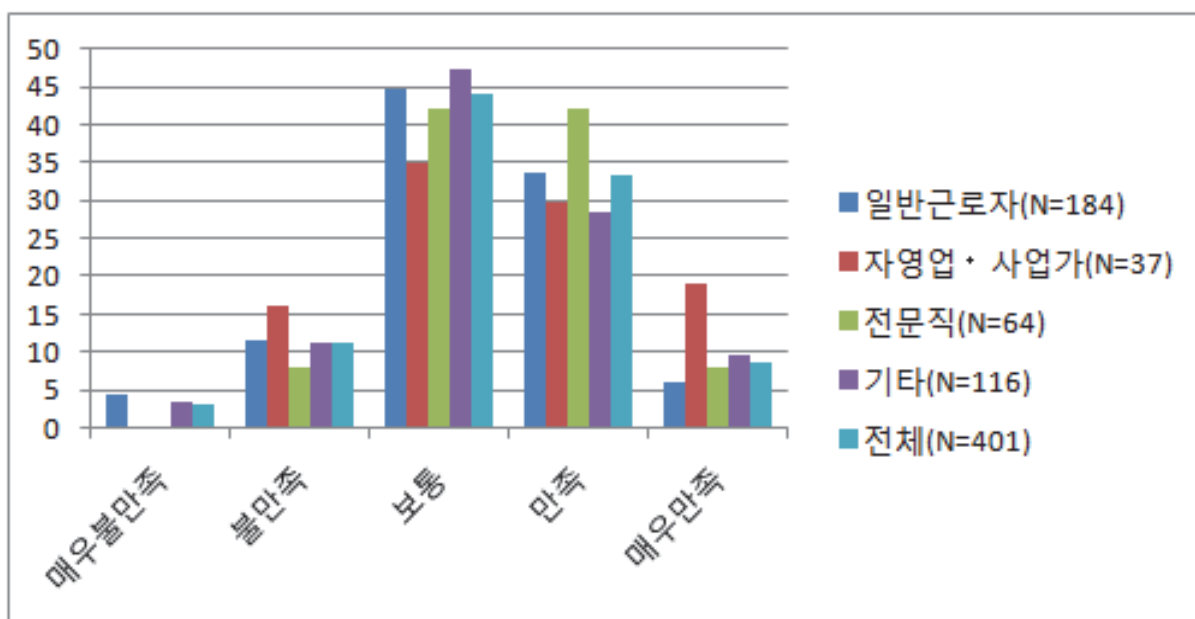
응답자들 중 현재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일반지역의 경우 만족과 매우 만족이 각각 34.9%와 9.4%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의 13.2%와 3.0%보다 높게 집계되었다.

〈표 3-2-13〉 거주 만족도(직업구분)

(단위 : %)

구 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일반근로자(N=184)	4.3	11.4	44.6	33.7	6.0
자영업·사업가(N=37)	--	16.2	35.1	29.7	18.9
전문직(N=64)	--	7.8	42.2	42.2	7.8
기타(N=116)	3.4	11.2	47.4	28.4	9.5
전체(N=401)	3.0	11.2	44.1	33.2	8.5

〈그림 3-2-2〉 거주 만족도(직업구분)



중국동포 직업별 거주지 만족도를 보면 자영업자나 사업가의 만족도와 전문직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도 만족이 33.7%, 매우 만족이 6.0%로 불만족 11.4%와 매우불만족 4.5%보다 높게 집계 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만족이 불만족보다 높게 집계되었다.

(9) 거주지 불편사항

문30) 귀하가 거주하는 곳에서 불편한 점은 어떤 것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표 3-2-14〉 거주 불편사항

(단위 : %)

구 분	일반지역 N=214	밀집지역 N=154	전체 N=368
사람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지 않는다	29.0	24.0	26.9
주변 소음이 심하다	35.5	38.3	36.7
치안이 불안하다	15.9	10.4	13.6
하수도가 막힌다	7.9	5.2	6.8
주차공간이 없다	24.8	22.7	23.9
공중화장실이 부족하다	14.5	18.2	16.0

전체적으로 볼 때 단일 불편사항으로 주변 소음 심각, 쓰레기 분리수거, 주차공간, 공중화장실, 치안불안 등 순으로 집계되었다.

(10) 거주지 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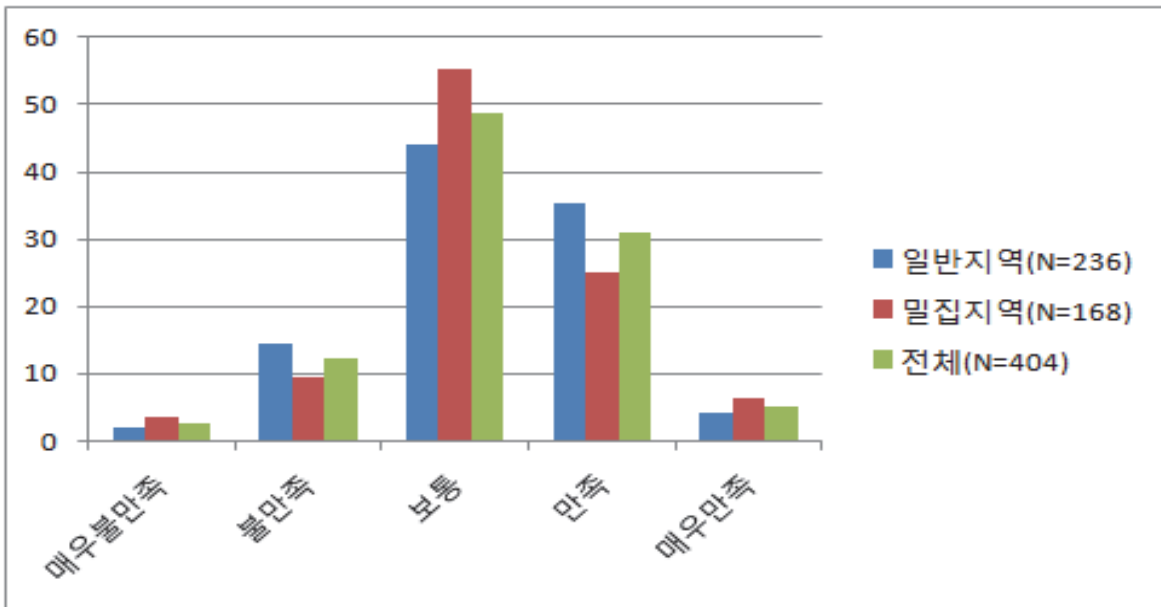
문31) 귀하는 현재 거주하는 곳의 주변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표 3-2-15〉 거주지 환경 만족도(지역구분)

(단위 : %)

구 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일반지역(N=236)	2.1	14.4	44.1	35.2	4.2
밀집지역(N=168)	3.6	9.5	55.4	25.0	6.5
전체(N=404)	2.7	12.4	48.8	30.9	5.2

〈그림 3-2-3〉 거주지 환경 만족도(지역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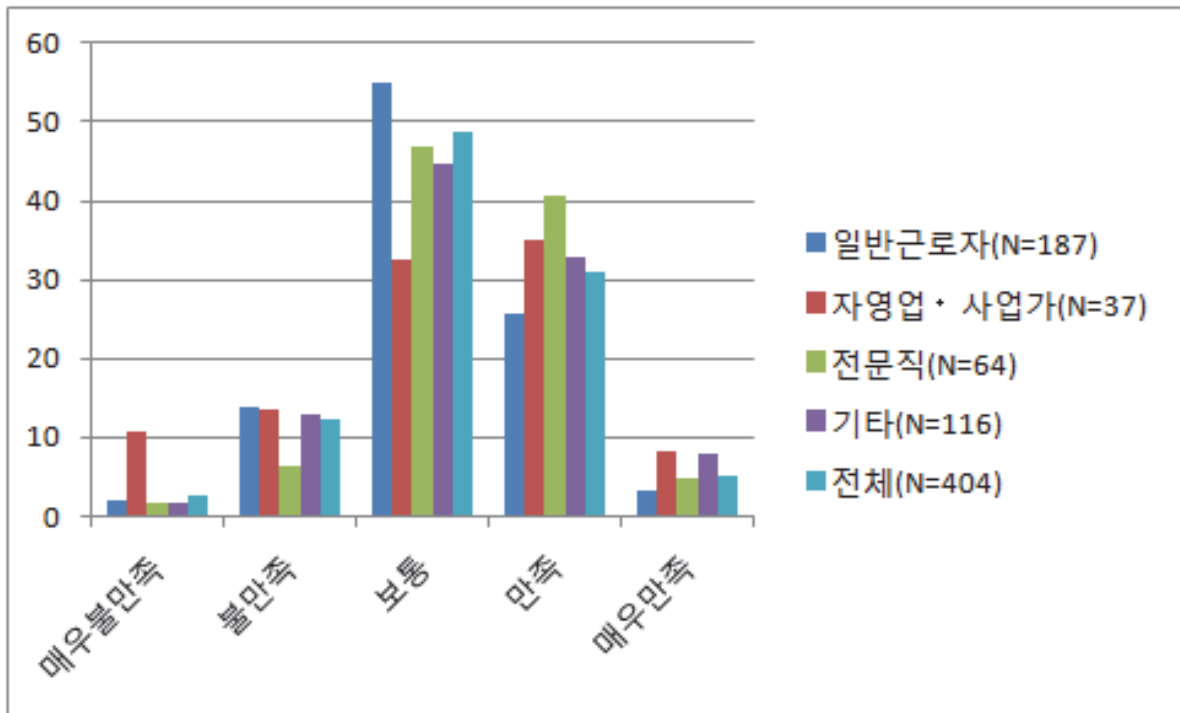
거주지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일반지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들이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만족이 불만족보다 높게 집계 되었다.

〈표 3-2-16〉 거주지 환경 만족도(직업구분)

(단위 : %)

구 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일반근로자(N=187)	2.1	13.9	55.1	25.7	3.2
자영업·사업가(N=37)	10.8	13.5	32.4	35.1	8.1
전문직(N=64)	1.6	6.3	46.9	40.6	4.7
기타(N=116)	1.7	12.9	44.8	32.8	7.8
전체(N=404)	2.7	12.4	48.8	30.9	5.2

〈그림 3-2-4〉 거주지 환경 만족도(직업구분)



직업별 거주지 환경 만족도를 보면 일반근로자의 경우 보통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자영업 및 사업가는 만족이, 전문직은 보통이, 기타 역시 보통이 높게 나왔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만족이 불만족에 비해 높게 집계 되었다.

〈표 3-2-17〉 거주지 환경 만족도

구 분		만족도
일반지역	일반근로자(N=114)	3.18
	자영업·사업가(N=27)	3.26
	전문직(N=30)	3.37
	기타(N=65)	3.31
밀집지역	일반근로자(N=73)	3.07
	자영업·사업가(N=10)	2.90
	전문직(N=34)	3.44
	기타(N=51)	3.33
전체	일반근로자(N=187)	3.14
	자영업·사업가(N=37)	3.16
	전문직(N=64)	3.41
	기타(N=116)	3.32



거주지 환경 만족도를 점수로 환산(5점 만점)하여 보면 일반지역에 거주하는 일반근로자는 3.18, 자영업 및 사업가는 3.26, 전문직 종사자는 3.37, 기타는 3.31로 집계되었다.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일반근로자는 3.07, 자영업 및 사업가는 2.90, 전문직 종사자는 3.44, 기타는 3.33으로 집계 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근로자와 자영업 및 사업가는 일반지역 거주 환경이 밀집지역 거주환경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왔고, 전문직과 기타 직업군은 반대로 집계 되었다.

## 2) 지역 주민과의 관계

### 지역 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요약

중국동포 지역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접촉이 있는 경우(70% 전후) 관계가 좋다는 응답이 나쁘다는 응답보다 높게 집계되었다.

한족 지역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접촉이 있는 경우(50% 전후) 관계가 좋다는 응답이 나쁘다는 응답보다 높게 집계되었다.

한국인 지역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접촉이 있는 경우(95% 전후) 관계가 좋다는 응답이 나쁘다는 응답보다 높게 집계되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의 관계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집계되었다.

(1) 지역 주민과의 관계

문34) 귀하는 귀하가 거주하는 곳에 사는 중국동포, 한족, 한국인과 사이가 어떻습니까?

〈표 3-2-18〉 중국동포 지역 주민과의 관계(지역구분)

(단위:%)

구 분	매우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좋음	접촉없음
일반지역(N=235)	.4	--	30.2	25.5	10.6	33.2
밀집지역(168)	--	--	35.1	25.6	7.7	31.5
전체(N=403)	.2	--	32.3	25.6	9.4	32.5

〈표 3-2-19〉 중국동포 지역 주민과의 관계(직업구분)

(단위:%)

구 분	매우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좋음	접촉없음
일반근로자(N=186)	.5	--	36.0	28.5	8.6	26.3
자영업·사업가(N=37)	--	--	43.2	32.4	5.4	18.9
전문직(N=64)	--	--	28.1	15.6	6.3	50.0
기타(N=116)	--	--	25.0	24.1	13.8	37.1
전체(N=403)	.2	--	32.3	25.6	9.4	32.5

〈표 3-2-20〉 한족 지역 주민과의 관계(지역구분)

(단위:%)

구 분	매우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좋음	접촉없음
일반지역(N=233)	--	.4	25.8	13.3	3.0	57.5
밀집지역(160)	--	--	20.6	16.3	1.9	61.3
전체(N=393)	--	.3	23.7	14.5	2.5	59.0

〈표 3-2-21〉 한족 지역 주민과의 관계(직업구분)

(단위:%)

구 분	매우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좋음	접촉없음
일반근로자(N=180)	--	--	26.7	12.8	1.1	59.4
자영업·사업가(N=37)	--	--	27.0	29.7	--	43.2
전문직(N=63)	--	1.6	20.6	11.1	3.2	63.5
기타(N=113)	--	--	19.5	14.2	5.3	61.1
전체(N=393)	--	.3	23.7	14.5	2.5	59.0

〈표 3-2-22〉 한국인 지역 주민과의 관계(지역구분)

(단위:%)

구 분	매우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좋음	접촉없음
일반지역(N=235)	.4	1.3	41.3	18.3	6.8	31.9
밀집지역(162)	--	1.2	38.9	21.0	2.5	36.4
전체(N=397)	.3	1.3	40.3	19.4	5.0	33.8

〈표 3-2-23〉 한국인 지역 주민과의 관계(직업구분)

(단위:%)

구 분	매우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좋음	접촉없음
일반근로자(N=182)	.5	.5	41.2	16.5	2.7	38.5
자영업·사업가(N=37)	--	2.7	48.6	32.4	5.4	10.8
전문직(N=63)	--	3.2	42.9	12.7	6.3	34.9
기타(N=115)	--	.9	34.8	23.5	7.8	33.0
전체(N=397)	.3	1.3	40.3	19.4	5.0	33.8

전체적으로 볼 때(접촉이 있는 사람에 한함) 주관적으로 중국동포, 한국인, 한족의 순으로 좋게 집계 되었다.

(2) 지역 주민과의 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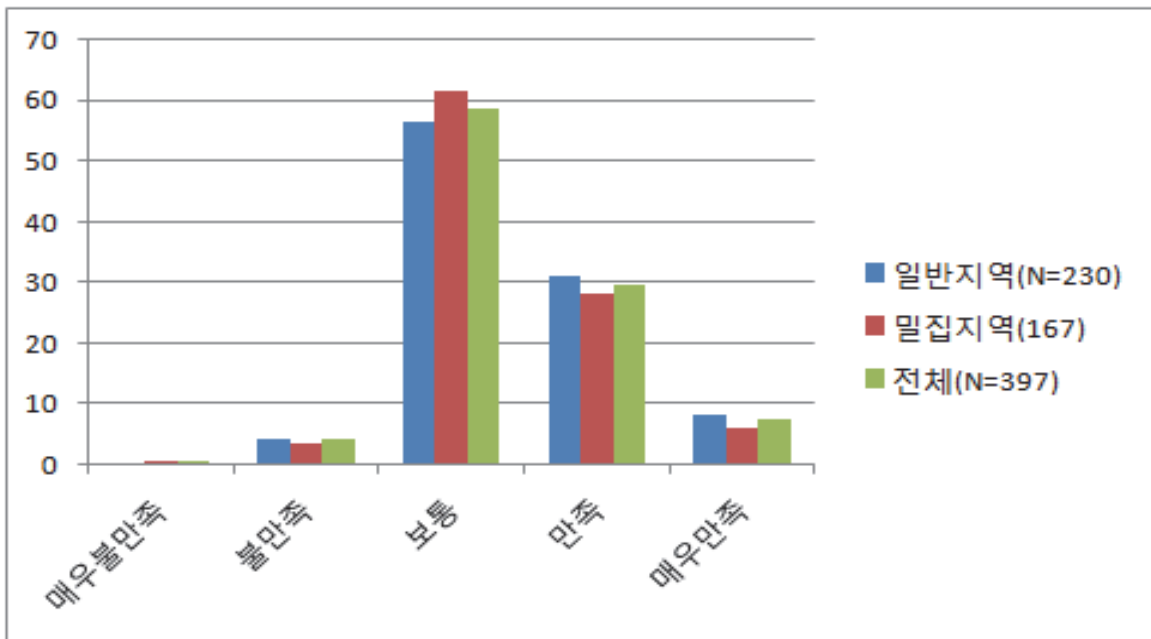
문35) 귀하는 대체로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표 3-2-24〉 지역 주민과의 관계 만족도(지역구분)

(단위: %)

구 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일반지역(N=230)	--	4.3	56.5	30.9	8.3
밀집지역(N=167)	.6	3.6	61.7	28.1	6.0
전체(N=397)	.3	4.0	58.7	29.7	7.3

〈그림 3-2-5〉 지역 주민과의 관계 만족도(지역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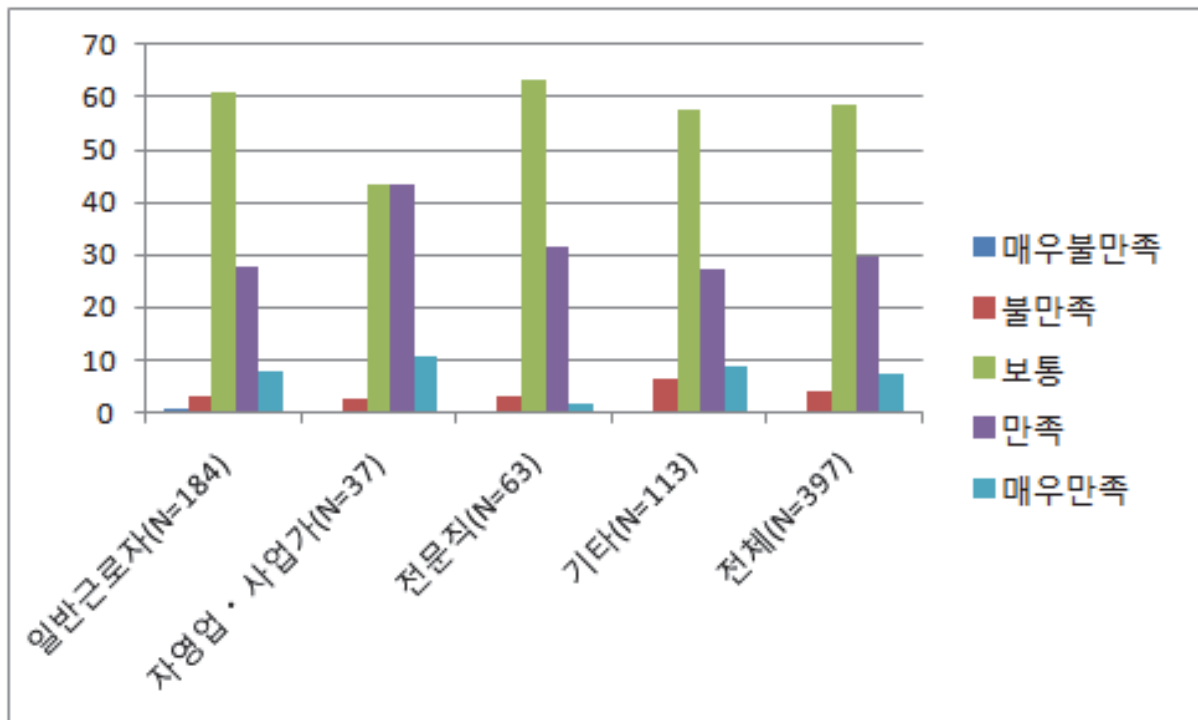
지역 주민과의 관계 만족도를 보면, 일반지역의 경우 불만족이 4.3%, 보통이 56.5%, 만족이 30.9%, 매우 만족이 8.5%로 집계 되었다. 밀집지역의 경우에 매우 불만족이 0.6%, 불만족이 3.6%, 보통이 61.7%, 만족이 28.1%, 매우만족이 6.0%로 집계 되었다.

〈표 3-2-25〉 지역 주민과의 관계 만족도(직업구분)

(단위: %)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일반근로자(N=184)	.5	3.3	60.9	27.7	7.6
자영업·사업가(N=37)	---	2.7	43.2	43.2	10.8
전문직(N=63)	---	3.2	63.5	31.7	1.6
기타(N=113)	---	6.2	57.5	27.4	8.8
전체(N=397)	.3	4.0	58.7	29.7	7.3

〈그림 3-2-6〉 지역 주민과의 관계 만족도(직업구분)



응답자의 직업별 지역 주민과의 관계 만족도를 보면 모든 직업군에서 보통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그리고 만족과 매우 만족이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보다 높게 집계 되었다.

### 3. 경제수준

#### 경제수준에 대한 요약

중국동포 집거지는 주로 요식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이 발달하였다. 따라서 고향지인을 비롯해서 집거지 식당을 찾는 중국동포들이 많다. 이들이 유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동포의 소비와 저축은 예전에 비해 늘어나고, 송금은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이는 연령대별로 이미 출산이나 자녀 교육이 완료된 사람들이 이주자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가족 단위로 이주했기에 한국에서의 소비와 예금은 늘어나지만 중국으로의 송금은 줄어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절반 정도가 송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직업별 차이가 뚜렷하다. 비정규직 및 저소득 직업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되었다.

#### 1) 외식

##### (1) 동향 지인과의 외식

문37) 귀하는 오랜만에 만난 고향 및 중국 친구들과 외식을 할 경우 주로 어떤 곳을 이용하십니까?

〈표 3-3-1〉 동향 지인과의 외식

(단위: %)

구 분	N=383
중국동포 집거지의 고향음식을 파는 식당	58.2
일반 지역의 고향음식을 파는 식당	11.7
중국동포 집거지의 한국음식을 파는 식당	3.7
일반 지역의 한국음식을 파는 식당	18.0
고향 친구들과 만나지 않는다	2.9
기타	5.5

응답자의 과반수가 중국동포 집거지의 고향음식을 파는 식당을 찾는 것으로 집계 되었고, 일반 지역의 고향음식을 파는 식당에 다니는 사례도 11.7% 로 집계 되었다.

(2) 한국 지인과의 외식

문38) 귀하는 한국인 친구들과 외식을 할 경우 주로 어떤 곳을 이용하십니까?

〈표 3-3-2〉 한국 지인과의 외식

(단위: %)

구 분	N=389
중국동포 집거지의 고향음식을 파는 식당	16.5
일반 지역의 고향음식을 파는 식당	6.2
중국동포 집거지의 한국음식을 파는 식당	4.6
일반 지역의 한국음식을 파는 식당	49.1
고향 친구들과 만나지 않는다	3.1
기타	20.6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일반 지역의 한국음식을 파는 곳을 찾는다고 응답하였다.

2) 저축과 송금

(1) 소비, 저축, 송금 평균

문40) 귀하는 한 달 평균 다음과 같은 부분에 얼마씩 사용하십니까?

〈표 3-3-3〉 소비평균

(단위 : 만원)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일반지역	일반근로자(N=91)	77.80	50.02
	자영업 · 사업가(N=22)	129.36	110.15
	전문직(N=28)	118.04	72.84
	기타(N=51)	76.08	58.30

구 분		평균	표준편차
밀집지역	일반근로자(N=64)	87.53	107.61
	자영업·사업가(N=9)	109.44	110.69
	전문직(N=28)	105.00	65.41
	기타(N=39)	76.21	46.62
전체	일반근로자(N=155)	81.82	78.88
	자영업·사업가(N=31)	123.58	108.83
	전문직(N=56)	111.52	68.91
	기타(N=90)	76.13	53.27

응답자의 월 평균 소비금액을 보면, 일반근로자는 82만 원, 자영업과 사업가는 124만 원, 전문직은 112만 원, 기타 직업군은 76만 원 정도 소비하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 일반지역과 밀집지역별로 보면 직업군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표 3-3-4〉 저축평균

(단위 : 만원)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일반지역	일반근로자(N=70)	78.64	61.34
	자영업·사업가(N=20)	107.00	75.61
	전문직(N=20)	92.00	59.17
	기타(N=38)	37.37	40.67
밀집지역	일반근로자(N=50)	81.20	50.86
	자영업·사업가(N=7)	88.57	53.98
	전문직(N=24)	85.00	70.11
	기타(N=26)	36.73	49.13
전체	일반근로자(N=120)	79.71	56.99
	자영업·사업가(N=27)	102.22	70.13
	전문직(N=44)	88.18	64.72
	기타(N=64)	37.11	43.92

직업별 월 평균 저축 금액을 보면 일반근로자는 80만 원, 자영업과 사업가는 102만 원, 전문직은 88만 원, 기타는 37만 원 정도로 집계 되었다.

일반지역과 밀집지역에서의 직업별 저축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난다



〈표 3-3-5〉 송금평균

(단위 : 만원)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일반지역	일반근로자(N=61)	28.15	43.13
	자영업·사업가(N=15)	15.33	21.00
	전문직(N=13)	33.85	82.11
	기타(N=29)	6.90	21.56
		21.92	43.67
밀집지역	일반근로자(N=37)	21.54	30.58
	자영업·사업가(N=4)	45.00	42.03
	전문직(N=20)	3.00	11.29
	기타(N=25)	8.80	18.78
		14.62	26.31
전체	일반근로자(N=98)	25.65	38.83
	자영업·사업가(N=19)	21.58	28.14
	전문직(N=33)	15.15	53.28
	기타(N=54)	7.78	20.16

응답자 직업별 월 평균 송금 금액을 보면, 일반근로자는 26만 원, 자영업과 사업가는 22만 원, 전문직은 15만 원, 기타는 8만 원 정도 송금하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

이 송금 금액은 송금을 하는 응답자를 기준으로 집계 된 것이기에 아래의 소비, 저축, 송금 변화 부분을 함께 참조해 보길 바란다.

(2) 소비의 변화

문41)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전반적으로 볼 때 예전에 비해 소비의 변화가 어떠하십니까?

〈표 3-3-6〉 소비변화(지역구분)

(단위 : %)

구 분	매우 많아짐	좀 많아짐	똑같음	좀 적어짐	매우 적어짐
일반지역(N=240)	22.3	46.3	16.2	7.9	7.4
밀집지역(169)	28.8	53.1	7.5	8.1	2.5
전체(N=409)	24.9	49.1	12.6	8.0	5.4

〈표 3-3-7〉 소비변화(직업구분)

(단위 : %)

구 분	매우 많아짐	좀 많아짐	똑같음	좀 적어짐	매우 적어짐
일반근로자(N=188)	25.0	46.1	14.4	6.7	7.8
자영업·사업가(N=37)	18.9	54.1	16.2	8.1	2.7
전문직(N=64)	25.8	48.4	14.5	11.3	.0
기타(N=120)	26.4	52.7	7.3	8.2	5.5
전체(N=409)	24.9	49.1	12.6	8.0	5.4

전체적으로 볼 때 70% 가까이 되는 응답자가 한국에서의 소비가 늘어났다고 응답하였다.

(3) 저축과 송금의 변화

문41-1) 예전과 비교할 때 귀하가 저축하는 액수와 송금하는 액수의 변화는 어떠하십니까?

〈표 3-3-8〉 저축 변화(지역구분)

(단위 : %)

구 분	매우 적어짐	좀 적어짐	똑같음	좀 많아짐	매우 많아짐	해당 없음
일반지역(N=228)	9.2	13.6	24.1	22.8	4.4	25.9
밀집지역(162)	7.4	16.0	24.1	22.8	5.6	24.1
전체(N=390)	8.5	14.6	24.1	22.8	4.9	25.1

〈표 3-3-9〉 저축 변화(직업구분)

(단위 : %)

구 분	매우 적어짐	좀 적어짐	똑같음	좀 많아짐	매우 많아짐	해당 없음
일반근로자(N=181)	6.1	22.7	25.4	22.7	5.0	18.2
자영업·사업가(N=36)	13.9	13.9	13.9	44.4	5.6	8.3
전문직(N=64)	3.1	9.4	20.3	31.3	7.8	28.1
기타(N=109)	13.8	4.6	27.5	11.0	2.8	40.4
전체(N=390)	8.5	14.6	24.1	22.8	4.9	25.1

전체적으로 볼 때 저축을 하는 응답자를 기준으로 많아졌다는 응답(좀 많아짐과 매우 많아짐)이 27.7%, 적어졌다는 응답(매우 적어짐, 좀 적어짐)이 23.1%로 집계 되었다.

〈표 3-3-10〉 송금 변화(지역구분)

(단위 :%)

구 분	매우 적어짐	좀 적어짐	똑같음	좀 많아짐	매우 많아짐	해당 없음
일반지역(N=219)	7.3	5.5	19.2	7.3	.5	60.3
밀집지역(155)	6.5	2.6	12.9	12.3	.6	65.2
전체(N=374)	7.0	4.3	16.6	9.4	.5	62.3

〈표 3-3-11〉 송금 변화(직업구분)

(단위 : %)

구 분	매우 적어짐	좀 적어짐	똑같음	좀 많아짐	매우 많아짐	해당 없음
일반근로자(N=170)	9.4	4.7	20.6	10.6	.6	54.1
자영업·사업가(N=35)	11.4	8.6	14.3	14.3	--	51.4
전문직(N=63)	4.8	6.3	9.5	11.1	--	68.3
기타(N=106)	2.8	.9	15.1	4.7	.9	75.5
전체(N=374)	7.0	4.3	16.6	9.4	.5	62.3

응답자들 중 62.3%가 송금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

송금을 하는 응답자를 기준으로 송금 액수가 적어졌다는 응답이 11.3%, 많아졌다는 응답이 9.9%로 집계 되었다.

(4) 경제수준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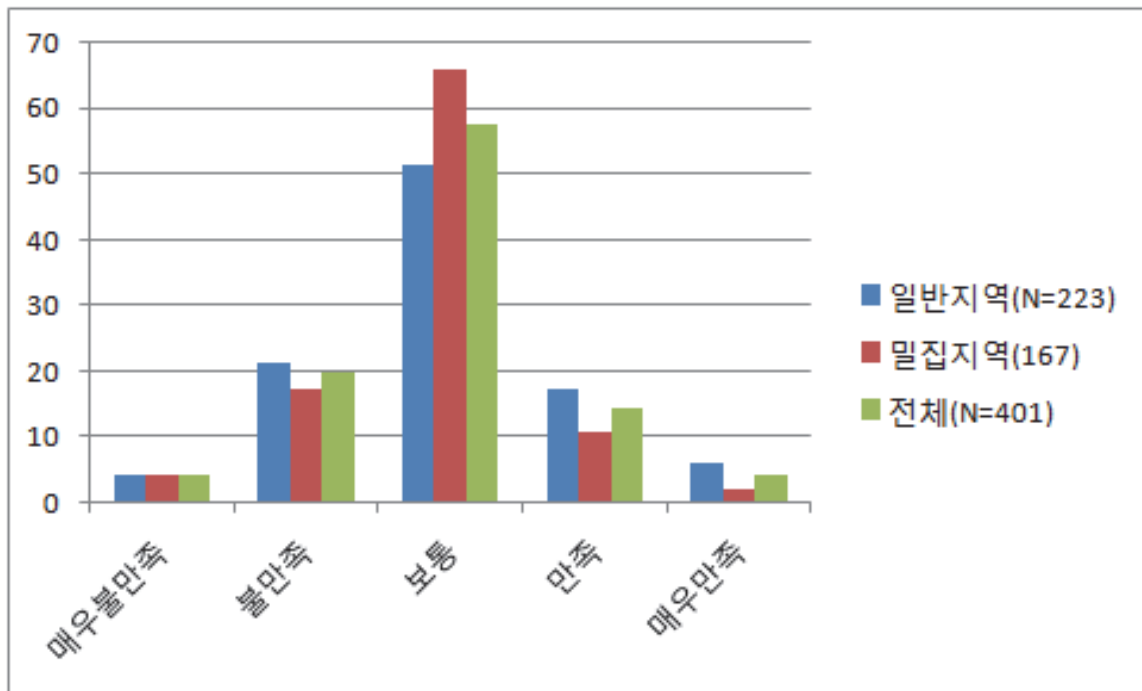
문41-2) 귀하는 현재 자신의 경제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표 3-3-12〉 경제수준 만족도(지역구분)

(단위 : %)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일반지역(N=223)	4.2	21.4	51.3	17.1	6.0
밀집지역(167)	4.2	17.4	65.9	10.8	1.8
전체(N=401)	4.2	19.7	57.4	14.5	4.2

〈그림 3-3-1〉 경제수준 만족도(지역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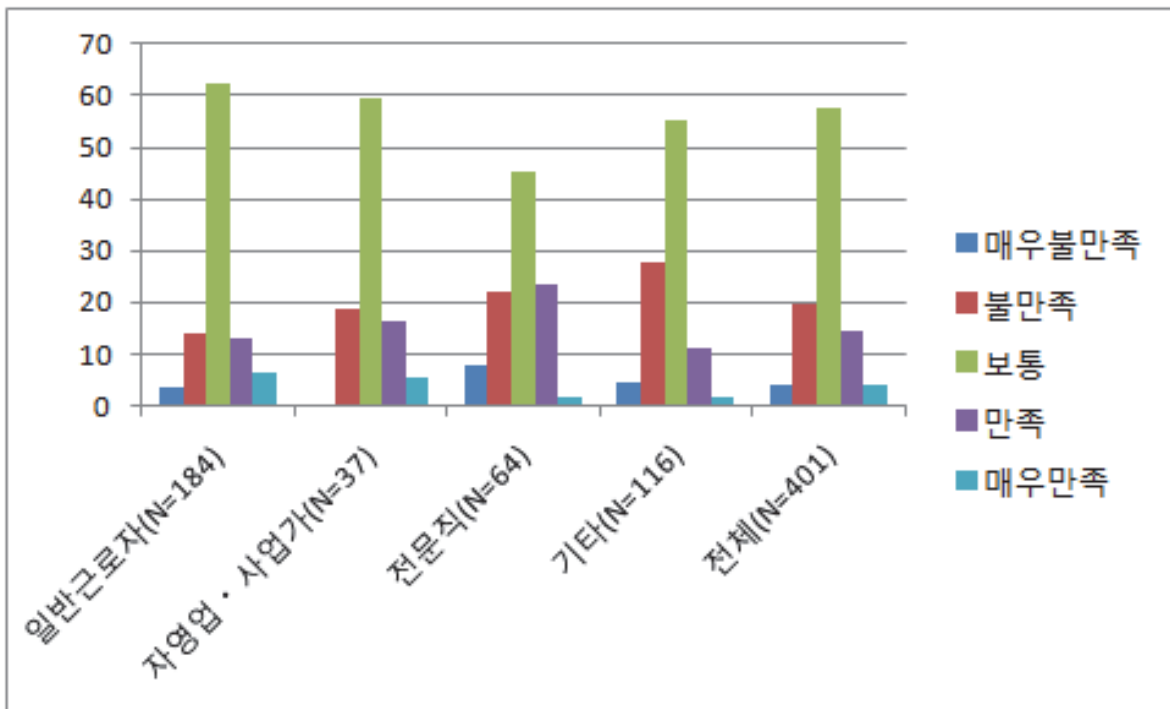
응답자의 경제수준 만족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불만족이 만족에 비해 높게 집계 되었다.

〈표 3-3-13〉 경제수준 만족도(직업구분)

(단위 : %)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일반근로자(N=184)	3.8	14.1	62.5	13.0	6.5
자영업·사업가(N=37)	—	18.9	59.5	16.2	5.4
전문직(N=64)	7.8	21.9	45.3	23.4	1.6
기타(N=116)	4.3	27.6	55.2	11.2	1.7
전체(N=401)	4.2	19.7	57.4	14.5	4.2

〈그림 3-3-2〉 경제수준 만족도(직업구분)



응답자의 직업별 경제수준 만족도를 보면, 일반근로자와 자영업 및 사업가의 불만족과 만족의 비율이 비슷하고, 전문직과 기타 직업에서 모두 불만족이 만족에 비해 높게 집계 되었다.

〈표 3-3-14〉 경제수준 만족도

지역구분	직업구분	만족도
일반지역	일반근로자(N=112)	3.11
	자영업 · 사업가(N=27)	3.04
	전문직(N=30)	2.90
	기타(N=65)	2.82
밀집지역	일반근로자(N=72)	2.94
	자영업 · 사업가(N=10)	3.20
	전문직(N=34)	2.88
	기타(N=51)	2.75
전체	일반근로자(N=184)	3.05
	자영업 · 사업가(N=37)	3.08
	전문직(N=64)	2.89
	기타(N=116)	2.78

직업별 경제수준 만족도(5점 만점)를 보면 일반지역의 경우 만족도는 일반근로자 3.11, 자영업 및 사업가 3.04, 전문직 2.90, 기타 2.82의 순으로 나왔고, 밀집지역의 경우에 자영업 및 사업가 3.20, 일반근로자 2.94, 전문직 2.88, 기타가 2.75의 순으로 집계 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영업 및 사업가가 3.08, 일반근로자가 3.05, 전문직이 2.89, 기타가 2.78로 집계 되었는데 모두 보통 이하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 의료와 교육

##### 의료와 교육에 대한 요약

가족 단위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돌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많다.

건강검진이나 병원 방문시 어려운 점들은 상대적인 취약계층(일반근로자)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일반근로자의 보험 미가입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럼에도 개인적 차원에서 주관적 건강의식은 대부분 보통 이상으로 높고, 의료복지 만족도 역시 전체적으로 보통 이상이 80% 전후에 달한다.(일반근로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교육에 있어서 특히 자녀교육이 중요한데, 현재 정책적으로 외국인 청소년, 혹은 중도입국자녀가 입학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절차를 비롯한 정책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 기존의 정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 의료

(1) 처치 방법

문42) 귀하가 아플 때 가장 먼저 처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표 3-4-1〉 처치 방법

(단위 : %)

구 분	N=399
중국에서 가져온 약을 먹는다	28.1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는다	40.6
구청 보건소를 찾는다	1.3
동네 의원을 찾는다	22.1
큰 병원을 찾는다	5.0
기타	3.0

아플 때 가장 먼저 처치하는 방법에 있어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는다” 40.6%, “중국에서 가져온 약을 먹는다” 28.1%, “동네 의원을 찾는다” 22.1%, “큰 병원을 찾는다” 5.0%, “구청 보건소를 찾는다” 1.3%, 기타 3.0%로 집계 되었다. .

(2) 가족 질병

문43-1) 한국에 가족이 있다면 귀하의 가족은 현재 최소 한 가지 질병이라도 앓고 계십니까?(복수응답)

〈표 3-4-2〉 가족 질병

(단위 : %)

구 분	N	응답 비율
부	231	29.4
모	244	36.5
배우자	201	20.4
자녀1	161	11.8
자녀2	113	12.4
자녀3	84	7.1



한국에 있는 가족을 기준으로 한 가지 이상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 구성원 중 부는 29.45, 모는 36.5%, 배우자는 20.4%, 첫째 자녀는 11.8%, 둘째 자녀는 12.4%, 셋째 자녀는 7.1%로 집계 되었다.

(3) 병원 방문 횟수

문44) 귀하는 1년에 평균 병원에 병 보러 얼마나 자주 다니십니까?

〈표 3-4-3〉 병원 방문 횟수

(단위: %)

구 분	N=398
5회 미만	56.5
5회 ~ 10회	15.8
10회 이상	6.0
다니지 않음	21.6

응답자 중 병원에 다니지 않는다는 사례가 21.6%로 집계 되었고, 병원에 다니는 응답자 중 5회 미만은 56.5%, 5회~10회는 15.8%, 10회 이상은 6.0%로 집계 되었다.

(4) 병원 방문 어려운 이유

문44-1) 아프지만 병원에 가서 병 보기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표 3-4-4〉 병원 방문 어려운 이유

(단위: %)

구 분	N=373
돈이 너무 많이 든다	48.0
병원이 가까이에 없다	5.4
휴일과 병원 진료일이 맞지 않다	26.5
약국에서 약을 사먹는다	24.1
중국에 가서 병 보려고 한다	5.6
중국에서 가지고 온 약을 먹는다	13.4

병원 방문이 어려운 이유를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48.0%, “휴일과 병원 진료 일이 맞지 않다” 26.5%, “약국에서 약을 사먹는다” 24.1%, “중국에서 가지고 온 약을 먹는다” 13.4%, “중국에 가서 병 보려고 한다” 5.6%, “병원이 가까이에 없다” 5.4%의 순으로 집계 되었다. 병원 방문이 어려운 이유가 경제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건강검진

문45) 귀하는 최소 2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으십니까?

〈표 3-4-5〉 건강검진(직업구분)

(단위: %)

구 분	예
일반근로자(N=184)	39.7
자영업 · 사업가(N=37)	45.9
전문직(N=64)	64.1
기타(N=114)	44.7
전체(N=399)	45.6

최소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여부를 보면, 일반근로자는 39.75, 자영업 및 사업가는 45.9%, 전문직은 64.1%, 기타는 44.7%로 집계 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45.6%가 2년에 한번은 건강검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돌봄자 유무

문46) 귀하가 아프게 되면 주변에 귀하를 돌봐 줄 사람이 있습니까?

〈표 3-4-6〉 돌봄자 유무(직업구분)

(단위: %)

구 분	예
일반근로자(N=185)	68.1
자영업·사업가(37)	83.8
전문직(64)	85.9
기타(116)	79.3
전체(402)	75.6

직업별 돌봄자 유무 상황을 보면, 일반근로자는 68.1%, 자영업 및 사업가는 83.8%, 전문직은 85.9%, 기타는 79.3%로 집계 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70% 정도 되는 응답자들이 주변에 돌봐 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중국동포가 이미 가족단위로 이주하여 정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7) 보험

문47-2) 귀하는 현재 어떤 보험에 가입하십니까?

〈표 3-4-7〉 보험(직업구분)

(단위: %)

구 분	4대보험	기타보험	가입하지 않음
일반근로자(N=173)	33.5	23.1	48.3
자영업·사업가(N=35)	57.1	42.9	11.4
전문직(N=5)	67.3	27.3	20.0
기타(N=103)	26.2	26.2	52.4
전체(N=366)	38.8	26.5	41.0

직업별 보험 가입 상황을 보면, 일반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은 33.5%, 기타보험 가입은 23.1%, 미가입은 48.3%로 집계 되었다.

자영업 및 사업가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은 57.1%, 기타보험 가입은 42.9%, 미가입은 11.4%로 집계 되었다.

전문직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은 67.3%, 기타보험 가입은 27.3%, 미가입은 20.0%로 집계 되었고 기타 직업에서 4대보험 가입은 26.2%, 기타보험 가입은 26.2%, 미가입은 52.4%로 집계 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4대보험 가입은 38.8%, 기타보험 가입은 26.5%, 미가입은 41.0%로 집계 되었다.

### (8) 주관적 건강

문48) 전반적으로 볼 때 귀하는 자신이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3-4-8〉 주관적 건강(직업구분)

(단위: %)

구 분	매우건강 하지않음	건강하지 않음	보통	건강	매우건강
일반근로자(N=186)	4.8	6.5	60.2	22.6	5.9
자영업 · 사업가(N=37)	—	13.5	59.5	18.9	8.1
전문직(N=64)	—	10.9	53.1	32.8	3.1
기타(N=114)	1.8	8.8	36.8	37.7	14.9
전체(N=401)	2.7	8.5	52.4	28.2	8.2

응답자의 직업별 주관적 건강상태를 보면 일반근로자의 경우 보통이 60.2%, 건강이 22.65, 매우 건강이 5.9%, 건강하지 않음이 6.5%, 매우 건강하지 않음이 4.8%로 대체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집계 되었다.

이런 패턴은 자영업 및 사업가와 전문직, 기타 직업들에서도 발견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관적으로 건강하다는 응답이 36.4%, 건강하지 않다는 응답이 11.2%, 보통이 52.4%로 집계 되었다.

(9) 의료 복지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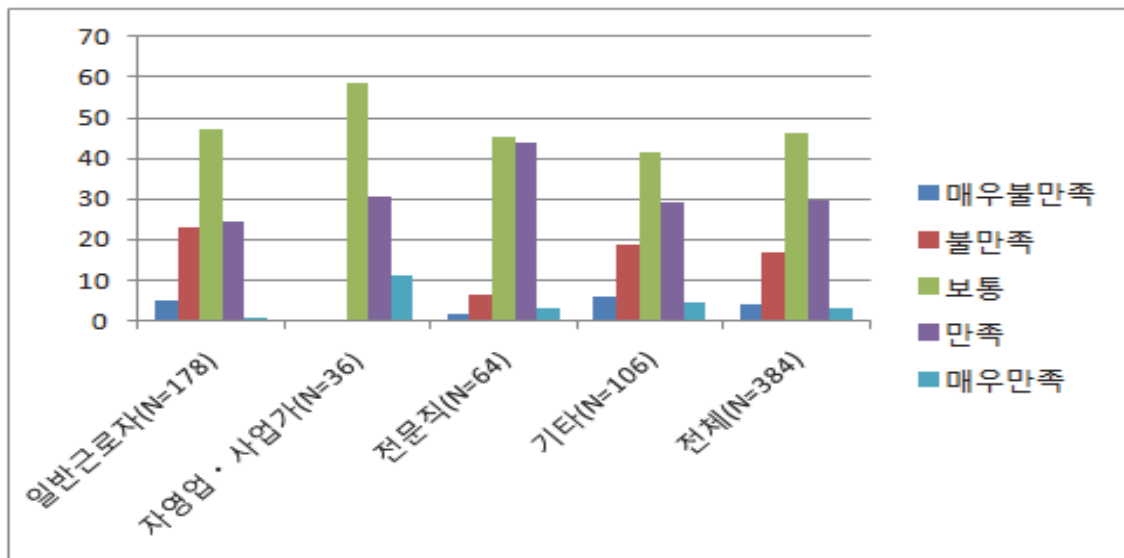
문49) 귀하는 현재 자신의 의료복지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표 3-4-9〉 의료 복지 만족도(직업구분)

(단위: %)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일반근로자(N=178)	5.1	23.0	47.2	24.2	.6
자영업·사업가(N=36)	—	—	58.3	30.6	11.1
전문직(N=64)	1.6	6.3	45.3	43.8	3.1
기타(N=106)	5.7	18.9	41.5	29.2	4.7
전체(N=384)	4.2	16.9	46.4	29.4	3.1

〈그림 3-4-1〉 의료 복지 만족도(직업구분)



직업별 의료복지 만족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만족(32.5%)이 불만족(21.1%)보다 높게 집계 되었다.

그런데 일반근로자만 특화 시켜 보면 불만족(28.1%)이 만족(24.8%)보다 조금 높게 집계 되었다.

〈표 3-4-10〉 의료 복지 만족도 평균(직업구분)

구 분	만족도
일반근로자(N=178)	2.92
자영업 · 사업가(N=36)	3.53
전문직(N=64)	3.41
기타(N=106)	3.08
전체(N=384)	3.10

직업별 의료복지 만족도(5점 만점)를 보면 일반근로자는 2.92, 자영업 및 사업가는 3.53, 전문직은 3.41, 기타는 3.08로 집계 되었다. 자영업자나 사업가, 그리고 전문직을 제외한 직업군에서는 대체로 보통 및 그 이하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 2) 교육

### (1) 언어능력

문53) 귀하는 아래와 같은 언어를 얼마나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3-4-11〉 언어능력

(단위: %)

구 분	전혀 못함	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조선어(N=395)	1.3	1.0	16.2	32.2	49.4
한국어(N=397)	.8	3.8	33.8	35.3	26.4
한 어(N=393)	1.3	4.3	33.1	31.0	30.3
영 어(N=375)	34.7	38.4	18.1	6.7	2.1
일본어(N=362)	46.7	37.3	12.2	2.2	1.7

주관적 언어 능력에 있어, 조선어의 능력은 다른 언어에 비해 월등하나, 한국어와 한어(중국어) 능력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한국어와 한어 능력은 95% 가까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2) 자녀 입학시 어려운 점

문55) 귀하의 자녀를 교육기관에 입학시킬 때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입니까?(복수응답)

〈표 3-4-12〉 자녀 입학시 어려운 점

(단위: %)

구 분	N=61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44.4
학교장 재량으로 입학이 어렵다	9.8
서류가 복잡하다	19.7
중국에서의 학력이 낮다	8.2
경제 형편이 좋지 않다	16.4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은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인 것으로 집계 되었다. 그 다음으로 제출 서류가 복잡하다는 것인데 이는 교육기관에 대한 사전 준비과정 소개의 필요성과 정책 홍보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그 다음으로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이유, 학교장 재량으로 입학이 어려운 이유, 중국에서의 낮은 학력 순위로 집계 되었다.

(3) 자녀 교육기관에 다니지 않는 이유

문56) 귀하의 자녀가 한국의 교육기관에 다닌적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표 3-4-13〉 자녀 교육기관에 다니지 않는 이유

(단위: %)

구 분	N=35
교육, 학교 정보가 부족하다	2.9
한국어를 잘 못한다	11.4
한국 학생들과의 관계 처리가 어렵다	8.6
언젠가는 중국에 돌아 갈 것 같아서	2.9
한국학교 학력이 중국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17.1
경제 형편이 좋지 않다	--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 뒀다	20.0
영유아여서 집에서 키운다	4.6

자녀가 한국의 교육기관에 다닌적이 없는 이유를 보면,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 뒀다” 20.0%, “한국학교 학력이 중국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17.1%, “한국어를 잘 못한다” 11.4%, “한국 학생들과의 관계 처리가 어렵다” 8.6%, “교육, 학교 정보가 부족하다” 및 “언젠가는 중국에 돌아 갈 것 같아서” 2.9%, “경제형편이 좋지 않다” 0%의 순으로 집계 되었다. 그 외 취학연령이 아닌 이유가 4.6%로 집계 되었다.

#### (4) 자녀 중퇴 이유

문56-1) 귀하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 두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표 3-4-14〉 자녀 중퇴 이유

(단위: %)

구 분	N=24
한국어를 잘 못한다	4.2
한국 학생들과의 관계처리가 어렵다	4.2
언젠가는 중국에 돌아 갈 것 같아서	4.2
한국학교 학력이 중국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4.2
경제 형편이 좋지 않다	20.8

한국의 교육기관에 취학을 했다가 중퇴한 이유를 보면 “경제형편이 좋지 않다” 20.8%, “한국어를 잘 못한다”, “한국 학생들과의 관계 처리가 어렵다”, “언젠가는 중국에 돌아갈 것 같아서”, “한국학교 학력이 중국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가 각각 4.2%로 집계 되었다.



(5) 자신과 가족 교육수준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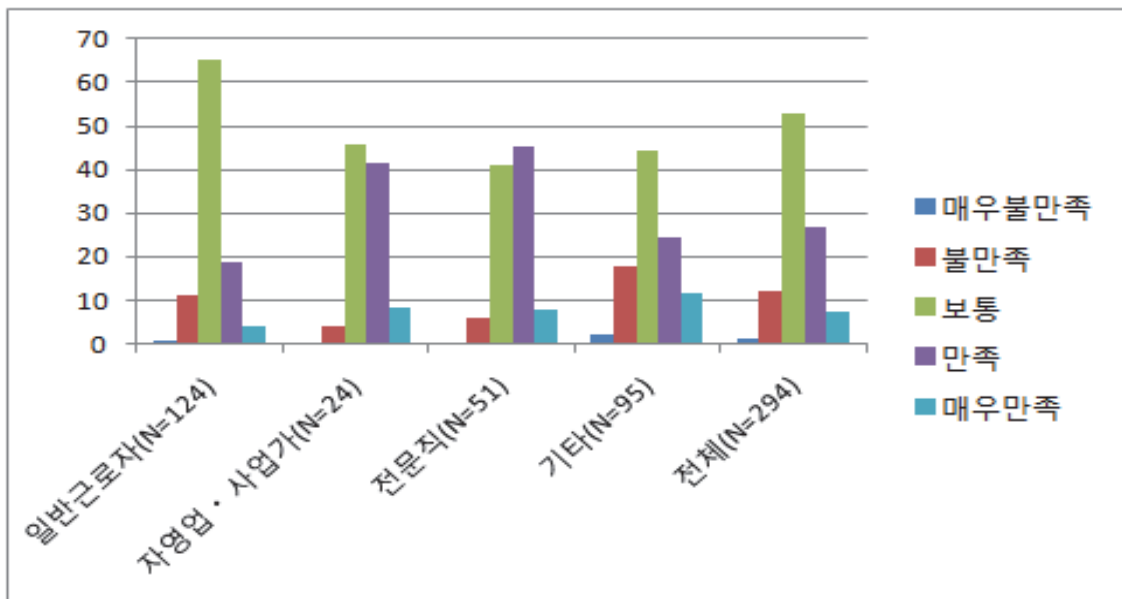
문57-1) 귀하는 현재 자신과 가족 구성원의 교육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표 3-4-15〉 자신과 가족 교육수준 만족도(직업구분)

(단위: %)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일반근로자(N=124)	.8	11.3	65.3	18.5	4.0
자영업·사업가(N=24)	—	4.2	45.8	41.7	8.3
전문직(N=51)	—	5.9	41.2	45.1	7.8
기타(N=95)	2.1	17.9	44.2	24.2	11.6
전체(N=294)	1.0	11.9	52.7	26.9	7.5

〈그림 3-4-2〉 자신과 가족 교육수준 만족도(직업구분)



본인과 가족의 교육수준 만족도를 보면 일반근로자와 기타 직업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높게 집계 되었다.

## 5. 사회참여와 사회적 인식

### 사회참여와 사회적 인식에 대한 요약

중국동포는 종교 단체든 비종교 단체든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 참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볼 때 중국동포 비종교단체 참여가 종교 단체 참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단체에 참여하는 이유는 여가 생활 풍부하게, 인맥 형성 및 동포관련 정책을 얻기 위함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 되었다.

일상 생활에서의 차별적 대우나 불이익을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20% 전후이고 대부분은 지나치고 있다.

중국동포들은 동포들만을 위한 지역 무가지 신문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신문을 구독하는 비율이 40% 이상에 달한다. 서울시 정책이나 중앙정부의 정책을 홍보함에 이런 자원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중국동포의 50% 이상이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라는 생각이 압도적으로 높다.

중국동포들은 한국정부나 한국인이 자신들을 중국동포로 불러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1) 사회참여와 미디어 접촉

(1) 단체 참여

문58) 귀하는 1년에 평균 다음과 같은 단체의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 하십니까?

〈표 3-5-1〉 단체 참여(종교단체)

(단위: %)

구 분	중국동포 종교단체(N=381)	한족 종교단체(N=368)	한국인 종교단체(N=383)
5회이하	4.7	.8	6.5
6~10회	.8	.8	.3
10회이상	6.3	.8	2.9
내가 단체 운영	1.6	.3	.0
참여하지 않음	86.6	97.4	90.3

〈표 3-5-2〉 단체 참여(비종교단체)

(단위: %)

구 분	중국동포 비종교단체(N=389)	한족 비종교단체(N=381)	한국인 비종교단체(N=382)
5회이하	12.3	2.6	4.7
6~10회	3.1	.5	.8
10회이상	7.2	.5	1.8
내가 단체 운영	2.3	.0	.0
참여하지 않음	75.1	96.3	92.7

중국동포는 종교단체든 비종교단체든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 참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볼 때 중국동포 비종교단체 참여가 종교단체 참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2) 모임 및 단체 참여

문59) 귀하는 1년에 평균 다음과 같은 모임이나 단체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표 3-5-3〉 모임 및 단체 참여

(단위: %)

구분	노동자 · 근로자 (N=373)	직장인 (전문직) (N=379)	유학생 (N=382)	기업가 (N=370)	상인 (자영업 자 등) (N=373)	결혼이 민자 (N=371)	주부 모임 (N=368)	동향 모임 (N=380)	동창 모임 (N=386)	스포츠 동호모임 (N=374)
5회 이하	5.6	11.3	10.7	1.6	3.5	4.0	2.2	18.4	35.5	5.1
6~ 10회	1.6	3.2	1.6	.5	.5	.8	.5	4.5	4.1	1.6
10회 이상	3.5	2.9	1.3	4.1	.8	3.2	3.5	3.2	2.6	5.1
내가 단체 운영	2.7	1.1	.5	--	.5	.3	.3	1.1	3.6	1.3
참여 하지 않음	86.6	81.5	85.9	93.8	94.6	91.6	93.5	72.9	54.1	86.9

일반적인 동호 모임 참여를 보면 동향모임이나 동창모임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직업별 모임의 참여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3) 단체 참여 이유

문60) 귀하가 이런 단체나 모임에 참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 3-5-4〉 단체 참여 이유(직업구분)

(단위: %)

구 분	인맥을 쌓는다	여가생활을 풍부하게 한다	생활정보 취득에 도움이 된다	동포 관련 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한국의 정치문제에 관심이 있다
일반근로자(N=134)	32.1	37.3	14.9	26.1	14.2
자영업·사업가(N=32)	50.0	40.6	28.1	25.0	15.6
전문직(N=55)	60.0	70.9	32.7	20.0	20.0
기타(N=91)	35.2	51.6	20.9	16.5	5.5
전체(N=312)	39.7	47.8	21.2	22.1	12.8

단체 참여 이유는 여가생활을 풍부하게, 인맥 형성, 동포 관련 정책을 접함, 생활정보 취득에 도움 등 순으로 집계되었다.

(4) 불이익 대체 방법

문61) 귀하는 본인의 차별적 대우나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하여 1년에 평균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표 3-5-5〉 불이익 대체 방법(직업구분)

(단위: %)

구 분		5회이하	6~10회	10회이상	전혀안함
SNS를 통한 의견	일반근로자(N=183)	10.9	1.1	4.9	83.1
	자영업·사업가(N=37)	18.9	2.7	13.5	64.9
	전문직(N=64)	18.8	6.3	6.3	68.8
	기타(N=113)	11.5	4.4	3.5	80.5
	전체(N=397)	13.1	3.0	5.5	78.3

구 분		5회이하	6~10회	10회이상	전혀안함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의견제기	일반근로자(N=181)	4.4	1.7	--	93.9
	자영업·사업가(N=37)	2.7	--	2.7	94.6
	전문직(N=62)	22.6	--	--	77.4
	기타(N=112)	5.4	1.8	1.8	91.1
	전체(N=392)	7.4	1.3	.8	90.6
민원접수	일반근로자(N=181)	3.9	.6	5.0	90.6
	자영업·사업가(N=37)	10.8	.0	5.4	83.8
	전문직(N=62)	9.7	3.2	--	87.1
	기타(N=112)	4.5	2.7	--	92.9
	전체(N=392)	5.6	1.5	2.8	90.1
집합행동 조직 혹은 참여	일반근로자(N=181)	3.9	5.5	.6	90.1
	자영업·사업가(N=36)	8.3	5.6	5.6	80.6
	전문직(N=61)	9.8	4.9	--	85.2
	기타(N=113)	6.2	.9	.9	92.0
	전체(N=391)	5.9	4.1	1.0	89.0

자신의 불이익에 대해 지나치는 사람이 75% 이상에 달한다. 묵과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다.

(5) 미디어 접촉 빈도

문62) 귀하는 한국에서 아래와 같은 미디어를 얼마나 자주 접하거나 활용하십니까?

〈표 3-5-6〉 미디어 접촉 빈도

(단위: %)

구 분	텔레비전 (N=401)	라디오 (N=391)	신문 (N=396)	컴퓨터(인터넷) (N=401)	핸드폰 (DMB, SNS) (N=401)
전혀안함	9.2	56.8	29.3	32.2	21.9
거의안함	11.5	26.6	27.8	7.0	5.5
자주	36.4	13.0	30.8	25.9	28.2
매우자주	42.9	3.6	12.1	34.9	44.4

상대적으로 높은 활용빈도를 나타낸 것이 핸드폰, 텔레비전, 컴퓨터 등 순으로 집계되었다.

6) 미디어 접촉 내용

문63) 귀하는 미디어를 접촉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얼마나 자주 즐겨 보십니까?

〈표 3-5-7〉 미디어 접촉 내용

(단위: %)

구 분	뉴스 (N=400)	드라마, 영화(N=400)	예능, 오락, 음악, 스포츠 (N=395)	홈쇼핑, 광고 (N=397)
전혀안함	10.3	10.8	19.7	43.8
거의안함	7.8	16.3	13.4	26.2
자주	38.0	40.5	38.7	20.4
매우자주	44.0	32.5	28.1	9.6

전체적으로 보면 뉴스, 드라마나 영화, 예체능 등에 대한 접촉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7) 중국동포 관련 미디어 접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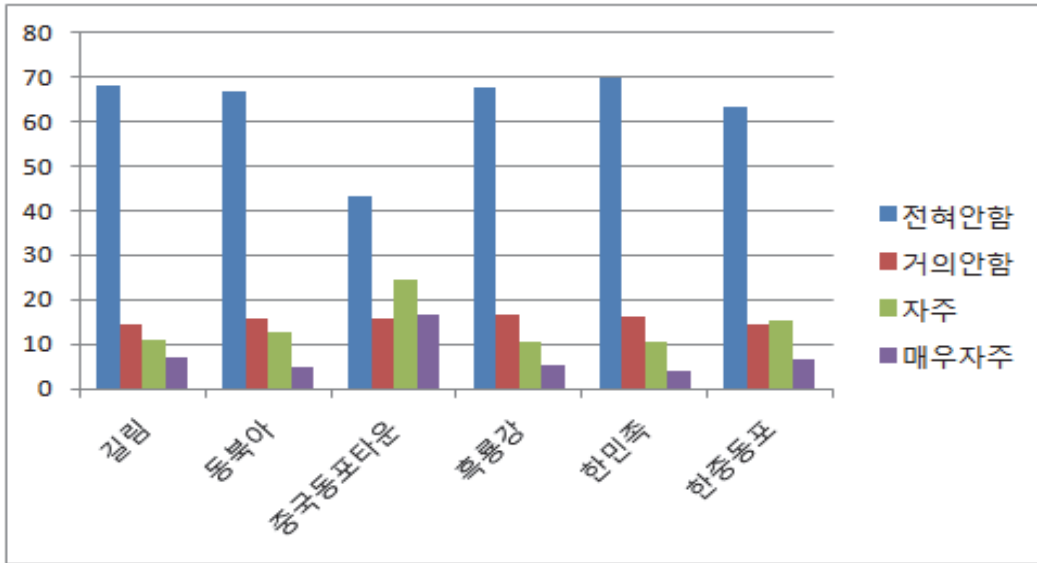
문64) 귀하는 중국동포와 관련된 다음의 신문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표 3-5-8〉 중국동포 관련 미디어 접촉

(단위: %)

구 분	길림 신문 (N=394)	동북아 신문 (N=397)	중국동포 타운신문 (N=396)	흑룡강 신문 (N=394)	한민족 신문 (N=394)	한중동포 신문 (N=396)
전혀안함	68.0	66.8	43.4	67.8	69.8	63.4
거의안함	14.5	15.6	15.7	16.8	16.0	14.6
자주	10.7	12.6	24.5	10.4	10.4	15.4
매우자주	6.9	5.0	16.4	5.1	3.8	6.6

〈그림 3-5-1〉 중국동포 관련 미디어 접촉



전체적으로 볼 때 60% 이상이 이용하지 않는다.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중국동포타운신문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되었다.<sup>23)</sup>

(8) 중국동포 관련 미디어 접촉 내용

문65) 귀하는 중국동포와 관련된 신문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표 3-5-9〉 미디어 접촉 내용

(단위: %)

구 분	중국동포 관련 정책 (N=396)	직업 정보 (N=392)	수기, 칼럼 (N=387)	중국 뉴스 (N=391)
전혀안함	27.3	46.9	70.5	44.5
거의안함	16.4	16.3	17.6	11.5
자주	30.8	27.8	9.3	29.2
매우자주	25.5	8.9	2.6	14.8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동포 관련 정책, 중국 뉴스, 직업 정보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23) 중국동포타운신문이 실제로 국내 중국동포 관련 지역 무가지 중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이유가 한 몫을 하겠지만 본 조사의 협력기관 중 하나 였기에 이 신문 구독률의 비율이 어느 정도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이웃관계와 차별인식

(1) 이웃 찬성

문68) 귀하는 아래의 사람들이 귀하의 이웃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3-5-10〉 중국동포 이웃찬성(지역구분)

(단위: %)

구 분	매우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찬성
일반지역(N=234)	4.3	2.6	44.0	34.2	15.0
밀집지역(N=158)	.6	1.2	52.4	29.9	15.9
전체(N=398)	2.8	2.0	47.5	32.4	15.3

〈표 3-5-11〉 중국동포 이웃찬성(직업구분)

(단위: %)

구 분	매우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찬성
일반근로자(N=186)	4.8	1.6	47.8	27.4	18.3
자영업·사업가(N=36)	--	--	44.4	27.8	27.8
전문직(N=63)	1.6	--	52.4	41.3	4.8
기타(N=113)	.9	4.4	45.1	37.2	12.4
전체(N=398)	2.8	2.0	47.5	32.4	15.3

〈표 3-5-12〉 한족 이웃찬성(지역구분)

(단위: %)

구 분	매우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찬성
일반지역(N=232)	6.5	6.9	53.9	27.2	5.6
밀집지역(N=161)	2.5	7.5	61.5	21.7	6.8
전체(N=393)	4.8	7.1	57.0	24.9	6.1

〈표 3-5-13〉 한족 이웃찬성(직업구분)

(단위: %)

구 분	매우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찬성
일반근로자(N=185)	7.0	7.6	57.8	21.6	5.9
자영업·사업가(N=34)	2.9	.0	61.8	23.5	11.8
전문직(N=62)	3.2	8.1	51.6	33.9	3.2
기타(N=112)	2.7	8.0	57.1	25.9	6.3
전체(N=393)	4.8	7.1	57.0	24.9	6.1

〈표 3-5-14〉 한국인 이웃찬성(지역구분)

(단위: %)

구 분	매우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찬성
일반지역(N=232)	4.3	3.9	48.7	34.1	9.1
밀집지역(N=161)	1.2	4.3	48.4	36.0	9.9
전체(N=393)	3.1	4.1	48.6	34.9	9.4

〈표 3-5-15〉 한국인 이웃찬성(직업구분)

(단위: %)

구 분	매우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찬성
일반근로자(N=185)	4.9	4.3	51.9	30.3	8.6
자영업·사업가(N=34)	--	2.9	50.0	35.3	11.8
전문직(N=62)	1.6	4.8	40.3	48.4	4.8
기타(N=112)	1.8	3.6	47.3	34.8	12.5
전체(N=393)	3.1	4.1	48.6	34.9	9.4

〈표 3-5-16〉 동남아 이주노동자 이웃찬성(지역구분)

(단위: %)

구 분	매우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찬성
일반지역(N=230)	12.2	15.2	56.1	13.5	3.0
밀집지역(N=160)	12.5	18.8	53.1	12.5	3.1
전체(N=390)	12.3	16.7	54.9	13.1	3.1

〈표 3-5-17〉 동남아 이주노동자 이웃찬성(직업구분)

(단위: %)

구 분	매우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찬성
일반근로자(N=184)	15.8	18.5	52.7	9.8	3.3
자영업·사업가(N=33)	6.1	9.1	63.6	18.2	3.0
전문직(N=62)	12.9	17.7	46.8	21.0	1.6
기타(N=111)	8.1	15.3	60.4	12.6	3.6
전체(N=390)	12.3	16.7	54.9	13.1	3.1

〈표 3-5-18〉 기타 외국인 이웃찬성(지역구분)

(단위: %)

구 분	매우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찬성
일반지역(N=227)	11.5	14.1	59.5	13.2	1.8
밀집지역(N=159)	11.3	16.4	54.1	15.1	3.1
전체(N=386)	11.4	15.0	57.3	14.0	2.3

〈표 3-5-19〉 기타 외국인(직업구분)

(단위: %)

구 분	매우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찬성
일반근로자(N=182)	15.9	17.6	54.9	9.3	2.2
자영업·사업가(N=33)	6.1	6.1	69.7	18.2	.0
전문직(N=62)	6.5	16.1	54.8	21.0	1.6
기타(N=109)	8.3	12.8	58.7	16.5	3.7
전체(N=386)	11.4	15.0	57.3	14.0	2.3

응답자들은 한국인, 중국동포, 중국 한족 등이 자신의 이웃으로 사는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

그럼에도 특정 계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2) 사회적 거리

문69) 귀하는 아래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3-5-20〉 중국동포와의 사회적 거리 (지역구분)

(단위: %)

구 분	매우 멀다	멀다	보통	가깝다	매우 가깝다	모르겠다
일반지역(N=234)	.0	4.7	23.9	29.9	34.2	7.3
밀집지역(N=164)	.6	.0	34.8	32.3	27.4	4.9
전체(N=398)	.3	2.8	28.4	30.9	31.4	6.3

〈표 3-5-21〉 중국동포와의 사회적 거리 (직업구분)

(단위: %)

구 분	매우 멀다	멀다	보통	가깝다	매우 가깝다	모르겠다
일반근로자(N=187)	.0	5.9	35.8	22.5	29.9	5.9
자영업·사업가(N=35)	.0	.0	17.1	37.1	42.9	2.9
전문직(N=64)	1.6	.0	26.6	40.6	29.7	1.6
기타(N=112)	.0	.0	20.5	37.5	31.3	10.7
전체(N=398)	.3	2.8	28.4	30.9	31.4	6.3

〈표 3-5-22〉 한족과의 사회적 거리 (지역구분)

(단위: %)

구 분	매우 멀다	멀다	보통	가깝다	매우 가깝다	모르겠다
일반지역(N=262)	4.3	3.0	39.3	28.2	9.8	15.4
밀집지역(N=160)	1.9	5.0	48.1	25.6	8.1	11.3
전체(N=394)	3.3	3.8	42.9	27.2	9.1	13.7

〈표 3-5-23〉 한족과의 사회적 거리 (직업구분)

(단위: %)

구 분	매우 멀다	멀다	보통	가깝다	매우 가깝다	모르겠다
일반근로자(N=185)	4.9	5.9	44.9	22.7	4.3	17.3
자영업·사업가(N=35)	.0	.0	42.9	40.0	8.6	8.6
전문직(N=64)	3.1	4.7	50.0	25.0	15.6	1.6
기타(N=110)	1.8	.9	35.5	31.8	13.6	16.4
전체(N=394)	3.3	3.8	42.9	27.2	9.1	13.7

〈표 3-5-24〉 한국인과의 사회적 거리 (지역구분)

(단위: %)

구 분	매우 멀다	멀다	보통	가깝다	매우 가깝다	모르겠다
일반지역(N=234)	.9	7.7	47.0	21.4	9.0	14.1
밀집지역(N=161)	1.9	5.6	60.2	20.5	6.2	5.6
전체(N=395)	1.3	6.8	52.4	21.0	7.8	10.6

〈표 3-5-25〉 한국인과의 사회적 거리 (직업구분)

(단위: %)

구 분	매우 멀다	멀다	보통	가깝다	매우 가깝다	모르겠다
일반근로자(N=185)	--	8.1	54.1	15.7	7.0	15.1
자영업·사업가(N=35)	2.9	.0	42.9	40.0	5.7	8.6
전문직(N=64)	1.6	10.9	59.4	18.8	7.8	1.6
기타(N=111)	2.7	4.5	48.6	25.2	9.9	9.0
전체(N=395)	1.3	6.8	52.4	21.0	7.8	10.6

〈표 3-5-26〉 동남아 이주노동자와의 사회적 거리 (지역구분)

(단위: %)

구 분	매우 멀다	멀다	보통	가깝다	매우 가깝다	모르겠다
일반지역(N=232)	14.7	21.1	16.8	3.4	1.7	42.2
밀집지역(N=158)	17.1	21.5	26.6	.6	.6	33.5
전체(N=390)	15.6	21.3	20.8	2.3	1.3	38.7

〈표 3-5-27〉 동남아 이주노동자와의 사회적 거리 (직업구분)

(단위: %)

구 분	매우 멀다	멀다	보통	가깝다	매우 가깝다	모르겠다
일반근로자(N=184)	18.5	22.8	15.2	1.1	1.6	40.8
자영업·사업가(N=35)	11.4	20.0	31.4	8.6	--	28.6
전문직(N=63)	17.5	19.0	31.7	1.6	--	30.2
기타(N=108)	11.1	20.4	20.4	2.8	1.9	43.5
전체(N=390)	15.6	21.3	20.8	2.3	1.3	38.7

〈표 3-5-28〉 기타 외국인과의 사회적 거리 (지역구분)

(단위: %)

구 분	매우 멀다	멀다	보통	가깝다	매우 가깝다	모르겠다
일반지역(N=232)	9.5	21.6	16.4	3.0	.9	48.7
밀집지역(N=157)	15.9	17.2	24.8	1.3	.6	40.1
전체(N=389)	12.1	19.8	19.8	2.3	.8	45.2

〈표 3-5-29〉 기타 외국인과의 사회적 거리 (직업구분)

(단위: %)

구 분	매우 멀다	멀다	보통	가깝다	매우 가깝다	모르겠다
일반근로자(N=184)	10.9	22.3	15.2	1.1	.5	50.0
자영업·사업가(N=35)	11.4	17.1	22.9	5.7	.0	42.9
전문직(N=63)	15.9	12.7	34.9	1.6	.0	34.9
기타(N=107)	12.1	20.6	17.8	3.7	1.9	43.9
전체(N=389)	12.1	19.8	19.8	2.3	.8	45.2

응답자들이 한국인, 중국동포, 한족, 동남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관적 거리를 보면 한국인, 중국동포, 한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슷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으나 동남아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거리감이 멀다고 응답하였다.

(3) 차별인식

문70) 귀하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3-5-30〉 차별인식

(단위: %)

구 분	직장 (N=392)	사회 (N=394)	학교 (N=377)
모르겠다	6.9	9.6	9.5
전혀받지않는다	8.2	4.6	6.6
거의받지않는다	16.1	9.9	10.1
조금받는다	37.8	45.9	10.9
심하게받는다	14.3	19.3	5.8
해당없음	16.8	10.7	57.0

응답자들 중 직장 내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52.1%로 집계 되었고, 직장 외, 일반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65.2%로 집계 되었으며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6.7%로 집계 되었다.

(4) 차별이유

문70-1) 만약 귀하가 차별을 받은 적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표 3-5-31〉 차별이유

(단위: %)

구 분	N=366
국적	46.2
중국동포(조선족)	57.1
종교	2.2
언어(말투)	31.8
외모	1.1
학력	4.1
경제적 지위	6.3
성별	1.4
나이	3.0
직업	1.6
신체장애	0.3

응답자가 선택한 차별을 받는 이유를 보면, 중국동포(조선족)이 57.1%, 국적(중국)이 46.2%, 언어(말투) 31.8%로 높게 집계 되었다. 그 외 경제적 지위, 학력, 나이, 종교, 직업, 외모, 신체장애 등의 순으로 집계 되었다.

(5)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문71) 귀하가 보시기에 전반적으로 한국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표 3-5-32〉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지역구분)

(단위: %)

구 분	차별과소외가 매우심한사회	차별과소외가 조금심한사회	배려와포용이 조금큰사회	배려와포용이 매우큰사회	잘모르겠다
일반지역(N=235)	36.2	36.9	9.8	1.7	15.7
밀집지역(N=163)	28.8	47.2	10.4	3.1	10.4
전체(N=398)	33.2	40.9	10.1	2.3	13.6

〈표 3-5-33〉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직업구분)

(단위: %)

구 분	차별과소외가 매우심한사회	차별과소외가 조금심한사회	배려와포용이 조금큰사회	배려와포용이 매우큰사회	잘모르겠다
일반근로자(N=187)	32.6	42.8	8.6	3.7	12.3
자영업·사업가(N=35)	28.6	48.6	14.3	.0	8.6
전문직(N=64)	40.7	45.3	4.7	.0	9.4
기타(N=112)	31.3	33.0	14.3	1.8	19.7
전체(N=298)	33.2	40.9	10.1	2.3	13.6

응답자 중 70% 정도가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라고 응답하였다.



(6) 선호 호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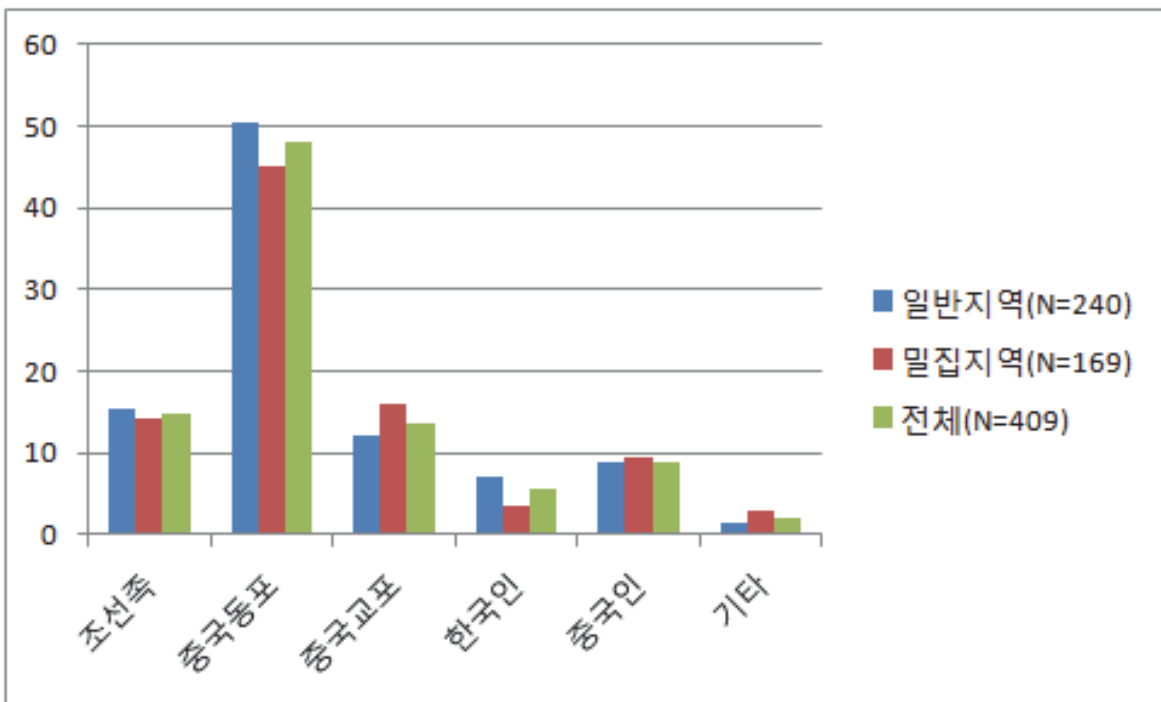
문72) 귀하는 한국인 혹은 한국정부가 중국동포를 어떻게 불렀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3-5-34〉 선호 호칭(지역구분)

(단위: %)

구 분	조선족	중국동포	중국교포	한국인	중국인	기타
일반지역(N=240)	15.4	50.4	12.1	7.1	8.8	1.3
밀집지역(N=169)	14.2	45.0	16.0	3.6	9.5	3.0
전체(N=409)	14.9	48.2	13.7	5.6	9.0	2.0

〈그림 3-5-2〉 선호 호칭(지역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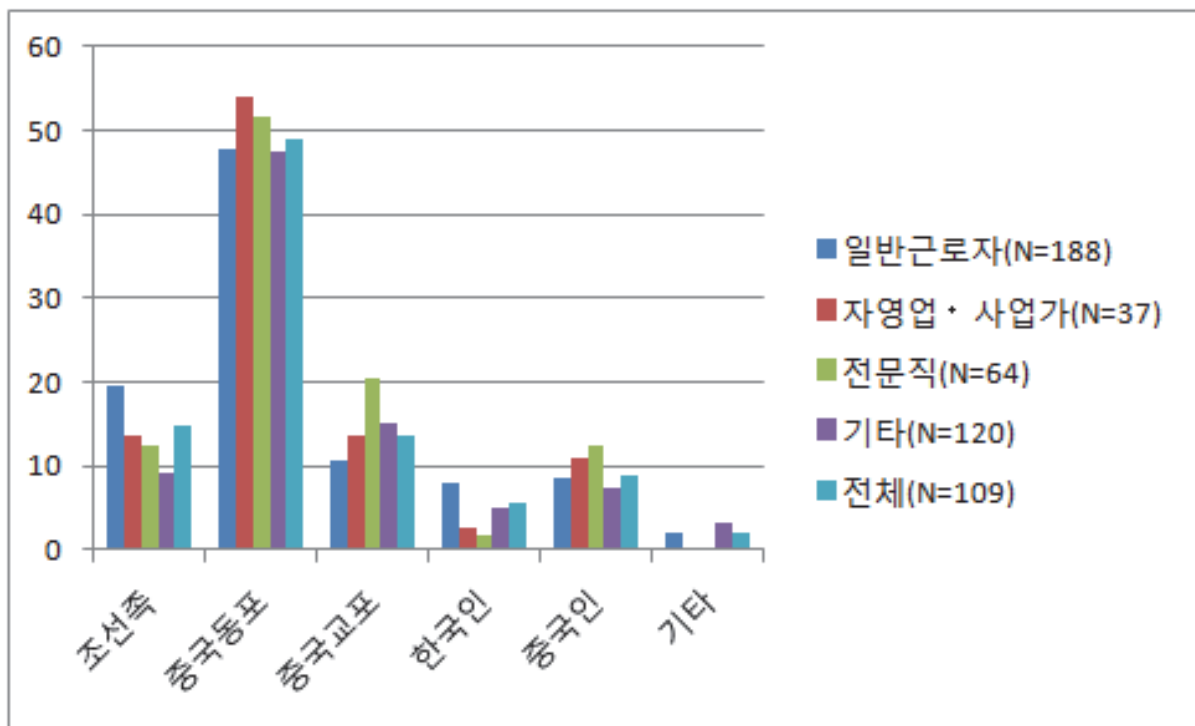
중국동포가 선호하는 호칭을 보면 지역에 상관 없이 중국동포가 압도적으로 높다.

〈표 3-5-35〉 선호 호칭(직업구분)

(단위: %)

구 분	조선족	중국 동포	중국 교포	한국인	중국인	기타
일반근로자(N=188)	19.7	47.9	10.6	8.0	8.5	2.1
자영업·사업가(N=37)	13.5	54.1	13.5	2.7	10.8	.0
전문직(N=64)	12.5	51.6	20.3	1.6	12.5	.0
기타(N=120)	9.2	47.5	15.0	5.0	7.5	3.3
전체(N=109)	14.9	48.9	13.7	5.6	9.0	2.0

〈그림 3-5-3〉 선호 호칭(직업구분)



중국동포가 선호하는 호칭을 보면 직업에 상관 없이 중국동포가 압도적으로 높다.

(7) 외국인 지원 기관 방문

문73) 귀하는 아래와 같은 기관을 방문 혹은 이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표 3-5-36〉 외국인 지원 기관 방문

(단위: %)

구 분	예
글로벌 빌리지(N=393)	9.7
외국인상담센터(N=393)	17.0
다문화가족지원센터(N=394)	10.7
기타 외국인지원기관(N=392)	6.9

전체적으로 볼 때 80% 이상이 방문 경험이 없다.

6. 고용관계와 경제활동

고용관계와 경제활동에 대한 요약

중국동포의 월 수입은 150만 원~250만 원 사이가 대부분인 것으로 집계 되었다.

일자리를 찾을 때 중요시 하는 부분에서 수입, 근무환경이 압도적으로 높게 집계 되었다.

일자리를 찾는 방법은 가족, 지인, 신문광고(지역 무가지), 고용중개기관의 순위인 것으로 집계 되었다.

직업만족도에서 만족이 불만족보다 높게 집계 되었다.

구직 시 어려움에는 경력, 취업정보 부족, 비자연장 불가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 되었다.

중국동포의 일 평균 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 11시간, 자영업 및 사업가 10시간, 전문직 9시간, 기타 직종 10시간 등으로 집계 되었다.

직장내 동료와의 관계 역시 만족이 불만족보다 높게 집계 되었다.

### 1) 구직과 고용

#### (1) 수입

문75) 귀하의 월수입은 얼마입니까?

〈표 3-6-1〉 수입(지역구분)

(단위: %)

구 분	100 만원 이하	150 ~ 200 만원	200 ~ 250 만원	250 ~ 300 만원	300 ~ 350 만원	350 ~ 400 만원	400 ~ 450만 원	450 ~ 500 만원	500 만원 이상	월수입 없음
일반지역(N=205)	3.4	62.9	15.6	5.9	2.0	1.5	2.0	--	2.9	3.9
밀집지역(N=148)	6.1	57.5	9.5	6.1	6.8	2.7	--	1.4	2.7	7.4
전체(N=353)	4.5	60.6	13.0	5.9	4.0	2.0	1.1	.6	2.8	5.4

〈표 3-6-2〉 수입(직업구분)

(단위: %)

구 분	100 만원 이하	150 ~ 200 만원	200 ~ 250 만원	250 ~ 300 만원	300 ~ 350 만원	350 ~ 400 만원	400 ~ 450 만원	450 ~ 500 만원	500 만원 이상	월수입 없음
일반근로자(N=186)	2.7	69.9	14.5	3.2	3.8	1.1	.0	.0	2.2	2.7
자영업·사업가(N=34)	.0	52.9	17.6	2.9	2.9	5.9	2.9	.0	11.8	2.9
전문직(N=62)	3.2	41.9	14.5	17.7	8.1	4.8	4.8	3.2	1.6	.0
기타(N=71)	12.7	56.6	5.6	4.2	1.4	.0	.0	.0	1.4	18.3
전체(N=353)	4.5	60.6	13.0	5.9	4.0	2.0	1.1	.6	2.8	5.4

대부분이 100만 원~250만 원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2) 이직 횟수

문76) 귀하는 한국에서 직업을 몇 번 바꾸었습니까?

〈표 3-6-3〉 이직 횟수

(단위: %)

구 분	N=337
5회 이하	78.3
6회 ~ 10회	19.0
11회 ~15회	1.5
15회 이상	1.2

응답자 중 이직 횟수가 5회 이하 비율은 78.3%, 6회~10회는 19.0%, 11회~15회는 1.5%, 15회 이상은 1.2%로 집계 되었다.

(3) 구직 시 고려 사항

문76-1) 귀하는 직업을 찾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고려하십니까?

〈표 3-6-4〉 구직 시 고려 사항

(단위: %)

구 분	N=331
수입	50.8
근무환경	23.5
지역	4.2
전공	8.2
본인의 기술	4.8
F-4비자 전환 가능성	6.0
기타	2.4

수입과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 구직 방법

문80) 귀하는 어떻게 현재의 직업 혹은 가장 최근의 직업을 찾으셨습니까?

〈표 3-6-5〉 구직 방법(지역구분)

(단위: %)

구 분	신문에서 광고	고용중개 기관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	친구나 지인	가족이나 친척
일반지역(N=195)	21.0	20.0	7.2	49.2	7.2
밀집지역(N=134)	23.1	18.0	2.3	51.1	10.5
전체(N=329)	21.9	19.2	5.2	50.0	8.5

〈표 3-6-6〉 구직 방법(직업구분)

(단위: %)

구 분	신문에서 광고	고용중개 기관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	친구나 지인	가족이나 친척
일반근로자(N=178)	27.0	23.6	8.4	44.9	8.4
자영업·사업가(N=30)	13.3	10.0	.0	50.0	3.3
전문직(N=63)	11.1	4.8	.0	61.3	9.7
기타(N=58)	22.4	25.9	3.4	53.4	10.3
전체(N=329)	21.9	19.2	5.2	50.0	8.5

지역이든 직업이든 구직 방법에 있어 친구나 지인을 통한 정보 획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외에 신문광고에서 보거나, 고용중개기관을 통하거나, 가족이나 친척을 통하거나 공공기관을 통해 구직정보를 얻는다는 순위로 집계 되었다.

(5) 직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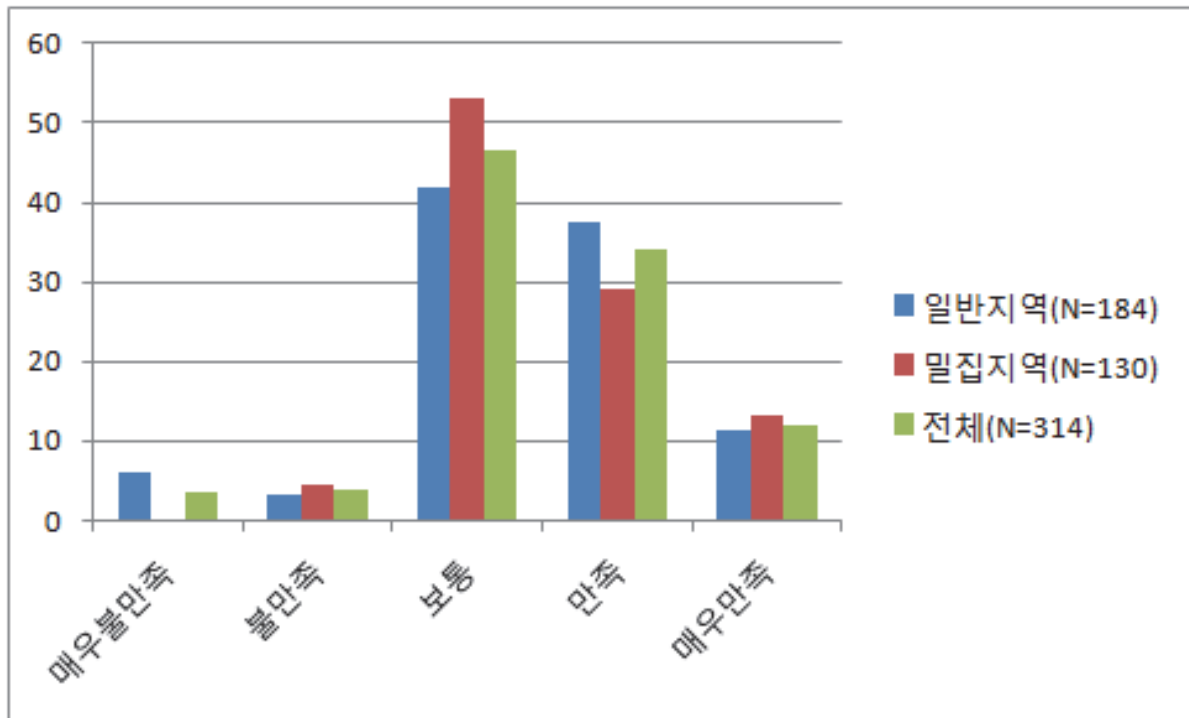
문82) 귀하는 현재의 직업 혹은 가장 최근의 직업을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표 3-6-7〉 직업 만족도(지역구분)

(단위: %)

구 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일반지역(N=184)	6.0	3.3	41.8	37.5	11.4
밀집지역(N=130)	—	4.6	53.1	29.2	13.1
전체(N=314)	3.5	3.8	46.5	34.1	12.1

〈그림 3-6-1〉 직업 만족도(지역구분)



일반지역이나 밀집지역이나 만족(46.2%)이 불만족(7.3%)보다 높게 집계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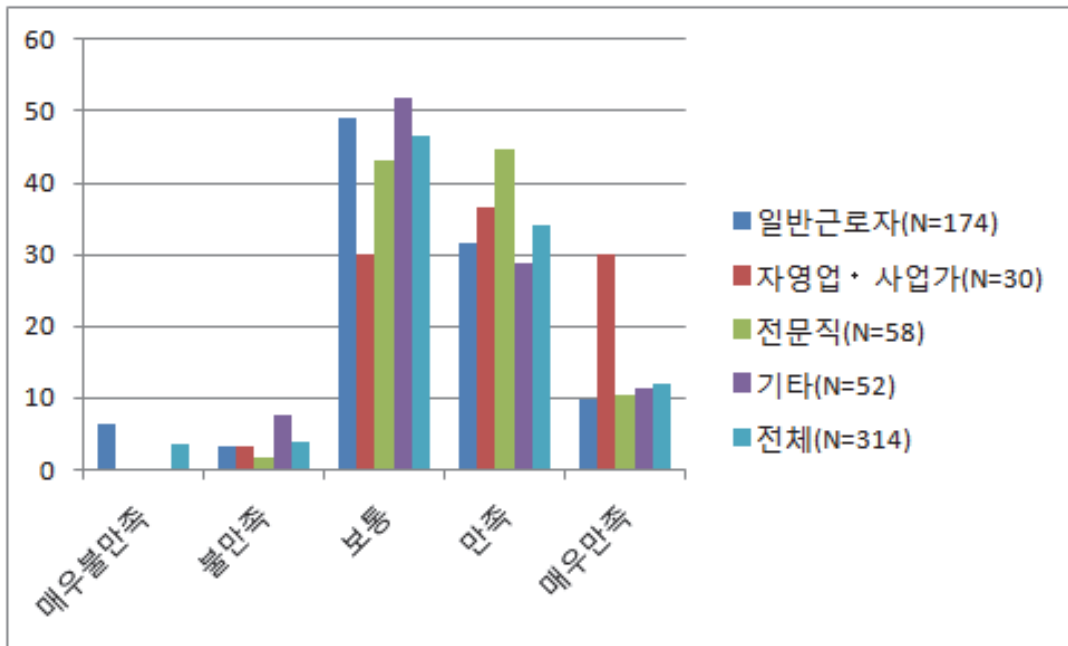
〈표 3-6-8〉 직업 만족도(직업구분)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일반근로자(N=174)	6.3	3.4	48.9	31.6	9.8
자영업·사업가(N=30)	--	3.3	30.0	36.7	30.0
전문직(N=58)	--	1.7	43.1	44.8	10.3
기타(N=52)	--	7.7	51.9	28.8	11.5
전체(N=314)	3.5	3.8	46.5	34.1	12.1



〈그림 3-6-2〉 직업 만족도(직업구분)



전체적으로 보면 만족(46.2%)이 불만족(7.3%)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나 일반근로자의 경우 다른 직업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 되었다.

〈표 3-6-9〉 직업 만족도 평균

구 분		만족도
일반지역	일반근로자(N=107)	3.32
	자영업·사업가(N=21)	3.81
	전문직(N=29)	3.72
	기타(N=27)	3.41
밀집지역	일반근로자(N=67)	3.40
	자영업·사업가(N=9)	4.22
	전문직(N=29)	3.55
	기타(N=25)	3.48
전체	일반근로자(N=174)	3.35
	자영업·사업가(N=30)	3.93
	전문직(N=58)	3.64
	기타(N=52)	3.44

직업별 만족도(5점 만점)를 보면 대체적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밀집지역에서 자영업 및 사업가의 만족도는 4.22로 가장 높게 나왔다.

(6) 구직과 노동 시 어려운 점

문84) 귀하가 직업을 찾는 과정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표 3-6-10〉 구직과 노동 시 어려운 점

(단위: %)

구 분	N=306
한국어를 잘 못한다	14.7
체류기간이 짧아서 써주는 곳이 없다	9.5
체류자격(비자)이 안돼서 일을 못한다	19.9
취업정보가 부족하다	19.3
일을 해 본 경력이 적다	20.3
일자리 찾는 방법을 잘 모른다	6.9
취업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11.4
일자리가 없다	6.9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문제, 취업정보 부족, 경력, 한국어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노동실태

(1) 일 평균 근로 시간

문86) 귀하의 현재의 직장, 혹은 가장 최근의 직장에서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표 3-6-11〉 일 평균 근로 시간

(단위: 시간)

구 분	평균 근로 시간
일반근로자(N=165)	11.44
자영업 · 사업가(N=10)	10.00
전문직(N=62)	8.98
기타(N=50)	10.27
전체(N=287)	10.65

일반근로자는 하루 평균 11.44시간 근로하고, 자영업자 및 사업가는 평균 10.00시간, 전문직은 8.98시간, 기타 직업은 10.27 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

(2) 월 평균 휴식일

문87) 귀하의 현재의 직장, 혹은 가장 최근의 직장에서 한 달 평균 휴식일은 며칠입니까?

〈표 3-6-12〉 월 평균 휴식일

(단위: 일)

구 분	월 평균 휴식일
일반근로자(N=161)	5.65
자영업·사업가(N=10)	4.05
전문직(N=63)	7.22
기타(N=50)	4.77
전체(N=284)	5.79

일반근로자는 한달 평균 5.65일 휴식하고, 자영업자 및 사업가는 4.05일, 전문직은 7.22일, 기타 직업은 4.77일 휴식하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

(3) 직장 동료 민족 구성

문89) 직장 동료들 중 중국 중국동포, 한족, 한국인, 기타 등이 각각 몇 퍼센트씩 있습니까?

〈표 3-6-13〉 직장 동료 민족 구성

(단위: %)

구 분	중국동포 동료 (N=221)	한족동료 (N=119)	한국인동료 (N=203)
0%	6.3	40.3	3.9
1~33%	28.1	55.5	42.4
34~66%	22.6	1.7	16.3
67~99%	33.9	2.5	24.6
100%	9.0	--	12.8

직장에 중국동포 동료는 67%부터 99% 를 차지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한족동료와 한국인동료는 1~33% 사이를 차지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4) 직장내 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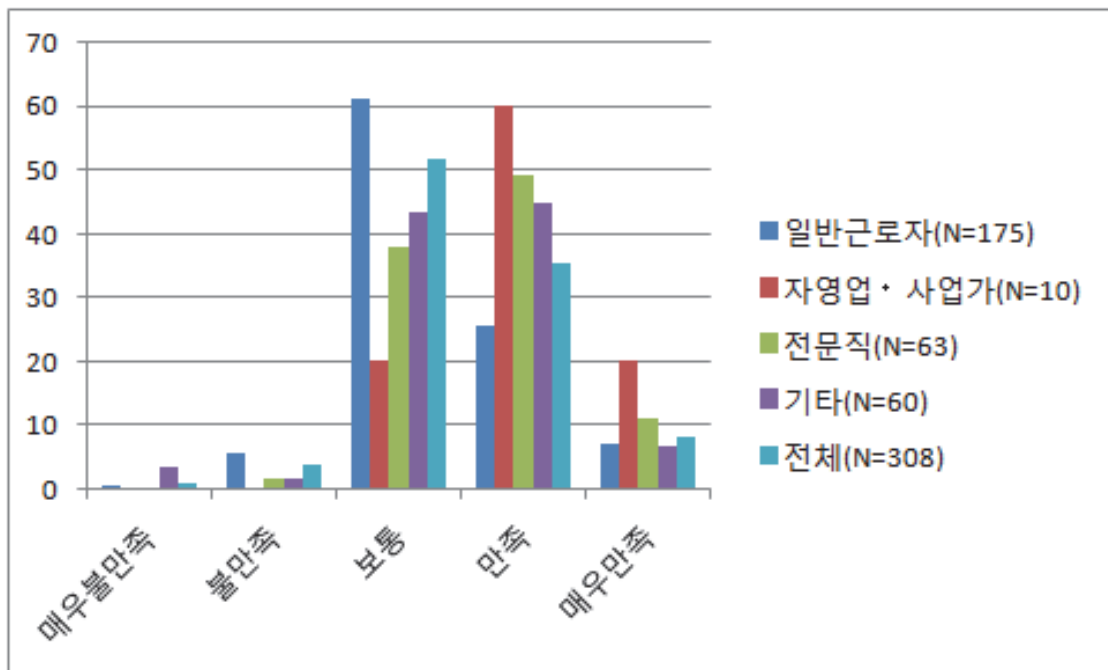
문90) 귀하는 현재 직장 혹은 가장 최근의 직장 내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표 3-6-14〉 직장내 관계 만족도(직업구분)

(단위: %)

구 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일반근로자(N=175)	.6	5.7	61.1	25.7	6.9
자영업·사업가(N=10)	--	--	20.0	60.0	20.0
전문직(N=63)	--	1.6	38.1	49.2	11.1
기타(N=60)	3.3	1.7	43.3	45.0	6.7
전체(N=308)	1.0	3.9	51.6	35.4	8.1

〈그림 3-6-3〉 직장내 관계 만족도(직업구분)



절 반 이상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5) 어려운 일 상담 대상

문91) 귀하는 현재 직장 혹은 가장 최근의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누구와 상담적으로 많이 이야기 합니까?(복수응답)

〈표 3-6-15〉 어려운 일 상담 대상

(단위: %)

구 분	비 율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N=304)	14.1
사장, 고용주(N=303)	15.5
직속 상사(N=302)	18.5
중국동포 동료(N=302)	43.4
한족 동료(N=302)	3.0
한국인 동료(N=302)	10.3

직장 내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중국동포 동료와 상담하는 비율이 43.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직속 상사 18.5%, 사장 및 고용주 15.5%, 이야기를 하지 않음이 14.1%, 한국인 동료 10.3%, 한족 동료 3.0%의 순으로 집계 되었다.

(6) 애로사항

92) 직장 생활에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표 3-6-16〉 애로사항

(단위: %)

구 분	N=292
임금 차별	33.9
직업훈련, 능력개발 기회 부족	16.4
승진 차별	11.3
동료들과 소통 부재	9.6
애로사항 없음	29.5

직장 생활에서의 애로사항에 있어 “애로사항 없음” 29.5%를 제외하고 보면, “임금 차별”이 33.9%, “직업훈련, 능력개발 기회 부족” 16.4%, “승진 차별” 11.3%, “동료 들고 소탕 부재” 9.6%의 순으로 집계 되었다.

(7) 서울시에서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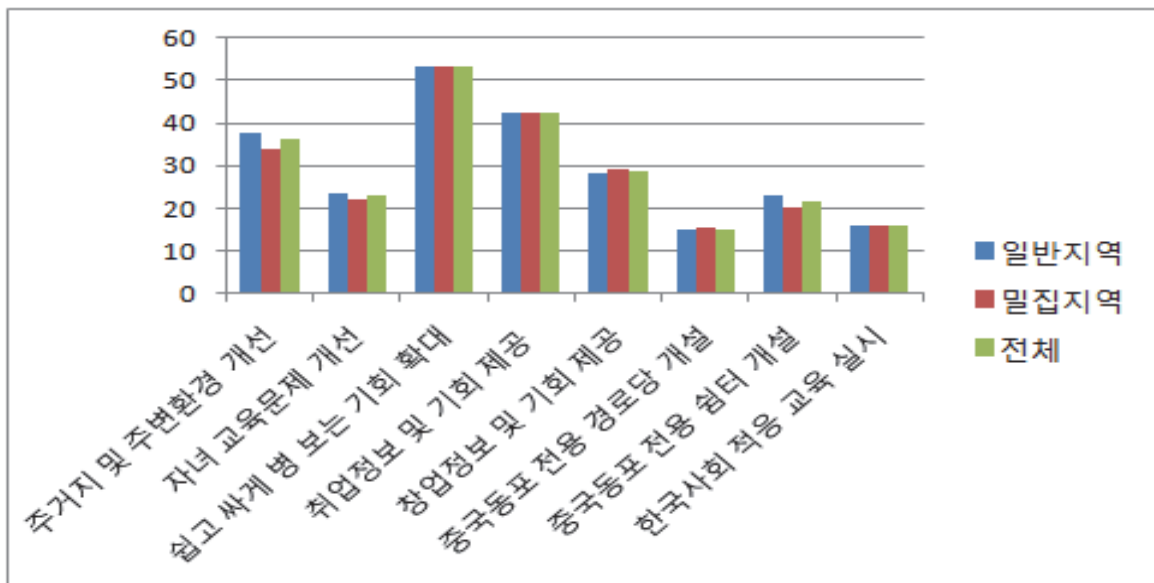
문93) 서울시에서 중국동포를 위해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복수응답)

〈표 3-6-17〉 서울시에서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문제(지역구분)

(단위: %)

구분	주거지 및 주변환경 개선 (N=384)	자녀 교육문제 개선 (N=385)	쉽고 싸게 병원진료 받는 기회 확대 (N=385)	취업정보 및 기회 제공 (N=385)	창업정보 및 기회 제공 (N=385)	중국동포 전용 경로당 개설 (N=385)	중국동포 전용 쉼터 개설 (N=385)	한국사회 적응 교육 실시 (N=385)
일반 지역	37.8	23.5	53.5	42.2	28.3	14.8	23.0	15.7
밀집 지역	33.8	21.9	53.5	42.6	29.0	15.5	20.0	16.1
전체	36.2	22.9	53.5	42.3	28.6	15.1	21.8	15.8

〈그림 3-6-4〉 서울시에서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문제(지역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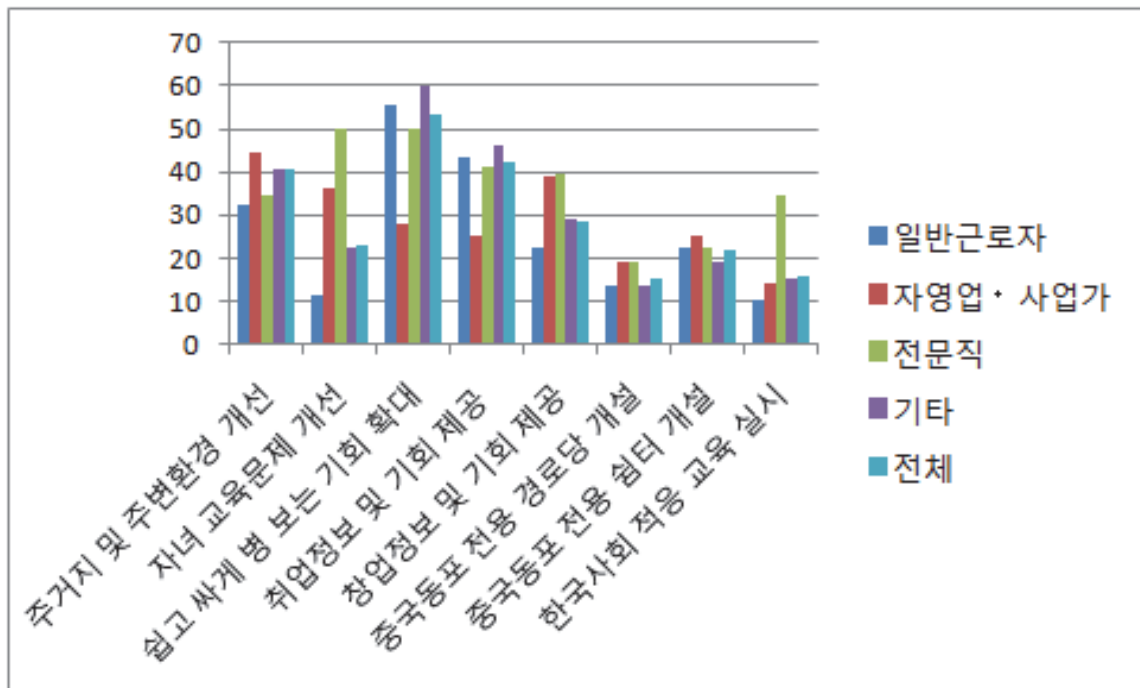


〈표 3-6-18〉 서울시에서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문제(직업구분)

(단위: %)

구분	주거지 및 주변환경 개선 (N=384)	자녀 교육문제 개선 (N=385)	쉽고 싸게 병원진료 받는 기회 확대 (N=385)	취업정보 및 기회 제공 (N=385)	창업정보 및 기회 제공 (N=385)	중국동포 전용 경로당 개설 (N=385)	중국동포 전용 센터 개설 (N=385)	한국사회 적응 교육 실시 (N=385)
일반 근로자	32.6	11.6	55.8	43.6	22.7	13.8	22.7	10.5
자영업·사업가	44.4	36.1	27.8	25.0	38.9	19.4	25.0	13.9
전문직	34.5	50.0	50.0	41.4	39.7	19.0	22.4	34.5
기타	40.4	22.7	60.0	46.4	29.1	13.6	19.1	15.5
전체	40.4	22.9	53.5	42.3	28.6	15.1	21.8	15.8

〈그림 3-6-5〉 서울시에서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문제(직업구분)



전체적으로 보면 쉽고 싸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기회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그 다음으로 취업정보 및 취업기회 제공 그리고 주거지 및 주변환경 개선에 관한 요구가 높게 집계되었다.

## 7. 소결: 실태조사의 함의

### 1) 기존 정책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있음에도 중국동포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동포들은 주로 가족이나 중국동포 출신지인 연결망을 활용하기에 한국 정부의 여러 정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전에 기존의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홍보의 내용과 방법은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다.

- 자녀 교육문제의 경우, 지역 학교 선정, 입학시 필요서류, 입학과정, 교학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
- 여러 가지 건강 및 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 임신부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 이런 홍보는 기존에 중국동포가 자주 활용하는 중국동포 언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이런 홍보는 기존에 잘 조직된 중국동포 단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 2) 주거에 대한 부분

주거 환경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중국동포 모든 개인에 대해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탈북자에 대해서 초기 정착 지원이 있는 것에 반해, 중국동포 국적 회복자(일반 귀화 아님)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다. 이에 대해서 중국동포 국적 회복자들이 문제제기를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기에 예산 문제를 비롯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중국동포들은 기본적으로 주거 및 주변 환경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중국동포 주거에 대한 정책은 계층별로 특화 시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특정 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저소득 및 고령자)의 경우 쉼터 등 거주시설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시설을 신설하거나 기존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회복한 중국동포들도 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 중국동포 노인 경로당이 집거지를 중심으로 많이 필요하다.
- 집거지의 경우 중국동포들이 주거 뿐만 아니라 평소 활용 가능한 활동공간이 필요하다. 개인 혹은 가족 단위의 주거 외에 활동공간의 부족으로 길거리가 복잡하고 소란스럽다.
- 밀집지역 전체에 대한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지역 발전 사업으로 “중국동포 음식 문화의 거리”와 같은 문화 특화 사업을 추진하여 그 지역 내의 한국인, 중국동포 및 기타 이주민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사업가나 전문직에 대한 부분

사업가나 전문직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한국 유학을 경험하고 한국의 회사에 취업했거나 한국에서 창업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동포 이주민 사이에서 형성한 사업가와 직접투자를 통해 사업을 시작한 경우이다. 이들은 소득을 포함해서 많은 면에서 중국동포 일반근로자와 상이한 삶의 환경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요구하는바 역시 중국동포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 이런 계층 혹은 직업군에 속하는 중국동포들은 최소한 중국동포 사회 내에서의 엘리트로 자리매김 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고, 자신들의 인적 사회적 자본을 더욱 많이 축적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새로운 경제적 성공을 가능케 할 인프라 구축에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취업, 창업 설명회 혹은 아카데미 개설 등이다.
- 이런 계층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단체나, 행사에 관심을 가져주고 지원 해 줄 필요가 있다.

#### 4) 종합적 함의

- 중국동포의 체류 안정화로 과거에 비해 생활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 개인의 이주가 아닌 가족 이주로 여러 가지 가족 복지도 형성되고 있다.
- 한국에서의 노동뿐만 아니라, 소비와 저축이 늘어나고, 중국으로의 송금이 줄어들고 있기에 경제적 기여가 커지고 있다.
- 따라서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닌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중국동포가 한국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 8. 생활 실태의 거시적 결정 요인들

### 1) 체류 자격

이주민 사회 구성원에게 있어 체류국에서 부여하는 체류 자격은 그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자격이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대부분의 중국동포가 불법체류의 신분으로 모든 의무와 권리와 같은 사회경제적 제도의 밖에 놓여 있었다. “재외동포법”의 제정 및 개정과 그 이후의 “방문취업제”는 중국동포들을 제도의 틀 내로 포섭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하고 거주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했던 것이다. 물론 아직도 여러 가지 차별 기제가 작동하고 있으나 중국동포들에게 있어 체류자격의 상대적 안정화는 과거에 비해 이들의 삶의 양상을 바꾸어 놓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 2) 가족

개인 차원의 법적 시민권을 부여되면서 이는 일련의 연쇄이주를 야기하였고 가장 미시적인 부분에서 가족의 재결합까지 가능하게 했다. 과거 개인 이주와 불법 체류의 신분에 비해 가족이 재결합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이들의 거주, 가족 복지 및 돌봄, 사회경제활동, 교육, 사회참여 등 거의 모든 생활 실태에 영향을 미친다.

### 3) 중국동포 내부의 사회경제적 분화

2000년대 초중반까지 한국의 특정 산업에 단순인력으로 고용되었던 중국동포들은 급속하게 사회경제적 분화를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도 수집되었듯이 이미 자영업자나 유급피고용자가 있는 사업가로 된 중국동포들도 있다는 것이다. 즉 중국동포 사장이 중국동포를 고용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도 한국의 1차 노동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는 과거 한국의 2차 노동시장에서 단순노무에 종사했던 중국동포들이 다양한 직업, 다양한 계층에 분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계층적, 직업적 차이는 상기 정책적, 제도적 요인과 마찬가지로 중국동포의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 IV. 서울시 중국동포 정책수립 제안

### 1. 서울 거주 중국동포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

#### 1) 기존 외국인주민 정책과 어울리되 구별되는 중국동포 정책 도입

##### (1) 타 외국인과 구별된 중국동포들만의 별도 정책의 필요성

국내 중국동포 집단은 외국인인면서 동시에 재외동포이기도 하고 국적을 회복 혹은 취득한 내국인이란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외국인과는 사회문화적으로 그리고 인구 규모면에서도 커다란 차이가 있는 집단이다. 앞서 실태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중국동포들은 심리적으로 한국인과는 가깝게 느끼고 있지만 다른 외국들과는 멀게 느끼고 있다.<sup>24)</sup> 이런 결과로 볼 때, 중국동포와 다른 외국인주민을 같은 범주로 다루는 현재의 정책은 실행과정에서 심리적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외국인주민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중국동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조사에서 나왔듯이, 국내 중국동포들은 주민관계, 경제기반, 문화 적응, 주거환경 등 여러 면에서 전면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어떤 외국인 집단에 비해서도 더 많은 사회통합의 조건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 따라서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이 뒷받침 된다면 국내 이주민 집단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사회통합의 사례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국내 외국인 이주자 집단에 대한 정책은 주로 “다문화”란 이름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이런 “다문화” 정책이 많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한국은 앞으로도 그러한 다문화 정책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중국동포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다문화”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고, 심리적으로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다수 중국동포들은 자신들이 다른 외국인 집단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구 규모에 있어서도 서울시의 중국동포 집단은 전체 서울체류 외국인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집단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동포들만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정책은 “다문화”란 이름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중국동포”나 “재외동포” 등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 3장의 <표 3-5-9>에서 <표 3-5-30>에 이르는 실태조사 결과를 참조.

## (2) 기존의 다문화 정책 안에서 중국동포의 특화된 정책

현재 중앙의 각 부처 및 조정기관을 살펴보면 대부분 외국인, 다문화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앞으로도 다문화사회로의 지향이 큰 흐름으로 볼 때, 다문화정책의 기본 틀은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동포 주민에 대한 정책은 기존의 다문화 정책이나 외국인주민 정책과 잘 어울리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국동포만을 위한 별도의 제도적 절차나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존의 다문화 정책 안에서 중국동포에게 특화된 정책을 찾아내도록 한다. 다만, 다문화 정책 안에서 특별히 중국동포와 관련된 행사나 지원에서는 되도록 “다문화”란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현재 “다문화”나 “글로벌”이란 이름으로 진행 중인 많은 사업 속에 “동포”라는 이름을 갖는 행사를 포함시킨다면 좀 더 포용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증대시킬 수 있어 효과적 사업이 될 것이다.

## (3) 한국 거주 귀환동포에 대한 지원과 인식의 전환

한국의 재외동포 지원정책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고, 한국으로 귀환한 동포들은 제외되어 있다. 그래서 재외동포들은 역설적으로 외국에 거주할 때는 동포라고 인식되지만 국내로 들어오면 외국인 취급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 들어와 체류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재외동포가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다 일관된 정책적 준비가 요구 된다.

## (4) 귀환 동포들 간의 차별을 최소화하는 정책

현재 국내에는 세계 가지에서 국내로 귀환한 동포들이 많다. 그런데 사할린동포나 북한이탈주민 같은 재외동포는 정부로부터 주거를 비롯한 정착 지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2013년 9월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려인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광주시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같은 재외동포지만 중국동포들은 이러한 지원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동포의 경우와 비교해도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재미동포들은 재외동포비자(F-4)를 쉽게 받는 것에 비해, 중국동포들은 재외동포비자를 받기가 매우 까다롭다.<sup>25)</sup> 이런 제도적

25) 한국정부는 방문취업제와 같은 중국동포 단순인력의 한국 입국을 제도화 하면서 한국어 시험을 보게 하였고, 만약 방문취업제의 대상자가 안 되면 입국 후 '기술연수교육'을 실시하여 국가가 지정했거나 허락한 학원에서 소위 전문분야 기술지식을 습득하게 하였다. 경제활동 또한 국가가 지정한 산업영역에서만 가능한데 합

차이 외에도, “교포”와 “동포”와 같이 다른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문화적 차원에서의 차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언론에서는 한국인과 재미동포가 결혼하였을 경우 다문화가정 혹은 다문화가족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문화의 대상에 포함될 것 꺼려하는 중국동포임에도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동포 다문화가정이라는 식의, 미디어의 형상화는 중국동포들을 해외 동포 범주 내에서, 계속하여 소위 선진국의 동포와 비교되고 빈곤과 하층 집단으로 정형화 한다. 귀환 동포들 사이의 이러한 차별은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야기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귀환한 동포들 간의 차별이 최소화 되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 (5) 전담부서 도입

장기적으로는 국내 중국동포를 전담하는 독립된 인적, 제도적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런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출입국사무소에는 중국동포 전담코너가 있다. 이는 모든 외국인 집단 가운데서 중국동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마찬가지로 서울시나 경기도 등 중국동포주민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중국동포를 위한 종합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 2) 시혜적인 정책을 넘어 동포들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

### (1) 현 중국동포의 현황에 대한 직시

본 조사는 대다수 중국동포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고 국내 생활에 대한 만족도 또한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사업을 벌이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다. 물론 여전히 경제적 여건이 미흡한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지금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단순한 생활 지원보다는 이들이 “동포”로서 그리고 “이웃”으로서 당당하게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웃으로 인정하다는 것은 바로 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동포들에 대한 지원은 이들이 차별당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

법적으로 체류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정된 산업영역 이외에서 취직하면 불법 취업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중국동포들은 “재미동포가 한국에 오려고 해도 한국어 시험을 봐야 하는지?”, “한국에 온 다음에도 ‘기술연수교육’을 받아야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를 반문하면서 법적으로 평등하다고 했음에도 출신 지역과 계층적 지위에 따라 차별받는 현실을 성토했고 있다.

**(2) 정책의 수혜자에서 정책 시행의 참여자로**

중국동포를 이웃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이들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책의 수혜자로 보는 시각에서 함께 정책을 만들고 정책 시행의 참여자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중국동포의 인적 자원 활용**

국내 중국동포 사회도 점차 내적으로 성숙하고 있다. 많은 단체가 생겨나고 있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봉사활동을 전개하면서 건전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따라서 정책도 이에 맞춰 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동포를 상대로 하는 각종 행정서비스나, 행사, 그리고 교육에서 한국인 전문가나 활동가뿐만 아니라 중국동포 활동가, 전문가, 혹은 관련단체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중국동포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sup>26)</sup>

이와 더불어 최근 중국동포들 가운데는 투자나 창업의 기회를 찾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노력과 관심이 실현될 수 있도록 창업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3) 한국인 주민과 중국동포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화합할 수 있는 방향****(1) 이웃이 될 수 있는 정책**

국내 중국동포들과 일반 한국 주민들이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 따르면 중국동포들은 한국인 이웃과 보통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중국동포들은 한국사회가 기본적으로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인 주민들은 중국동포들이 들어와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을 대체로 환영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인 주민과 중국동포 주민들 사이에 화합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런 노력은 특히 중국동포가 밀집한 지역에서 더욱 필요하다.

**(2) 이미지 개선**

주민들 사이의 상호 이해와 화합을 위해 홍보와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 홍보는 상호간에 가질 수 있는 오해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한다.

26) 특히 동포 차세대 인적 자원 활용에 관해서는 이진영·박우(2013) 참조.

### (3) 생활정보 안내

중국동포들이 한국이라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각종 정보와 더불어 각종 규범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입국이나 거소 신고시 중국동포들이 각종 생활 정보와 기초질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소수자에 대한 시선 전환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소수자들이 느끼는 차별과 소외가 매우 심각하다. 이것은 한국사회가 지나치게 경쟁을 추구해 온 결과이다. 따라서 오늘날엔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존중과 그들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욱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홍보는 또한 한국인 주민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홍보가 한국인들에게 역차별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설득력을 갖춘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 (5)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 활성화

공동 활동의 기회를 늘려나간다. 중앙정부 차원의 활동뿐만 아니라 시, 구, 그리고 동 차원에서 중국동포와 일반 한국인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나 봉사활동의 기회를 점차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 (6) 밀집 지역의 특수성 고려

대림동과 가리봉동과 같은 중국동포의 밀집지에서의 주민 갈등은 주로 소음, 쓰레기 등과 같은 각종 기초 생활 질서의 문제에서 야기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초질서 교육과 더불어 유동인구를 고려한 적절한 편의시설의 제공과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들 문제의 원인은 한국식 생활질서에 대한 중국동포들의 인식의 부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유동인구의 규모에 맞는 쓰레기통과 화장실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중국동포 단체들도 자원봉사를 통해 힘을 보탬 수 있도록 그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내는 것도 필요하다.



## 2. 중국동포 생활환경 개선 방안

### 1) 정책 분야별 개선 대책 및 추진 방안

#### (1) 주거

##### ① 밀집지 주거환경 개선

실태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현재 서울거주 중국동포들의 주거문제는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80% 이상의 중국동포가 보통 이상의 주거 만족도 갖고 있다. 거주지 환경에 대해서는 밀집지역보다 일반지역에서 사는 중국동포들의 만족도가 다소 높다. 하지만 밀집지역과 일반지역 모두 주변소음,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주차문제, 그리고 공중화장실 부족과 치안문제를 대표적인 불편사항으로 꼽고 있다. 이 가운데 주변소음 문제와 화장실 부족 문제는 밀집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이것은 대림동과 같은 밀집지역의 식당과 상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밀집지역에서의 소음문제와 화장실 부족문제는 무엇보다 많은 유동인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공공질서에 대한 교육과 홍보와 더불어 공공화장실의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본 조사에 따르면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는 밀집지역보다 오히려 일반지역 중국동포들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밀집지역의 한국인 주민들이 가장 불평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인 만큼 밀집지역에서 우선 풀어가야 할 것이다. 현재 대림동의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내문을 통한 계도와 함께 중국동포 경노당에서 매일 골목길 청소를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런 중국동포 단체들과 더불어 길거리 청소 문제를 풀어간다면 보다 쓰레기 문제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문제 또한 많은 유동인구의 문제이기도 하다. 대림동과 가리봉동에서는 저녁시간이나 주말이 되면 많은 모임과 행사가 벌어진다. 따라서 주말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말 봉사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식당과 상가에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② 쉼터 등 거주 시설 지원

본 조사에 따르면, 중국동포들의 주거 유형은 반지하 빌라 15%, 지상 빌라 56%, 아파트 9%, 본인 가게 3%, 일터나 기숙사 4%, 쉼터 4%, 고시원 2%, 그리고 기타가 7%였다. 비록 이들의 주거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일반 한국인을 기준으로 본다면 여전히 질 낮은 주거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없는 경우이다. 최근 들어 중국동포들이 가족단위로 거주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연고 없이 혈혈단신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 가운데는 취업하기 전까지 마땅한 주거공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에게 쉼터와 같은 공동체 생활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2014년에 중국동포 7만 명이 새로 입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국내에 연고가 없는 이들에게는 쉼터가 필요하다. ‘중국동포’쉼터는 숙식을 해결하는 공간이며 또 취업정보를 얻고 체류관련 제반 정보들을 얻는 중요한 공간이다. 그런데 현재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쉼터’의 시설은 열악하다. 교회에서는 운영하는 쉼터는 대부분 큰방에 10여명이 함께 투숙한다. 동포단체에서 운영하는 쉼터는 이용자는 많으나 공식적으로 허가 받고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탈 없이 운영되고 있지만 관련시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 쉼터운영자 인터뷰 (K씨: 남 56세)

쉼터 운영 시작한지 2년째 된다. 주로 최초 입국자들이 취업하기 전까지 많이 이용한다. 쉼터 수용가능 인원은 최대 35명인데 평소에 30명 정도 이용하고 있다. 대림동 일대에 쉼터가 몇 개 있다. 그러나 모두 허가 없이 운영하고 있다. 숙박시설 요구조건에 맞춰 운영하면 이용료가 당연히 비싸지는데 중국동포들이 비싼 이용료를 내면서 쉼터를 이용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

〈표 4-2-1〉 현재 중국동포 이용 센터

기관명	소재지	수용인원	이용료	비고
지구촌사랑나눔	가리봉동	100명(남/여)	무료	종교기관
한중사랑	가리봉동	100명(남/여)	4천원/일	종교기관
서울조선족교회	구로	40명(여)	2천원/일	종교기관
귀한동포연합총회 센터	대림2동	35명(남/여)	8천원/일 (식대포함)	동포단체
조선족연합회‘우리집’센터	은평구	40명(남/여)	3천원/일	동포단체

위에 나타난 것처럼 현재 센터의 수와 규모가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무료 센터는 한 군데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2) 교육

본 조사에 나타난 국내 중국동포들 자신과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 또한 대부분 보통 이상으로 불만이 높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대부분 한국에서 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일반 근로자들의 교육만족도가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많은 중국동포들이 더 많은 교육에 대한 기회를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자녀들과 함께 입국하는 사람이 늘면서 어린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조사에 따르면, 자녀들이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서 중퇴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한국사회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 높은 나라이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들 자녀들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바로 서툰 한국어의 문제이다. 대다수 중국동포와 그 자녀들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중국동포의 한국어와 일반 서울사람의 한국어는 방언, 말투, 억양, 그리고 어휘 등의 차이로 인해 쉽게 구별된다. 이런 한국어 문제로 인해 학교에서 한국 학생들로부터 차별을 받거나 따돌

림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받아 중국동포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을 여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3) 의료

이번 설문조사에서 중국동포 48.3%가 어떤 의료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문제로 병원방문을 꺼리는 사람들도 많았다. 따라서 중국동포들에 대한 생활지원 가운데 가장 시급한 분야가 의료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적 취득자나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생활난 혹은 미취업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 동포 그리고 금방 입국하여 의료보험에 미처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병원 이용 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데 중국동포 단체들 사이에서 중국동포들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 중국동포한마음협회가 그 좋은 사례이다. 2013년 초, 중국동포한마음협회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과 MOU를 체결하였는데, 이로서 강남성심병원은 위 협회에서 추천하는 어려운 중국동포 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의료보험 미가입 동포들에 대해서는 보험가격을 적용해주고 있다. 이 협정으로 현재까지 20여 명의 어려운 중국동포들이 협회의 추천서를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이러한 절차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중국동포 단체나 언론사와 협정을 맺을 의향이 있는 가까운 지역 병원을 연결해 준다면 취약계층 중국동포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위기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제도와 같은 서비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 홍보도 필요하다.

### (4) 정책의 홍보

앞서 설문조사에 나타났듯이 국내 중국동포들은 다방면에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아직도 부족하긴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외국인주민을 위한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많은 좋은 정책이 홍보의 부족이나 효과적이지 않은 홍보로 인해 중국동포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국동포들은 인터넷 미숙 등 이유로 국내 체류, 취업, 생활, 교육, 의료, 금융, 유학,

관광, 창업 등 분야에서 자신한테 필요한 정보를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동포 관련 정책 및 일상생활에서의 정보 습득 부재로 실생활에서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되며 필요하거나 좋은 정책이 있어도 몰라서 간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국내에서, 서울시에서 거주하면서 관련 정책과 정보를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산재해 있는 정보를 취합하여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 ① 기존 정책의 통합적 홍보 사이버 공간 신설 혹은 확대 -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 기능 확대

현재 서울시는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어, 중국어 등 다국어로 서울시 외국인관련 행사 안내, 체류, 생활, 취업 등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관련 홍보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외국인행사 안내도 서울글로벌센터 주관 행사만 홍보하고 있다. 기타 지자체 외국인, 다문화 관련 행사, 중앙부서 외국인관련 정책, 행사 등은 제외되어 있다. 또한, 체류, 교육, 의료, 취업, 생활 등 정보도 개관식으로 너무 간단히 소개되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 기능과 내용을 확대하거나 이에 중국동포들만을 위한 정책 홍보, 정보 제공 사이버 공간 신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 ② 지역 동포 언론 활용 - 중국동포타운신문 등 서울 전 지역 무료배포

정책의 홍보에 있어 유용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신문, 특히 국내 중국동포 신문이다. 본 실태조의 미디어 접촉빈도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sup>27)</sup> 중국동포들은 핸드폰, TV, 컴퓨터와 더불어 신문을 자주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신문은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고 인쇄된 형태라는 점에서 다른 미디어에 비해 홍보 효과가 큰 수단이다. 현재 한국에는 20여 종류의 재한중국인, 중국동포 관련 신문사가 있다. 중국동포들은 동포 관련 정책, 한국생활상식 등을 주로 이들 신문을 통해 접하게 된다. 한글 신문으로는 중국동포타운신문, 한중동포신문, 동북아신문, 한민족신문, 중국동포신문, 동포세계, 중한뉴스, 흑룡강신문, 길림신문 등이 있고 중국어신문으로는 한중법률신문, 정보신문 등이 있으며 모든 신문사가 서울시에 위치해 있다. 이들 신

27) 3장의 <표 3-5-5> 참조

문, 특히 중국동포타운신문과 같은 경우는 중국동포들이 집거하는 서울 서남부 지역은 물론, 천호동, 마장동, 건대입구, 동대문, 용답동, 이문동, 이태원동, 중화동 등 중국동포들이 소규모 집거하는 지역 전체에 신문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실제로 설문지 응답 결과를 보더라도 동포관련 신문 중 중국동포타운신문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또한 효과적인 정책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들 신문과 더불어 “중국조선족대모임”<sup>28)</sup>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정책 홍보를 하게 되면 가장 정확히 전달되게 되고 가장 많은 동포들이 접하게 될 것이다.

〈표 4-2-2〉 중국동포 관련 주요 언론

연번	매체명	홈페이지
1	한중동포신문	<a href="http://www.kcn21.kr/">http://www.kcn21.kr/</a>
2	동북아신문	<a href="http://www.dbanews.com/">http://www.dbanews.com/</a>
3	중국동포타운신문	<a href="http://www.dongpotown.com/">http://www.dongpotown.com/</a>
4	한중법률신문	<a href="http://www.lawck.com">www.lawck.com</a>
5	흑룡강신문	<a href="http://www.hljxinwen.cn/">http://www.hljxinwen.cn/</a>
6	한민족신문	<a href="http://www.hmzxinwen.com">http://www.hmzxinwen.com</a>
7	길림신문	<a href="http://www.jlxcwb.com.cn">http://www.jlxcwb.com.cn</a>
8	동포세계	<a href="http://www.jlxcwb.com.cn">http://www.jlxcwb.com.cn</a>
9	중국동포신문	<a href="http://www.dongponews.kr">www.dongponews.kr</a>
10	정보신문	<a href="http://www.infonews365.com">www.infonews365.com</a>
11	중한뉴스	
12	한중타임즈	

### ③ 지역 동포 단체 활용

2007년 방문취업제와 2008년 재외동포자격부여를 시작으로 중국동포들은 법적지위, 즉 체류자격 문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단체, 동호회를 설립했다. 4대 단체로는 “재한동포연합총회”, “귀한동포연합총회”, “중국동포한마음협회”,

28) <http://cafe.daum.net/yanji123>

그리고 “재한조선족연합회” 등이 있으며 이외에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한민족연합회”, “중국연맹총회”, “다문화축구총연합회”, “대한아리랑경로당연합회”, “중국동포문인협회”, “중국동포교사협회”, “재한조선족청년연합회” 등 단체가 있다.

이들 단체들은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천 명의 회원을 갖고 있어 문화행사, 체육행사, 민속행사 등의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정책 홍보를 비롯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 하게 되면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

#### ④ 밀집지역 시정 홍보 게시판 신설 및 활용 - 유동인구에 대한 홍보효과

2, 7호선 대림역, 7호선 남구로역, 1호선 구로역, 7호선 건대입구역 등은 매일, 특히 매주 일요일이면 수만 명의 동포들이 찾아 모이는 곳이다. 이들 전철역 출입구, 특히, 대림역 12번, 9번, 8번, 6번, 3번 출구, 남구로역 3번, 4번, 2번 출구, 건대입구역 6번 출구, 구로역 1번 출구 지역에 시정 홍보 게시판을 신설하여 활용하면 좋은 홍보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아울러 대림동 중앙시장, 신대방길, 가리봉동삼거리, 구로시장, 동일로18길, 창신길 등 밀집지역에도 설치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 2) 중국동포 계층별 정책 추진 방안

### (1) 유학생

#### ① 출산과 양육지원

유학생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의료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은 편이다. 특히 한국에서 석사, 박사과정으로 유학기간이 길어짐으로써 결혼유학생들의 출산, 양육 등의 환경도 어려워진다.

유학생A의 고충을 들어보면, “서울대학교박사과정으로 들어와서 첫 2년은 학교기숙사에서 잘 적응하고 살았다. 하지만 박사과정이 길어지면서 기숙사는 최대한 2년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고, 만약 계속 사용하자면 더 높은 비용을 추가해야 하였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자, 장모까지 중국에서 와서 출산과 양육을 도와주어야 하였다. 할 수 없이 낙성대 부근의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작은 방 두 칸에서 장모, 처, 그리고 아이까지 네 사람이 살았다. 그리고 이후에 처남이 한국에 왔고, 장모는 처남의 아이를 돌보야 해서, 아내가 휴학하고 아이를 돌보다 보니, 유학은 더욱 길어지게 되었다. 유학하면서 아이도 키워야 하고, 학업도 마쳐야 하기에 스트레

스가 매우 컸다. 무엇보다 아이가 태어나자 황달병이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입원비가 많아 고생했다.

이처럼 대학원에 재학중인 유학생, 특히 여학생들은 출산 및 그 자녀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유학생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성적이 우수한 유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지, 경제적 여건이 힘든 유학생들에 복지차원의 지원은 적다. 유학생들과 인터뷰에서 일부 유학생들은 선진국에 유학하면 양육수당을 지원받음으로써 유학국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매우 높아진다고 얘기하고 있다. 설사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매우 나쁘지만, 일본에서 유학한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유학한 유학생들보다 자신이 유학한 국가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장학금과 같은 교육 지원 뿐만 아니라, 양육수당과 같은 복지 지원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런 양육지원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조사에 따르면 영주권을 갖고 있는 중국동포 유학생의 경우, 한국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시행된 양육수당이나 영유아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세금을 내고 있는 이러한 영주권자에 대한 복지 수혜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외국인 임신 여성도 받을 수 있는 “고운맘카드”와 같은 제도가 잘 알려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

## ② 교육 및 문화 지원 및 자원 활용

유학생들에 있어서 교육 및 문화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문화는 그 유학한 국가와 도시의 브랜드이미지 창출에 긍정적 효과를 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매력적인 글로벌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문화의 다양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 K-POP을 통한 한류의 세계화, 한국 드라마의 세계화, 한국 영화의 세계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이 동포유학생집단이다. 그중에서 중국동포 유학생의 역할은 매우 크다. 예컨대, 중국동포영화감독 장울은 “풍경”이란 다큐를 찍었는데, 서울의 구로지역의 동포밀집지역을 다루면서 거주민과-중국동포의 소통의 공간으로 재현하려는 노력이 있다. 여기에 일부 동포유학생들도 참여하였는데, 동포 유학생들이 영화, 음악, 도서, 드라마 등 한국문화번역의 중요한 행위자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전공을 갖고 있는 동포유학생들을 분야별로 서울시 홍보-자원봉사자DB



를 구축하여, 서울시의 국제문화예술행사에 동포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재교육, 창업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 검증된 유학생들을 선발하여 문화-예술창작의 주체로 육성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동포유학생들이 국내체류 동포문화창조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동포밀집지역의 공간의 디자인, 동포축제,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창조인력을 육성하는 것이다.

## (2) 국적회복 및 귀화자

현재 국내체류 중국동포 중 결혼, 귀화 그리고 국적 회복을 통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약 10만 여명이라고 추산되고 있다. 귀화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평균 연령이 40대<sup>29)</sup> 이상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이 취약하다. 특히 국적회복자(1949년 이전 출생자)들 가운데는 생활여건이 아주 열악한 경우가 많다. 또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 취급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다.

### 귀화자 사례: B씨 (32세 여)

한국 국적 취득한 부모님 권유로 귀화신청을 했지만 중국국적을 포기해야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데 고민이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나도 한국에서 부모님처럼 살게 되지 않을까 싶다. 귀화했어도 외국인처럼 취급당하며 살아가는 부모님들을 보면 불쌍하다. 어차피 외국인 취급 받을 바에는 중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

위의 B씨의 부모는 동포2세로 귀화하는데 큰 어려움 없었다. 그러나 귀화 후에도 귀화 전에 비해 생활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주위사람들의 인식도 바뀐 게 없다. 오히려 50~60대 내국인들의 취직도 어려운데 한국에서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 경계의 대상이다. 귀화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귀화하였다면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안내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 선대들의 성공적인 정착은 후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독일 출신 이참, 미국출신 인요한 그리고 필리핀 출신 이자스민 등 귀화자들의 성공사례가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동

29) 국적필기시험 응시자 평균연령 참고

포 귀화자들의 성공사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중국동포 출신 귀화자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귀화신청자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귀화신청자들에게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국적 회복자의 사례: C씨 (76세 남)**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국적회복을 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감사하고 또 어렵다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혜택을 받아 감사하다. 그러나 중국에서보다 생활이 더 나아진 게 아니다. 보조금 혜택을 받지만 절반이상 월세에 쓰고 나면 생활비도 모자란다. 월세를 좀 아끼려고 지하방에서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중국에 있으면 초가집이라도 햇볕이 들어오는 집에서 살겠는데 그렇다고 이제 다시 중국으로 갈 수도 없고.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연로한 국적회복자들 가운데는 생계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귀화한 중국동포가 한국에서 정착을 잘 하려면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귀화를 하지 않은 중국동포의 경우 정부의 공공임대아파트를 신청할 수 없다. 그나마 귀화한 중국동포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신청할 기회는 갖지만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

중국에서는 초가집이라도 자기소유의 집이 있었고 햇볕 잘 들어오는 지상집이었던 것에 비해 한국에서의 주거환경은 열악하다. 이러한 이유로 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귀화중국동포들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채 중국에서 장기체류하는 경우도 있다.

비슷한 이주배경을 가진 사할린동포나 북한동포들에게는 주거정착지원제도가 있다. 중국동포의 국내에서의 초기 적응과 정착 어려움은 사할린동포나 북한동포와 마찬가지로 다르다. 따라서 적어도 주거 정착지원 만큼은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또한 최근 들어 중국동포들이 가족단위로 거주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연고 없이 혈혈단신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에게 쉼터 혹은 공동체 생활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을 정책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

### (3) 중국동포 노인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동포들의 활동은 주로 권익증진을 위한 집회였다면 방문 취업제도 실시이후부터는 문화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동창회, 동향회 등 자조모임 차원에서 회식하고 노래방 가는 수준의 여가 활동이었다. 이런 활동이 차츰 커지고 조직화 되면서 단체 문화탐방, 문화공연 등의 행사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행사를 조직하고 집행하기 위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모임장소이다. 이런 활동 공간의 부족은 모든 중국동포 단체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활동공간의 필요성을 가장 절실히 호소하는 것은 국적회복노인들이다. 이들은 내국인 노인들과의 잦은 갈등으로 기존의 경로당 혹은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영등포구, 구로구에서는 국적회복노인들을 위한 전용 경로당을 설립했다. 이는 국내 체류 중국동포들의 크나큰 자랑거리다. 노인들은 경로당에서 점심식사도 하고 건강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다채로운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적회복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설립으로 동포들에게 공공시설을 제공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지만 아직까지 공공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기존의 경로당 경우 전용공간이 너무 좁아 활동참여를 희망하는 동포노인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체별 상시 운영하고 있는 교육, 문화 활동 공간도 부족하다. 특히 양질의 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양질의 콘텐츠가 제공되고 수준 높은 강사가 섭외되어야 한다.

## 3. 중국동포 사회통합 방안

### 1) 동포들의 단체를 활용한 자율적 참여의 확대

조사에 따르면 모임이나 단체 활동 참여비율이 30%. 동창모임, 동향모임 등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최근 들어 비교적 큰 규모의 행사를 정기적으로 치르는 단체들이 나타나고 있다. 단체들의 규모가 커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실적을 인정받아 관청에 등록하는 단체도 생겨났다. 중국동포 관련 단체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4-2-3〉 중국동포 관련 단체

연번	단체명(설립연도)	주요사업	관청 등록
1	재한조선족연합회 (2002)	‘우리집’쉼터운영, 체류상담, 동포권익증진활동, 문화공연 등	-
2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2003)	유학생 정보교류, 학술회의 등 <a href="http://cafe.daum.net/kcn21">http://cafe.daum.net/kcn21</a>	-
3	조선족대모임 (2003)	온라인 정보교류, 모금활동 등 <a href="http://www.new93.net">www.new93.net</a>	-
4	귀한동포연합총회 (2006)	국적회복자, 귀화자 한국생활 적응·정착 지원 사업, 자율방법활동 등 <a href="http://cafe.daum.net/tonglian">http://cafe.daum.net/tonglian</a>	안전행정부
5	재한동포연합총회 (2007)	상인모임지원, 어르신경로잔치, 컴퓨터교육, 체류상담 등 <a href="http://www.koreadp.com">www.koreadp.com</a>	-
6	중국동포한마음협회 (2008)	각종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체육대회 등 <a href="http://cafe.daum.net/yitiaoxin">http://cafe.daum.net/yitiaoxin</a>	비영리법인
7	다문화축구총연합회 (2008)	KC리그 개최 <a href="http://cafe.daum.net/ckscup">http://cafe.daum.net/ckscup</a>	-
8	재한중국동포교사협회 (2010)	퇴직 교사 교류활동, 년 2회 정기모임	-
9	다문화중국동포배구협회 (2011)	배구동아리, 국내배구경기 참여	대한배구협회 등록
10	재한중국동포장기협회 (2011)	장기대회 개최	대한장기협회 등록
11	한중미래재단 (2012)	한중타임스 발간, 문화공연, 체류상담 등	-
12	재한중국동포문인협회 (2012)	‘동포문학’ 발간, 문인교류 활동	-
13	재한중국동포서예협회 (2012)	서예교실 운영, 서예 출판 등	-
14	한줄기봉사단 (2012)	자율방법활동, 집수리 봉사 등	-

이밖에도 “중국동포유권자연맹”, “대한아리랑경로당협회”, “두만강예술협회” 등 크고 작은 단체들이 설립되었다. 단체들은 중국동포의 권익신장과 이미지 쇄신 그리고 한국사회 정응 정착에 역점을 두고 있다. 아직까지 관청에 등록된 단체는 많지 않지만 동향모

임, 동창모임 수준을 넘어 직능별 단체로 발전해가는 과정에 있다. 일부 단체들은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의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민간단체로서의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다.<sup>30)</sup>

중국동포 단체들이 이처럼 급성장하게 된 데는 동포언론의 역할이 크다. 중국동포 언론과 중국동포단체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동포언론사도 20여개 되지만 대표적인 언론사로는 “한중동포신문”, “동북아신문”, “중국동포타운신문”, “길림신문”, “흑룡강신문”, 그리고 “한민족신문” 등이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무가지로 배부하는데 이는 동포들이 한국의 최신 정책을 쉽게 접하고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동포사회에 직능별 다양한 민간단체와 여러 언론사가 있음으로 하여 커뮤니티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동포사회가 발전하고 동포사회에 대한 내국인들의 인식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중국동포 단체 및 언론에 대한 역할과 기대가 높아졌다. 특히 국내 시민단체들과의 교류 및 연대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동포 단체와 언론사는 여러 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가장 힘든 부분은 단체 리더십 부재, 상근자 부재, 경영상 어려움, 사무 공간 부족 등이다. 따라서 서울시 차원에서 동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국동포 단체 및 언론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체 임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무 공간 제공, 민간단체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 2) 한국주민과 중국동포 소통, 공생, 교류방안

중국동포 주민과 한국인 주민간의 소통과 공생은 지역사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한남동, 이태원, 서래마을, 이촌동, 대림동, 그리고 가리봉동 등과 같이 외국인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들이 있다. 그런데 주로 서양인이나 일본인들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의 한국인 주민들은 이들 외국인들의 유입을 걱정하지 않는다. 지역주민들은 이들 외국인들은 소득수준도 높고 소위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 이미지도 좋아져서 집값 상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이 주로 밀집된 지역의 주민들은 이들 외국인들로 인해 지역사회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치안도 불안해지고 결국 집값도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가리봉동이나 대림동의 한국인 주민들은 그 지역에 중국동포들이 유입되고 있는 현상을 반

30) 국내 중국동포 단체의 형성과 변화에 관해서는 박우(2011) 참조.

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들 지역의 한국인 주민들은 점차 다른 곳으로 떠나고 있다. 한국인들은 중국동포들의 유입으로 교육환경이 나빠지고, 길거리 쓰레기 문제와, 소음과 같은 생활 속의 불편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동포의 유입은 동시에 지역경제는 활성화시키고 있었다. 가리봉동은 이미 재개발이 필요할 정도로 낙후된 지역이지만 중국동포의 유입으로 지역경제가 잘 유지되고 있다. 대림동 또한 중국동포들의 유입으로 상권이 발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이들 지역의 상가 임대료가 크게 상승했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안겨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의 전월세 시장도 활성화되었다. 이들 지역의 작은 단칸방이나 반지하방도 수요가 많을 뿐만 아니라 중국동포들은 집세를 밀리지 않고 현금으로 제 때 지불하기 때문에 한국인 주민들은 중국동포들의 유입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 주민들은 정서적으로 중국동포의 유입을 반기지 않지만 이들의 유입으로 인해 나타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밀집지역의 한국인 주민들은 현재 이렇게 양면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 주민과 중국동포 주민들 사이의 소통과 공생은 이런 밀집지역에서부터 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 주민과 중국인 주민들이 상대방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들은 줄여가고 긍정적인 인식들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 동포라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 활동

한국인 주민과 중국동포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는 동포라는 공감대 형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민족주의 담론의 홍보에 의한 방식 보다는 민속축제와 같은 문화활동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양한 민속은 한국에서도 중국의 조선족 집거지에서도 사라져가고 있다. 따라서 잊혀져가는 좋은 민속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전통문화의 부흥이라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특정한 지역 축제 과정에서 장기나 바둑 등 각종 민속놀이나 노래, 춤, 사진전, 서예전 등과 같은 예술활동을 벌임으로써 “동포”라는 공감대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2) 중국어 교실

한국인 주민과 중국동포들의 화합은 서로의 장점을 나누는 데서 시작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언어”의 교류다. 현재 밀집지역의 학교에는 중국동포의 자녀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학교는 매우 중요하고 자연스러운 문화교류의 장이 된다.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 학부모가 된 중국동포 주민들과 한국인 주민들이 중국어와 한국어를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 3) 중국동포 밀집지역 마을공동체 추진

#### (1) 서울시의 대림동 주거환경관리사업<sup>31)</sup>

##### ① 대림2동

대림동은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중국동포 밀집지역이다. 그 가운데서도 대림역이 있는 대림2동에는 중국동포를 고객으로 하는 각종 상가, 식당, 예식장, 여행사, 직업소개소 등이 집중되어 있어 “중국동포 타운” 혹은 “중국동포들의 수도”라고 불린다. 2013년 4월 현재 대림2동의 한국인 인구는 17,299명이며, 외국인 인구는 7,850명이다. 그리고 이들 외국인 인구의 대다수는 중국동포들이다. 그런데 현재 대림2동에는 귀화, 국적회복, 결혼 등을 통해 한국국적을 갖게 된 사람들이 2,740여 명이 있는데, 이들 또한 대부분은 중국동포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한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들을 포함하면 대림2동의 외국인주민의 인구는 10,630여 명으로, 전체의 42%에 이른다. 그리고 이들 대다수는 중국동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거주등록을 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곳에서 거주하는 중국동포의 수는 훨씬 더 많다.

그런데 대림2동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대림2동의 중국동포의 인구는 전체의 60%를 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곳을 방문하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대림2동에는 중국동포들을 고객으로 하는 은행, 식당, 여행사, 예식장, 노래방, 직업소개소, 그리고 행정사무소 등이 모여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살고 있는 중국동포들도 이곳을 방문하는 기회가 많다. 특히, 각종 모임을 갖기 위해 이곳을 찾는 중국동포들이 많아지는 주말이 되면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대부분이 중국동포라고 할 정도로 대림2동은 중국동포들의 밀집 주거지이자 국내 중국동포사회의 중심지다.

이렇게 대림동은 중국동포 인구뿐만 아니라 중국동포들의 자본, 기술, 문화, 정보, 그리고 각종 단체들이 집중된 일종의 “중국동포 타운”이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31) 대림2동의 사회문화적 특성 및 맞춤형 공동체 활동의 발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양한순 외(2013) 참조.

곳의 한국인 주민과 중국동포 주민들은 실생활에서 거의 마주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중국동포 대다수가 세입자로 살고 있지만 한국인 집주인을 알고 지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 ② 한국인 주민과의 관계

이곳 한국인 주민들은 한국사회가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자들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거의 밀리는 일 없이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중국동포 세입자들 때문에 자신들이 안정적으로 임대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을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한국인 주민들은 “선입견을 떨쳐 버리고 중국동포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이상적인 “다문화의 가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 주민들 가운데는 이러한 다문화담론보다도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크고 작은 불편함을 통해 중국동포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 주민들이 자주 지적하는 문제는 치안불안, 공공질서, 쓰레기, 그리고 소음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문제들이다. 그 중에서도 쓰레기 무단투기와 분리수거 문제는 주민들이 가장 짜증내는 문제이다.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국동포들 사이에서도 불만과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동포들은 중국동포들이 한국의 쓰레기 처리문화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입국하면서 혹은 거주등록을 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비롯한 기초질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림2동 쓰레기 문제의 또 다른 측면은 바로 많은 유동인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행사를 위해 모여 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소음을 비롯해 쓰레기, 공공질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 주민과 중국동포들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들 외에도 차별과 불안감과 같은 정서에서 기인한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중국동포들은 한국이 차별이 많은 사회이고, 직장이나 학교에서보다 일상의 사회생활에서 더 많은 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sup>32)</sup> 이러한 정서는 대림2동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정서이고, 이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런데 한국인 주민들은 한국인 주민대로 불만과 불안감을 갖고 있다. 한국인 주민의

32) 3장의 <표 3-5-31>과 <표 3-5-33> 참조.



불안감은 중국동포들의 문화적 이질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 주민들은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들은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주로 중국동포들과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런데 문화적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불만과 불안감은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중국동포들에게 이웃으로 호감을 갖고 있는 집단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 찬성과 매우찬성의 비율이 중국동포에 대해서는 47.7%, 한국인은 44.3%, 한족은 31%, 그리고 동남아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16.1%였다. 이는 중국동포들에게 있어 한국인 이웃은 다른 중국동포들 만큼 호감을 주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따라서 밀집지역에서 두 집단 간의 의사소통이 보다 활발하게 된다면 현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불안감, 그리고 불만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 ③ 마을 만들기

위와 같이 대림2동에서 한국인 원주민들과 중국동포들은 아직 화합하지 못하고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서로 만나거나 함께 생활을 공유하는 경우도 적다. 하지만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이 지역에 마을 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를 기회로 중국동포와 한국인 원주민이 함께하는 마을공동체가 순조롭게 형성되어 간다면 그것은 한국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2012년 11월에 시작된 이 사업은 10여 차례의 주민워크숍과 간담회를 거쳐 2013년 4월에 한국인 원주민과 중국동포 주민들이 함께하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다. 처음에는 협의체의 구성과 회관의 설립, 그리고 그 회관의 사용방식 등을 둘러싸고 마찰이 있었지만 함께 가을 마을축제를 준비하고 개최하는 등 이제는 합의를 잘 모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서울시 차원의 이러한 사업은 내국인들만으로 이루어진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다문화로 구성된 지역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의 사회로 통합되어 가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 (2) 가리봉동 문화공간 신설

쪽방이 많은 가리봉동의 주거환경 때문에 이곳에는 대부분 일용직 일을 하는 홀로 사는 동포남성들이 거주한다. 매일 새벽이면 최대 4,000명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이지만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이면 각각 집에 돌아가 잠을 청하거나 삼삼오오 모여 술로 하루를 시작한다. 아무런 문화공간 시설이 없는 이곳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여가생활은 술을 마시거나, 길바닥에 앉아 장기를 두거나, 불법소지가 있는 마작을 노는 것이다. 가리봉동 이미지, 지역사회와의 마찰 등의 주요원인은 바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원이나 기타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들의 건전한 문화생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3) 지역 이미지 개선 및 경제 활성화: 관광자원화

### ① 서울시 홍보 자료에 중국동포 타운 소개

현재 중국동포의 대표적 밀집지역인 가리봉동과 대림동은 중국동포들이 유입해 들어오기 전부터 경제적으로 “낙후된 곳”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동포들이 들어오면서 이들 지역의 경제는 사실 더욱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한국인 주민들은 떠나고 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들 지역이 소위 한국의 주류사회와 거리가 멀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이 지역에서 그들 자녀의 “경쟁력”을 키워줄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는 현대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정서이긴 하지만, 이런 정서가 꼭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정서는 한국사회의 주류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문화는 바람직하고 자랑스럽다고 여기고, 비주류라고 생각되는 주변인이나 소수자의 문화는 부끄러운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 그런데 이런 정서는 정부의 정책에서도 발견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관광정책이다.

현재 서울시의 공식관광정보 사이트인 “Visit Seoul”에 소개된 “인기지역”이나 “관광명소”에는 명동, 인사동, 광화문, 강남지역을 비롯한 서울의 대표적 문화, 경제 중심지 외에도 서래마을이나 이태원과 같은 다문화 지역을 소개하고 있다.<sup>33)</sup> 하지만 서울의 대표적 다문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림동과 같은 지역은 중국관광객을 위한 중국어 안내문에도 소개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대림동이나 가리봉동이 서울시

33) <http://www.visitseoul.net/>

의 홍보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지역은 부끄러운 곳이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항상 경제적 수준을 통해 주류와 비주류를 나누게 되고, 나아가서 사회적 통합을 저해시키고 계층적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대림동이나 가리봉동은 부끄러운 곳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소중한 곳이다. 귀환 이주를 한 중국동포들의 현재의 모습과 한국사회의 역동적 변화를 잘 보여주는 곳이다. 관광은 호기심에서 출발하여 그 사회에 대한 이해로 완성된다. 변화가나 백화점 뿐만 아니라 뒷골목이나 노점도 떳떳한 우리의 문화이고 매우 훌륭한 관광자원이다. 어떤 한 지역이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고 그 지역을 통해 그 사회를 잘 이해하게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관광지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독특하고 개성 있는 문화는 귀한 문화적 자원이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대림동과 같은 지역을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단순히 관광자원 개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 전환이란 효과를 낳게 되고 결국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 ② 찾아가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관광 자원화 정책

현재 대림동과 가리봉동이 갖고 있는 중국동포 밀집지역이라는 문화적 특징을 관광자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차이나타운을 조성해 왔다. 그리고 그 정책은 현재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 속의 중국을 경험하기 위해 차이나타운을 방문하고 있고, 그 지역 이미지도 크게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대림동과 가리봉동 지역은 지난 10여년 동안 자연스럽게 중국동포 타운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들 지역을 관광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광과 관련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설부른 투자는 오히려 지역사회와 지역문화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적절한 계획과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이들 지역도 서울의 대표적 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 가장 뚜렷한 문화적 자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음식이다. 이 지역에서는 중국 동북3성(길림, 요녕, 흑룡강)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중국에 체류했던 경험을 가진 한국인들 가운데는 중국음식을 먹고 싶어서 이들 지역을 찾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이들 지역을 중국음식의 거리로 홍보하고 간판

을 비롯해 거리를 조성하는 지원을 하게 된다면 좋은 인천의 차이나타운과 같은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을 방문하는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들 지역을 소개해 줄 수도 있다. 아울러 이들 지역에는 중국을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므로 소규모의 면세점의 유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4. 관리방안 및 기타

##### 1)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제언

###### (1) 재외동포법 전면시행

현재 중국동포의 문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재외동포법의 전면시행문제이다. 2004년 개정된 재외동포법에 의해 중국동포들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지만 국내의 일자리 잠식을 우려한 정부는 중국동포에 대한 전면적인 재외동포법 적용을 보류하고 주로 방문취업제도(H-2)를 통해 중국동포의 입국과 체류를 관리해 왔다. 그리고 동시에 적절한 선에서 재외동포(F-4)와 영주(F-5)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동포의 전체규모를 관리해 왔다. 그리고 특히 2012년부터는 방문취업비자의 만기로 줄어들게 되는 국내 중국동포의 규모를 대신 재외동포비자를 통해 늘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방문취업 자격을 가진 중국동포의 수는 286,896명이고 재외동포 자격을 가진 중국동포의 수는 78,546이었던데 반해, 2013년 10월 현재에는 방문취업 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227,852명으로 줄어들고 재외동포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150,096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앞으로 당면한 과제는 중국동포들에게 재외동포비자를 전면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냐이다. 여기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바로 중국동포들에게 재외동포비자를 전면 개방하면 국내의 일자리 상황에 커다란 영향을 주느냐는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추산해 볼 수 있다. 현재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들은 60여 만 명이다. 이는 2012년 중국 “조선족” 전체 인구 183만<sup>34)</sup>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는 중국 “조선족” 10명 가운데 3명이 한국

34) 2012년 중국 통계년감

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고, 그 대부분은 성인이다. 또한 현재 “조선족”은 중국내의 대도시로 이주해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박광성(2010)의 연구에 따르면 북경, 천진, 장강삼각주, 주장삼각주, 산둥을 비롯한 중국의 연해 도시에 살고 있는 “조선족”의 인구는 이미 50-55만에 달한다. 그렇다면 전체 183만 가운데 한국과 중국 산해관 이남의 연해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수와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할 경우, 현재 중국 동북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수는 60여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한국에 새로 입국할 중국동포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리고 최근 추적을 통해 방문취업제 비자를 받고 입국한 중국동포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족상봉이나 비즈니스 혹은 단순비자 마련 차원에서 신청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국내에서 장기체류하는 중국동포는 아무리 많아도 최대 70만 명 선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중국동포들에게 재외동포법을 전면 적용하여 입국을 원하는 중국동포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더라도 “내국인 고용보호가 어려워지는” 등의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재외동포법의 전면 시행은 또한 그 동안의 차별 적용에 따른 동포들 간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게 되고 중국동포들의 불법체류, 위장결혼, 위명여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재외동포법의 전면 시행은 이 법의 시행령에서 규정한 단순노무 분야의 취업제한 문제도 동시에 풀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부는 현명하게 그 시점을 잘 선택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중국인 관광객 유치 등에 중국동포 활용

2012년 4월부터 법무부는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게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즉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피부미용기능사, 세탁기능사, 창호기능사, 한식기능사, 중식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등 116개 업종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중국동포에게 장기체류 가능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재외동포법이 규정한 중국동포에 대한 동포자격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중국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중국동포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능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 시험 한과목만 보면 되지만 관광통역안내사자격증

을 취득하려면 중국어 시험 외에 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등 4개 과목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 하지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에게는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주지 않고 있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동포들은 중국과 한국문화에 익숙하고 소통의 문제도 없을뿐더러 관광을 통한 문화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에게 재외동포 자격 부여와 같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한중경제문화교류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3) 기초질서 및 정책 교육 지원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외국인 범죄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중국동포들과 관련된 범죄 뉴스가 언론매체를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로 인해 한국인 주민들이 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중국동포들도 문화의 차이, 습관의 차이, 제도의 차이로 금방 입국하였을 경우 무단횡단, 고성방가, 쓰레기 무단투기 등 기초질서의 위반으로 인해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게 된다. 따라서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동포들은 한국사회의 규범을 배우고 준수하도록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 입국하여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게 기초질서 교육을 하는 기관은 아무데도 없는 상황이다. E-9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와 H-2방문취업 동포들에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각기 다른 취업관련 3일 교육을 하고는 있으나 역시 기초질서 교육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와의 갈등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회통합차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3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동포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질서 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초질서교육을 이수해야만 외국인등록증 혹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

## 2) 기타 제안

### (1) 장기 정책방안 - 중국동포 복합문화공간 신설

중국 동북3성에서 조선족으로 살아왔던 중국동포들은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과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한국, 일본, 미국, 호주, 유럽 등 해외로, 북경, 상해, 청

도, 광주 등 대도시로 대거 진출하였다. 중국의 조선족마을은 노인들만 남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1,300여 소에 이르던 조선족학교들은 현재 300개도 남지 않은 실정이다. 중국동포들이 계승하고 지키고 발전시키던 민족 전통과 문화, 풍습과 민속들이 계승할 사람도 없고 지원도 없어서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 동북3성에는 용정시문화관, 심양시조선족문화관, 대련시조선족문화관, 목단강시조선민족문화관, 하얼빈시조선민족문화관 등 30여 곳의 중국동포 문화관이 있다. 그런데 중국동포 지역사회에서 전통문화의 중추 역할을 했던 이들 문화관이 현재는 지역 노인들을 위한 봉사단으로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사라져가는 중국 조선족 전통문화를 계승시킬 수 있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현재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가운데는 한국의 프로장기 9단보다도 강한 민속 장기 실력을 보유한 사람도 있다. 따라서 중국동포들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유지시킬 수 있도록 국내에서 이들 문화가 사라지기 전에 점검하고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울에 중국동포 복합문화관을 설립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라져가고 있는 중국동포의 민속관련 문물, 자료, 책자 등을 전시하는 “중국동포 민속박물관”을 비롯해서 중국동포 100년 이주사를 담은 “중국동포 이주박물관” 그리고 각종 중국동포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회관 등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건물의 임대나 매입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지원이나 기업체의 후원과 더불어 중국동포 사회의 자체 기금조성 등으로 충당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 (2) 단기적·소규모 및 저(비)예산 사업: 중국동포 단체를 활용한 정책사업

재한중국동포단체들은 현재 100여 개가 활동하고 있다. 동호회, 동향모임을 넘어 현재는 중국동포유권자연맹 등 정치단체, 중국동포한마음협회 등 큰 규모 복합단체 등도 활약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중국동포 법적지위 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동의 행사를 조직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대부분 경우 각자 운영을 하면서 동포사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중국동포 관련 단체들을 활용하여 정치적 요소를 제외한 공동의 사업으로는 우리 민족 민속관련 행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현재 한국에는 중국동포한마음협회, 귀한동포연합총회, 재한동포연합총회, 재한조선족연합회, 대한아리랑경로당연합회 등 큰 단체들은 물론, 중국동포서예협회, 다문화영상연합회, 한마음음악동호회, 신화밴드, 재한중국

동포장기연합회 등 문화관련 단체들이 있어 ‘중국동포민속문화축제’와 같은 행사를 저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민요노래자랑, 씨름, 장기, 전통악기연주, 서예전, 사진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① 시민의식 고취 사업

#### ■ 추진목적

- 서울 장기 거주 동포들이 주민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서울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함.

#### ■ 추진계획

- 서울 바로 알기 사업(교육, 탐방, 수기공모, 골든벨 퀴즈대회 등)
- 동포단체 활동가들을 위한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
- 지역사회 NGO, 봉사단체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 전입신고자를 위한 지역사회 안내책자 배부(집거지 중심으로)

#### ■ 사업효과

- 동포밀집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
- 동포들도 살고 있는 동네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동네 이슈(예:쓰레기 트기 문제 등)에 적극 참여를 유도.

### ② 교육지원사업

#### ■ 추진목적

- 학령기 중국동포 자녀들이 국내에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함.
- 조기 국내 교육을 통해 동포 자녀들의 정체성 함양 신장

#### ■ 추진계획

- 학부모를 위한 교육 설명회
- 동포밀집지역 학교(초, 중, 고)에 동포 특별반 신설 및 지원



- 지역 청소년 시설을 이용한 방과 후 교육 지원(한국어, 예체능 등)
- 학부모, 자녀 상담 지원

- 사업효과

- 중도포기 동포 자녀가 줄고, 국내 또래들과 함께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교육지원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함

### ③ 이주민 정책 홍보 지원 사업

- 추진목적

- 이주민 관련 특히 중국동포 관련 서울시의 정책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시정 홍보를 함

- 추진계획

- 동포들이 주로 동포 관련 신문 및 단체활동을 통해 정책 정보 획득하는 특징을 감안하여 정책 전달 체계를 구축
- 정기적으로 이주민 관련 시정 브리핑 실시
- 시정홍보 모니터단 운영

- 사업효과

- 서울시 정책 신뢰도 및 호응도가 높아짐
-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

[부록 1]

ID Number		
-----------	--	--

**서울 거주 중국동포 실태조사 및 정책제안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 연구팀은, 2013년 5월부터 서울시청의 「서울 거주 중국동포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의 기본 실태를 파악하고, 중국동포에게 맞는 서울시 차원의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문에 응답하는 중국동포들께서 누락된 내용이 없이 충실히 응답해 주시면 정책 제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귀하가 답하신 내용은 분석 및 정책 제안 이외의 어떠한 목적에도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사에 성심껏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설문지 응답 및 본 용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7월

연구책임자: 양 한순(아주대 사회학과 교수)

☎ 031) 219-1643      ✉ hansuny@ajou.ac.kr

조사책임자: 박 우(한성대 교양학부 교수)

☎ 02) 760-8046      ✉ piaoyou34@gmail.com

보조연구원: 강 미선(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 kms2910@gmail.com

응답자 구분	응답 문항 번호
일반 거주자 일반 근로자 전문직	1번 ~ 92번, 113번
자영업자(소상공인) 기업가	1번 ~ 84번, 93번 ~ 106번, 113번
유학생	1번 ~ 73번, 107번 ~ 113번

▶ 아래는 정책제안에 필요한 기본문항입니다.

[인적사항]

● 아래의 질문을 보고 해당하는 사항의 번호를 옆의 괄호 안에 적거나, 해당하는 사항에 ✓ (체크) 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①남      ②여
2. 귀하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_\_\_\_\_년
3. 귀하가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①중국의 경우: \_\_\_\_\_성 \_\_\_\_\_시  
②남북한의 경우: \_\_\_\_\_시/도 \_\_\_\_\_시/군  
③기타 지역의 경우: \_\_\_\_\_
4. 귀하가 현재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_\_\_\_\_시 \_\_\_\_\_구 \_\_\_\_\_동
5. 귀하의 혼인상황은 어떠합니까? (        )  
①기혼    ②미혼    ③이혼    ④사별    ⑤기타 \_\_\_\_\_
6. 귀하의 자녀는 현재 어느 국가에서 살고 있고 몇 년생입니까?(        )  
①자녀1: \_\_\_\_\_국가 \_\_\_\_\_년생    ②자녀2: \_\_\_\_\_국가 \_\_\_\_\_년생  
③자녀3: \_\_\_\_\_국가 \_\_\_\_\_년생    ④자녀4: \_\_\_\_\_국가 \_\_\_\_\_년생  
⑤현재 임신 중                                  ⑥자녀 없음
7.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        )  
①무학    ②소학교    ③초중    ④고중(중전 포함)  
⑤2-3년제 전문대학    ⑥4년제 대학교    ⑦대학원이상
8. 귀하는 종교신앙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 종교신앙이 있으면 ☞ 8-1번부터 응답하시고, 없으면 ☞ 9번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 8-1. 종교신앙이 있다면 어떤 종교입니까? (        )  
①불교      ②기독교      ③천주교  
④이슬람교    ⑤기타 \_\_\_\_\_
- 8-2. 종교신앙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  
①중국에 있을 때 가족의 영향  
②중국에 있을 때 친구, 지인의 영향  
③한국에 온 뒤 가족의 영향  
④한국에 온 뒤 친구, 지인의 영향  
⑤한국에 온 뒤 선교를 접촉한 뒤  
⑥기타 \_\_\_\_\_

8-3. 신앙을 가진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_\_\_\_\_년

[중국생활]

9. 귀하는 중국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        )  
(하셨던 일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①취업한 적 없음      ②농업(임업·축산업)  
③개체호 종업원(상점, 식당 등)      ④개체호 주인  
⑤장사, 무역    ⑥기업가    ⑦회사직원  
⑧공무원    ⑨전문직(교사, 의사 등)      ⑩공인  
⑪전업주부      ⑫학생    ⑬기타(\_\_\_\_\_)

- 9-1. 귀하가 했던 일들 중, 소득이 가장 많았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①농업(임업·축산업)      ②개체호 주인  
③개체호 종업원(상점, 식당 등)      ④장사, 무역  
⑤공인      ⑥기업가      ⑦회사직원  
⑧공무원    ⑨전문직(교사, 의사 등)      ⑩전업주부  
⑪소득 없음                                  ⑫기타(\_\_\_\_\_)

● 배우자가 있으면 ☞ 10번부터 응답, 없으면 ☞ 11번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10. 현재 배우자가 있다면, 어느 국가에 살고 있습니까?  
(        )  
①중국    ②한국    ③일본    ④기타 \_\_\_\_\_

- 10-1. 중국에 귀하 혹은 귀하의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아파트 등)이 있습니까? (        )  
①예      ②아니오

- 10-2. 귀하의 배우자는 어떤 일을 하고 있거나 했었습니까?  
(        )  
①취업한 적 없음      ②농업(임업·축산업)  
③개체호 종업원(상점, 식당 등)      ④개체호 주인  
⑤장사, 무역    ⑥기업가    ⑦회사직원  
⑧공무원    ⑨전문직(교사, 의사 등)      ⑩공인  
⑪전업주부    ⑫학생    ⑬기타(\_\_\_\_\_)

- 10-3. 귀하의 배우자의 국적과 민족은 어떠합니까?  
(        )  
①중국국적 조선족      ②중국국적 한족  
③한국국적 한국인      ④한국국적 귀화 조선족  
⑤한국국적 귀화 한족    ⑥기타(\_\_\_\_\_)

11. 귀하는 중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이주와 체류자격]

12. 귀하는 몇 년도에 처음 한국에 입국했습니까?  
\_\_\_\_\_년

13. 귀하는 어떤 비자로 한국을 처음 방문 하셨습니까?  
( )  
①한국국적    ②영주권 F-5    ③재외동포 F-4  
④결혼이민자 F-2    ⑤동거 F-1    ⑥방문취업 H-2  
⑦연수 E-9    ⑧단기비자 C-3    ⑨유학 D-2  
⑩기타\_\_\_\_\_

14. 지금까지 한국 방문은 모두 몇 번이십니까? ( )  
①5회 미만    ②5회 ~ 10회    ③10회 이상

15. 현재 어떤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습니까? ( )  
①한국국적    ②영주권 F-5    ③재외동포 F-4  
④결혼이민자 F-2    ⑤동거 F-1    ⑥방문취업 H-2  
⑦연수 E-9    ⑧단기비자 C-3    ⑨유학 D-2  
⑩기타\_\_\_\_\_

15-1. 현재 체류자격은 언제 취득했습니까?  
\_\_\_\_\_년

15-2. 지금까지 어떤 체류자격을 취득했습니까?  
①첫 번째: \_\_\_\_\_  
②두 번째: \_\_\_\_\_  
③세 번째: \_\_\_\_\_  
④네 번째: \_\_\_\_\_  
⑤다섯 번째: \_\_\_\_\_  
⑥여섯 번째: \_\_\_\_\_

15-3. 현재 체류자격 변경과정에 있다면, 어떤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고 합니까? ( )  
①한국국적    ②영주권 F-5    ③재외동포 F-4  
④결혼이민자 F-2    ⑤동거 F-1  
⑥방문취업 H-2    ⑦연수 E-9  
⑧단기비자 C-3    ⑨유학 D-2  
⑩기타\_\_\_\_\_

16. 귀하는 한국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체류자격을 가장 선호합니까?( )  
①한국국적    ②영주권 F-5    ③재외동포 F-4  
④결혼이민자 F-2    ⑤동거 F-1    ⑥방문취업 H-2  
⑦연수 E-9    ⑧단기비자 C-3    ⑨유학 D-2  
⑩기타\_\_\_\_\_

16-1. 선택하신 체류자격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16-2. 귀하는 현재의 체류자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17. 귀하의 현재 비자는 언제 만기 됩니까?  
(한국국적 제외)  
\_\_\_\_\_년

17-1. 귀하는 앞으로 한국에서 몇 년 정도 더 살고 싶습니까? ( )  
①\_\_\_\_\_년  
②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살고 싶다  
③잘 모르겠다

▶ 아래는 귀하의 주거와 관련된 문항들입니다.

[주거실태]

18. 현재 거주지에 거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①집 값이 싸서    ②조선족 집지라서  
③교통이 편리해서    ④직장과 가까워서  
⑤가족이 먼저 살고 있어서  
⑥친구가 먼저 살고 있어서  
⑦회사나 학교에서 제공한 기숙사여서  
⑧주거환경이 깨끗해서  
⑨안전해서  
⑩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해서  
⑪기타(\_\_\_\_\_)

19. 귀하의 이름으로 계약한 주택이 있다면 어떤 계약 방식입니까? ( )  
①내 이름으로 계약한 주택이 없음  
②전세    ③월세    ④자택(구매 했음)  
⑤공공임대주택    ⑥기타(\_\_\_\_\_)

19-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어떤 유형의 주택입니까?  
( )  
①빌라 반지하    ②빌라 지상  
③아파트    ④본인 소유 가게  
⑤일하는 가게나 기숙사    ⑥침터    ⑦고시원  
⑧기타(\_\_\_\_\_)

20. 현재 집세를 얼마나 부담하고 있습니까?  
①전세의 경우: 보증금\_\_\_\_\_만원  
②월세의 경우: 보증금\_\_\_\_\_만원, 월\_\_\_\_\_만원  
③기숙사의 경우: 월\_\_\_\_\_만원

21. 귀하는 주거를 위해 은행대출을 받은 적 있습니까?  
( )  
①예 ②아니오
22. 귀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한 적 있습니까? ( )  
①예 ②아니오
23. 귀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언제부터 거주하십니까?  
\_\_\_\_\_년
24.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곳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한국식으로 할 때: \_\_\_\_\_평
25. 귀하는 현재 본인을 포함해서 몇 명과 함께 거주하고 계십니까? ( )  
①1명 ②2명 ③3명 ④4명 ⑤5명 ⑥6명 이상
26. 귀하는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몇 년 더 거주할 계획입니까? ( )  
①1년 미만 ②1년 ~ 3년 ③4년 ~ 6년  
④7 ~ 9년 ⑤10년 이상 ⑥잘 모르겠다

☉ 27 아래의 표에서 질문을 보고 해당 사항에 ✓를 해 주십시오.

	27-1	27-2	27-3
	거주지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어디입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은 무엇입니까?
① 병원			
② 학교			
③ 공원			
④ 도서관			
⑤ 영화관·극장			
⑥ 경로당			
⑦ 유치원			
⑧ 이주민지원기관			
⑨ 교회			
⑩ 은행			
⑪ 동사무소			
⑫ 스포츠시설			
⑬ 기타(_____)			

28. 귀하가 만약 서울시 내에서 이사를 한다면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_\_\_\_\_구\_\_\_\_\_동
29. 귀하는 현재의 주거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30. 귀하가 거주하는 곳에서 불편한 점은 어떤 것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사람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지 않는다  
②주변 소음이 심하다 ③치안이 불안하다  
④하수도가 막힌다 ⑤주차공간이 없다  
⑥공중화장실이 부족하다 ⑦기타(\_\_\_\_\_)
31. 귀하는 현재 거주하는 곳의 주변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지역주민과의 관계]

32. 귀하가 거주하는 건물과 옆 건물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해당 사항에 ✓를 해 주십시오.

	조선족	한족	한국인	기타 외국인	잘 모른다
① 같은 건물					
② 옆 건물					

33. 귀하가 거주하는 곳에서 조선족, 한족, 한국인의 규모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해당 사항에 ✓를 해주십시오.

	늘고 있다	변하지 않는다	줄고 있다	잘 모른다
① 조선족				
② 한 족				
③ 한국인				

34. 귀하는 귀하가 거주하는 곳에 사는 조선족, 한족, 한국인과 사이(관계)가 어떻습니까? 해당 사항에 ✓를 해주십시오.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접촉 없음
① 조선족						
② 한 족						
③ 한국인						

35. 귀하는 대체로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36. 중국에서 생활하던 것에 비교하면 현재 서울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은 어떤 것입니까? 생각나는 것을 모두 적어 주십시오.

-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아래는 귀하의 소비에 관한 문항입니다.

[일반소비]

37. 귀하는 오랫동안 만난 고향 및 중국 친구들과 외식을 할 경우 주로 어떤 곳을 이용하십니까?( )

- ①조선족 집거지의 고향음식을 파는 식당  
②일반 지역의 고향음식을 파는 식당  
③조선족 집거지의 한국음식을 파는 식당  
④일반 지역의 한국음식을 파는 식당  
⑤고향 친구들과 만나지 않는다  
⑥기타(\_\_\_\_\_)

38. 귀하는 한국인 친구들과 외식을 할 경우 주로 어떤 곳을 이용하십니까?( )

- ①조선족 집거지의 고향음식을 파는 곳  
②일반 지역의 고향음식을 파는 곳  
③조선족 집거지의 한국음식을 파는 곳  
④일반 지역의 한국음식을 파는 곳  
⑤한국인 친구가 없다  
⑥기타(\_\_\_\_\_)

39. 귀하는 평균 한 달에 몇 번 정도 친구들과 외식을 하십니까?

\_\_\_\_\_ 번

39-1. 귀하는 친구들과 외식을 주로 언제 하십니까?( )

- ①주중 점심  
②주중 저녁  
③주말 점심  
④주말 저녁  
⑤기타(\_\_\_\_\_)

40. 귀하는 한 달 평균 다음과 같은 부분에 얼마씩 사용하십니까?

소비 항목	단위: 만 원
① 한국에서 소비	
② 한국에서 저축	
③ 중국 송금	

41.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전반적으로 볼 때 예전에 비해 소비(쓰는 돈)의 변화가 어떠하십니까?(\_\_\_\_\_)

- ①매우 많아짐    ②좀 많아짐    ③똑같음  
④좀 적어짐    ⑤매우 적어짐

41-1. 예전과 비교할 때 귀하가 저축하는 액수와 송금하는 액수의 변화는 어떠하십니까? 해당 사항에 ✓를 해 주십시오.

	매우 많아짐	좀 많아짐	변화 없음	좀 적어짐	매우 적어짐	해당 없음
① 저축 금액						
② 송금 금액						

41-2. 귀하는 현재 자신의 경제주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 아래는 귀하의 복지 실태에 관한 문항입니다.

[의료]

42. 귀하가 아플 때 가장 먼저 처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

- ①중국에서 가져온 약을 먹는다  
②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는다  
③구청 보건소를 찾는다  
④동네 의원을 찾는다  
⑤큰 병원을 찾는다  
⑥기타(\_\_\_\_\_)

43. 귀하는 현재 어떤 질병을 앓고 계십니까? 모두 적어 주십시오.( )

-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질병이 없다

43-1. 한국에 가족이 있다면 귀하의 가족은 현재 최소한 가지 질병이라도 앓고 계십니까? 해당 사항에 √를 해주십시오.

	있다	없다
① 부		
② 모		
③ 배우자		
④ 자녀 1		
⑤ 자녀 2		
⑥ 자녀 3		

44. 귀하는 1년에 평균 병원에 병 보러 얼마나 자주 다니십니까?( )

- ①5회 미만    ②5회 ~ 10회    ③10회 이상  
④다녀지 않음

44-1. 아프지만 병원에 가서 병보기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를 모두 적어 주십시오.( )

- ①돈이 너무 많이 든다  
②병원이 가까이에 없다  
③휴일과 병원 진료일이 맞지 않다  
④약국에서 약을 사먹는다  
⑤중국에 가서 병 보려고 한다  
⑥중국에서 가지고 온 약을 먹는다  
⑦기타( )

45. 귀하는 최소 2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으십니까?( )

- ①예    ②아니오

46. 귀하가 아프게 되면 주변에 귀하를 돌봐 줄 사람이 있습니까? ( )

- ①예    ②아니오

47. 귀하는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다친 적 있습니까?( )

- ①예    ②아니오

47-1. 만약 다친 적 있다면 회사(고용주)나 공단의 보조나 보험 혜택을 받은 적 있습니까?( )

- ①예    ②아니오

47-2. 귀하는 현재 어떤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①4대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②기타보험    ③가입하지 않음

48. 전반적으로 볼 때 귀하는 자신이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매우 건강    ②건강    ③보통  
④건강하지 않음    ⑤매우 건강하지 않음

49. 귀하는 현재 자신의 의료복지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교육]

50. 귀하는 한국에서 다음과 같은 졸업증, 학위, 자격증을 받은 적 있습니까? 해당 사항에 √를 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
① 초·중·고등학교 졸업증		
② 대학(석·박사) 학위증		
③ 기타 자격증		

51. 귀하의 배우자는 한국에서 다음과 같은 졸업증, 학위, 자격증을 받은 적 있습니까?(배우자가 있을 경우만 응답해 주세요)

	예	아니오
① 초·중·고등학교 졸업증		
② 대학(석·박사) 학위증		
③ 기타 자격증		

52. 귀하의 자녀는 한국에서 다음과 같은 졸업증, 학위, 자격증을 받은 적 있습니까?(자녀가 있을 경우만 응답해 주세요)

	예	아니오
① 초·중·고등학교 졸업증		
② 대학(석·박사) 학위증		
③ 기타 자격증		

53. 귀하는 아래와 같은 언어를 얼마나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사항에 √를 해 주십시오.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못함	전혀 못함
① 조선어					
② 한국어					
③ 한 어					
④ 영 어					
⑤ 일본어					

54. 귀하의 자녀는 현재 서울의 교육기관(유치원, 학교등)에 다니고 있습니까?( )

- ①예    ②아니오

☞ 자녀가 없다면 57-1번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㉔ 자녀가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의 학교나 유치원에 다니면  
 ㉔ 54-1번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자녀가 한국에 있지만 학교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을 경  
 우에는 ㉔ 56번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54-1. 귀하의 자녀는 현재 한국에서 어떤 교육과정에 있  
 습니까? ( )  
 ①유치원(어린이집 포함)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④고등학교 ⑤대학교  
 ⑥대학원(석·박사)

54-2. 귀하의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교육기관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_\_\_\_\_시 \_\_\_\_\_구

54-3. 귀하의 자녀는 어떤 교육과정부터 한국에서 시작하  
 셧습니까? ( )  
 ①어린이집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④고등학교 ⑤대학교 ⑥기타(\_\_\_\_\_)

55. 귀하의 자녀를 교육기관에 입학시킬 때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입니까? 모두 적어 주십시오. ( )  
 ①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②학교장 재량으로 입학이 어렵다  
 ③서류가 복잡하다  
 ④중국에서의 학력이 낮다  
 ⑤경제 형편이 좋지 않다  
 ⑥기타(\_\_\_\_\_)

㉔ 57번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56. 귀하의 자녀가 한국의 교육기관에 다닌적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적어 주십시오. ( )  
 ①교육·학교 정보가 부족하다  
 ②한국어를 잘 못한다  
 ③한국 학생들과의 관계처리가 어렵다  
 ④언젠가는 중국에 돌아 갈 것 같아서  
 ⑤한국학교 학력이 중국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⑥경제 형편이 좋지 않다  
 ⑦학교를 다니다가 그만 뒀다  
 ⑧영유아여서 집에서 키운다  
 ⑨기타(\_\_\_\_\_)

56-1. 귀하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 두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적어 주십시오.( )  
 ①한국어를 잘 못한다  
 ②한국 학생들과의 관계처리가 어렵다  
 ③언젠가는 중국에 돌아 갈 것 같아서  
 ④한국학교 학력이 중국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⑤경제 형편이 좋지 않다  
 ⑥기타(\_\_\_\_\_)

57. 중국에서도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가 서울에 있다면  
 귀하의 자녀를 이런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57-1. 귀하는 현재 자신과 가족 구성원의 교육 상황에 대  
 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 아래는 귀하의 사회참여에 관한 문항입니다.

[사회단체참여]

58. 귀하는 1년에 평균 다음과 같은 단체의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 하십니까? 해당 사항에 √를 해 주십시오.

	5회이 하	6 ~ 10회	10회이 상	내가 단체 운영	참여 하지 않음
① 조선족 종교단체					
② 조선족 비종교단체					
③ 한족 종교단체					
④ 한족 비종교단체					
⑤ 한국인 종교단체					
⑥ 한국인 비종교단체					

59. 귀하는 1년에 평균 다음과 같은 모임이나 단체에 얼  
 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해당 사항에 √를 해 주십  
 시오.

	5회이 하	6 ~ 10회	10회 이상	내가 모임 운영	참여 하지 않음
① 노동자·근로자모임					
② 직장인(전문직)모임					
③ 유학생모임					
④ 기업가모임					
⑤ 상인(자영업자 등)모임					
⑥ 결혼이민자모임					
⑦ 주부모임					
⑧ 동향모임					
⑨ 동창모임					
⑩ 스포츠 동호모임					
⑪ 기타(_____)					

60. 귀하가 이런 단체나 모임에 참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를 모두 적어 주십시오( )

- ①인맥을 쌓는다 ②여가생활을 풍부하게 한다
- ③생활정보 취득에 도움이 된다
- ④동포관련 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다
- ⑤한국의 정치문제에 관심이 있다
- ⑥기타( )

61. 귀하는 본인의 차별적 대우나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하여 1년에 평균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하십니까? 해당 사항에 √를 해 주십시오.

	5회 이하	6 ~ 10회	10회 이상	전혀 안함
① 블로그,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과감히 말한다				
② 정부기관, 지자체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린다				
③ 개인 혹은 집단 민원을 접수한다				
④ 서명운동, 시위, 파업 등 시민단체 행동을 조직 및 참여한다				

[미디어접촉]

62. 귀하는 한국에서 아래와 같은 미디어를 얼마나 자주 접하거나 활용하십니까? 해당 사항에 √를 해 주십시오.

	매우 자주	자주	거의 안함	전혀 안함
① 텔레비전				
② 라디오				
③ 신문				
④ 컴퓨터(인터넷)				
⑤ 핸드폰(DMB, SNS)				

63. 귀하는 미디어를 접촉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얼마나 자주 즐겨 보십니까? 해당 사항에 √를 해 주십시오.

	매우 자주	자주	거의 안함	전혀 안함
① 뉴스				
② 드라마·영화				
③ 예능·오락·음악·스포츠				
④ 홈쇼핑·광고				
⑤ 기타( )				

64. 귀하는 중국동포와 관련된 다음의 신문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해당 사항에 √를 해 주십시오.

	매우 자주	자주	거의 안함	전혀 안함
① 길림신문				
② 동북아신문				
③ 중국동포타운신문				
④ 흑룡강신문				
⑤ 한민족신문				
⑥ 한중동포신문				
⑦ 기타( )				

65. 귀하는 중국동포와 관련된 신문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해당 사항에 √를 해 주십시오.

	매우 자주	자주	거의 안함	전혀 안함
① 중국동포 관련 정책				
② 직업 정보				
③ 수기, 칼럼				
④ 중국 뉴스				
⑤ 기타( )				

▶ 아래는 귀하의 사회적 인식에 관한 문항입니다.

[신뢰]

66. 귀하는 아래와 같은 사람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해당 사항에 √를 해 주십시오.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음	전혀 신뢰하지 않음	모르겠음
① 가족					
② 이웃					
③ 처음 만난 사람					
④ 종교가 다른 사람					
⑤ 조선족					
⑥ 한족					
⑦ 한국인					
⑧ 기타 외국인					

㉔ 귀하가 자영업자, 기업가, 직업이 없는 순수 유학생의 경우에는 ☞ 67번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 66-1번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66-1. 귀하는 한국에서 일하시면서 아래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해당 사항에 ✓를 해 주십시오.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음	전혀 신뢰하지 않음	이런 사람 없음
① 직장내 조선족 동료					
② 직장내 한족 동료					
③ 직장내 한국인 동료					
④ 조선족 고용주					
⑤ 한족 고용주					
⑥ 한국인 고용주					
⑦ 기타 외국인 동료					

67. 귀하는 아래와 같이 한국의 정부기관이나 공식적인 조직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해당 사항에 ✓를 해 주십시오.

	매우 신뢰한다	약간신뢰한다	별로신뢰하지않음	전혀신뢰하지않음	모르겠다
① 정부					
② 의회					
③ 언론					
④ 기업					
⑤ 경찰					
⑥ 시민단체					

68. 귀하는 아래의 사람들이 귀하의 이웃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사항에 ✓를 해 주십시오.

	매우 찬성	찬성	보통	반대	매우 반대
① 조선족					
② 한족					
③ 한국인					
④ 동남아이주노동자					
⑤ 기타 외국인					

[정체성]

69. 귀하는 아래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사항에 ✓를 해 주십시오.

	매우 가깝다	가깝다	보통	멀다	매우 멀다	모르겠다
① 조선족						
② 한족						
③ 한국인						
④ 동남아 이주노동자						
⑤ 기타 외국인						

[차별인식]

70. 귀하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사항에 ✓를 해 주십시오.

	심하게 받는다	조금 받는다	거의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모르겠다	해당 없음
① 직장						
② 사회						
③ 학교						

70-1. 만약 귀하가 차별을 받은 적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적어 주십시오.( )

- ①국적                      ②조선족                      ③종교
- ④언어(말투)              ⑤외모                        ⑥학력
- ⑦경제적 지위              ⑧성별                        ⑨나이
- ⑩직업                        ⑪신체장애
- ⑫기타( )

71. 귀하가 보시기에 전반적으로 한국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 )

- ①차별과 소외가 매우 심한 사회
- ②차별과 소외가 조금 심한 사회
- ③배려와 포용이 조금 큰 사회
- ④배려와 포용이 매우 큰 사회
- ⑤잘 모르겠다

72. 귀하는 한국인 혹은 한국정부가 조선족을 어떻게 불렀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조선족                      ②중국동포                      ③중국교포
- ④한국인                      ⑤중국인                        ⑥기타( )

73. 귀하는 아래와 같은 기관을 방문 혹은 이용해 보신적 있습니까? 해당 사항에 ✓를 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
① 글로벌 빌리지		
② 외국인상담센터		
③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④ 기타 외국인지원기관		

▶ 아래는 구직·고용·노동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 귀하가 직업이 없는 순수 유학생이면 ☞ 107번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은 사람은 ☞ 74번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구직]

74. 귀하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 )

- ① 공장 근로자      ② 건설업 근로자
- ③ 음식점 종업원    ④ 여관(숙박)업
- ⑤ 학원 및 교육기관   ⑥ 가사도우미
- ⑦ 간병도우미      ⑧ 전문직(교사, 의사, 회사원)
- ⑨ 자영업자          ⑩ 소기업가(4명 이상 종업원)
- ⑪ 가정주부          ⑫ 매장 판매원
- ⑬ 직업 없음        ⑭ 기타(\_\_\_\_\_)

74-1. 현재 하는 일이 없다면 가장 최근에 했던 일은 어떤 것입니까? ( )

- ① 공장 근로자      ② 건설업 근로자
- ③ 음식점 종업원    ④ 여관(숙박)업
- ⑤ 학원 및 교육기관   ⑥ 가사도우미
- ⑦ 간병도우미      ⑧ 전문직(교사, 의사, 회사원)
- ⑨ 자영업자          ⑩ 소기업가(4명 이상 종업원)
- ⑪ 가정주부          ⑫ 학생
- ⑬ 매장 판매원      ⑭ 기타(\_\_\_\_\_)

☉ 현재의 일자리가 있는 사람은 현재 일자리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고, 현재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가장 최근의 일자리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75. 귀하의 월수입은 얼마입니까? ( )

- ① 100만원 이하    ② 100~150만원    ③ 150~200만원
- ④ 200~250만원    ⑤ 250~300만원    ⑥ 300~350만원
- ⑦ 350~400만원    ⑧ 400~450만원    ⑨ 450~500만원
- ⑩ 500만원 이상    ⑪ 월수입 없음

76. 귀하는 한국에서 직업을 몇 번 바꾸었습니까?( )

- ① 5회 이하            ② 6회 ~ 10회
- ③ 11회 ~ 15회        ④ 15회 이상

76-1. 귀하는 직업을 찾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고려하십니까? ( )

- ① 수입      ② 근무환경      ③ 지역      ④ 전공
- ⑤ 본인의 기술    ⑥ F-4비자 전환 가능성
- ⑦ 기타(\_\_\_\_\_)

77. 현재 직업이 있을 경우 현재의 직업, 직업이 없을 경우 가장 최근의 직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_\_\_\_\_년

78. 현재 일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_\_\_\_\_시(도)\_\_\_\_\_구(시)

79. 현재의 직업 혹은 가장 최근의 직업을 찾기 전에 적극적으로 다른 직업을 찾아보셨습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80. 귀하는 어떻게 현재의 직업 혹은 가장 최근의 직업을 찾으셨습니까? 가능한 것을 모두 적어 주십시오.( )

- ① 신문(잡지, 상업지, 지역무가지)에서 광고를 보았다.
- ② 고용중개기관(직업소개소)을 통해 찾았다.
- ③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을 통해 찾았다
- ④ 내가 친구·지인에게 물었고, 친구·지인이 알려주었다.
- ⑤ 내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친구·지인이 내게 연락했다.
- ⑥ 내가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는지 모르고 있던 친구·지인이 내게 연락을 취해왔다.
- ⑦ 내가 직접 회사 공개 혹은 특별채용정보를 찾아 보았다.
- ⑧ 한국에 있는 가족·친척이 일자리를 알려주었다.
- ⑨ 기타(\_\_\_\_\_)

☉ 현재의 일자리 혹은 가장 최근의 일자리를 가족·친척이 알려줬다면 ☞ 80-1번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현재의 일자리 혹은 가장 최근의 일자리를 친구·지인이 알려줬다면 ☞ 81번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일자리를 자기절로 찾았으면 ☞ 82번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80-1. 직업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가족·친척이라면 이분의 국적과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 )

- ① 중국국적 조선족      ② 중국국적 한족
- ③ 한국국적 한국인      ④ 한국국적 귀화 조선족
- ⑤ 한국국적 귀화 한족    ⑥ 기타(\_\_\_\_\_)

☞ 82번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81. 직업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친구·지인이면 이 친구·지인의 국적과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
- ①중국국적 조선족      ②중국국적 한족  
 ③한국국적 한국인      ④한국국적 귀화 조선족  
 ⑤한국국적 귀화 한족      ⑥기타( )

- 81-1. 귀하는 이 친구·지인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 )
- ①중국 동창                      ②한국 동창  
 ③중국 지인                      ④한국 지인  
 ⑤기타( )

- 81-2. 이 친구·지인이 귀하에게 직업 정보를 알려준 동시에 고용주에게 귀하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 )
- ①예                      ②아니오                      ③모른다

- 81-3. 귀하는 이 친구·지인과 얼마만큼 친합니까?( )
- ①매우 친함      ②조금 친함      ③보통  
 ④별로 친하지 않음      ⑤전혀 친하지 않음

- 81-4. 귀하의 친구·지인은 귀하에게 알려진 직업에 대해 어떻게 알았습니까? ( )
- ①그 친구·지인이 그 일자리가 생긴 직장에 다녔다.  
 ②그 친구·지인이 고용주의 사업 친구였다.  
 ③그 친구·지인이 고용주의 사회 친구였다.  
 ④그 친구·지인이 고용주였다.  
 ⑤모른다  
 ⑥기타( )

82. 귀하는 현재의 직업 혹은 가장 최근의 직업을 얼마나 만족합니까? ( )
-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83. 귀하는 한국에 온 다음 새로 쌓은 조선족, 한족, 한국인 인맥들 중에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해당 사항에 ✓를 해주십시오.

	정치인	공무원	사업가	대학교수	종교지도자	사회단체운영자	기타전문직	없음
① 조선족								
② 한 족								
③ 한국인								

- 83-1. 귀하의 한국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가장 중요한 인맥의 국적과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 )
- ①중국국적 조선족      ②중국국적 한족  
 ③한국국적 한국인      ④한국국적 귀화 조선족  
 ⑤한국국적 귀화 한족      ⑥기타( )

84. 귀하가 직업을 찾는 과정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
- ①한국어를 잘 못한다  
 ②체류기간이 짧아서 써주는 곳이 없다  
 ③체류자격(비자)이 안돼서 일을 못한다  
 ④취업정보가 부족하다  
 ⑤일을 해 본 경력이 적다  
 ⑥일자리 찾는 방법을 잘 모른다  
 ⑦취업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⑧일자리가 없다  
 ⑨기타( )

[노동실태와 직장내관계]

- ☺ 귀하가 현재 자영업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면 ☞ 93번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 85 번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85. 귀하의 현재의 직장, 혹은 가장 최근의 직장에서 고용주(사장)의 국적과 민족은 어떠했습니까? ( )
- ①중국국적 조선족      ②중국국적 한족  
 ③한국국적 한국인      ④한국국적 귀화 조선족  
 ⑤한국국적 귀화 한족      ⑥잘 모른다  
 ⑦기타( )

- 85-1. 귀하의 현재 직장 혹은 가장 최근의 직장에 서 귀하의 직속 상사의 국적과 민족은 어떠합니까? ( )
- ①중국국적 조선족      ②중국국적 한족  
 ③한국국적 한국인      ④한국국적 귀화 조선족  
 ⑤한국국적 귀화 한족      ⑥직속 상사가 없다  
 ⑦잘 모른다                      ⑧기타( )

86. 귀하는 현재의 직장, 혹은 가장 최근의 직장에 서 하루 평균 몇 시간 일하십니까?  
 \_\_\_\_\_시간

87. 귀하는 현재의 직장, 혹은 가장 최근의 직장에 서 한달 평균 며칠 휴식하십니까?  
 \_\_\_\_\_일

88. 귀하는 현재의 직장, 혹은 가장 최근의 직장에 서 일할 때 회사가 숙식을 제공했습니까? ( )
- ①식사만 제공                      ②주숙만 제공  
 ③숙식 모두 제공                      ④숙식 모두 제공하지 않음

89. 직장 동료들 중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한국인, 기타 등이 각각 몇 퍼센트씩 있습니까?

- ① 중국 조선족 \_\_\_\_\_ %
- ② 중국 한족 \_\_\_\_\_ %
- ③ 한국인 \_\_\_\_\_ %
- ④ 기타 \_\_\_\_\_ %

89-1. 직장 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해당 사항에 √를 해 주십시오.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해당 없음
① 사장(고용주)						
② 직속 상사						
③ 조선족 동료						
④ 한족 동료						
⑤ 한국인 동료						
⑥ 기타( )						

90. 귀하는 현재 직장 혹은 가장 최근의 직장 내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91. 귀하는 현재 직장 혹은 가장 최근의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누구와 상대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까? ( )

- 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② 사장(고용주)
- ③ 직속 상사    ④ 조선족 동료
- ⑤ 한족 동료    ⑥ 한국인 동료
- ⑦ 기타( )

92. 직장 생활에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

- ① 임금차별
- ② 직업훈련, 능력개발 기회 부족
- ③ 승진차별
- ④ 동료들과 소통 부재
- ⑤ 애로사항 없음
- ⑥ 기타( )

☞ 113번을 응답해 주십시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아래는 자영업자, 기업가, 순수 유학생에 해당하는 질문들입니다.

[자영업자 · 사업가]

93. 귀하는 현재 한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중국요리를 만드는 식당
- ② 중국 조선족 요리를 만드는 식당
- ③ 한국요리를 만드는 식당
- ④ 노래방    ⑤ 다방    ⑥ 맥주집
- ⑦ 안마    ⑧ 핸드폰 가게
- ⑨ 신발·옷 가게    ⑩ 컴퓨터 가게
- ⑪ 중국식품점    ⑫ 신문사    ⑬ 한국내 주류유통
- ⑭ 한-중무역회사    ⑮ 기타( )

94. 귀하가 이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중국에 있을 때부터 했던 일이다
- ② 한국 회사에 전문직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 ③ 한국에서 다른 일은 어렵고 힘들었다
- ④ 조선족 시장이 커졌다
- ⑤ 조선족이 특정 지역에 집거하였다
- ⑥ 조선족의 씬쌈이가 크다
- ⑦ 한족들의 입국도 증가했다
- ⑧ 한족들이 조선족들과 비슷한 곳에 집거하였다
- ⑨ 한족들 씬쌈이가 크다
- ⑩ 한국인 시장을 주목했다
- ⑪ 나의 적성에 아주 잘 맞다
- ⑫ 기타( )

95. 귀하는 창업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절약해서 저축했던 돈이다
- ②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
- ③ 친척한테서 빌렸다
- ④ 친구, 지인한테서 빌렸다
- ⑤ 제2금융(사채)에서 빌렸다
- ⑥ 중국에 저축했던 돈을 가져왔다
- ⑦ 중국에 있던 동산, 부동산을 처분하고 현금을 마련
- ⑧ 한국에서 번 돈을 중국에 보냈다가 다시 가져왔다
- ⑨ 기타( )

96. 현재 귀하의 사업장(가게)에 본인을 제외하고 종업원 혹은 직원이 모두 몇 명 있습니까? 남자, 여자 각각 몇 명 있습니까?

- ① 모두: \_\_\_\_\_ 명
- ② 그 중 남자: \_\_\_\_\_ 명
- ③ 그 중 여자: \_\_\_\_\_ 명

96-1. 종업원들 중 월급을 주는 종업원은 몇 명 있습니까?  
\_\_\_\_\_명

96-2. 월급을 주는 종업원들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신문 광고를 통해서 구함  
 ②친척을 통해 추천받음  
 ③친구나 지인을 통해 추천받음  
 ④직접 가게에 구직광고를 붙임  
 ⑤기타(\_\_\_\_\_)

96-3. 월급을 주는 종업원들 중 조선족, 한족, 한국인은 각각 몇 명입니까?  
 ①조선족: \_\_\_\_\_명    ②한 족: \_\_\_\_\_명  
 ③한국인: \_\_\_\_\_명

96-4. 월급을 주는 종업원들 중 한족을 고용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①조선족 종업원을 찾기 힘들다  
 ②조선족 종업원은 월급이 적다고 한다  
 ③한족 종업원이 일을 더 잘 한다  
 ④한족 종업원은 언어 때문에 한국인 가게에서 일하기 어려워한다  
 ⑥기타(\_\_\_\_\_)

96-5. 귀하의 가게에서 종업원의 월급은 다음의 조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해당 사항에 √를 해주십시오.

	상관 있다	상관 없다
① 성별		
② 연령		
③ 민족		
④ 일한 경력		
⑤ 일의 강도(힘든 정도)		
⑥ 기타(_____)		

96-6. 귀하의 가게에서 가족이나 친척도 함께 일하십니까? ( )  
 ①예      ②아니오

96-7. 귀하의 가게에서 가족이나 친척도 함께 일한다면 그 가족이나 친척은 누구입니까? ( )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친 형제자매    ⑤기타 친척  
 ⑥기타(\_\_\_\_\_)

96-8. 귀하의 가게에 가족이나 친척도 함께 일한다면 이분들에게도 월급을 주십니까? ( )  
 ①예      ②아니오

97. 현재 한국에 사업체(가게)가 모두 몇 개 있습니까?  
\_\_\_\_\_개

97-1. 귀하의 사업체(가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①첫 번째 가게: \_\_\_\_\_시 \_\_\_\_\_구  
 ②두 번째 가게: \_\_\_\_\_시 \_\_\_\_\_구  
 ③세 번째 가게: \_\_\_\_\_시 \_\_\_\_\_구  
 ④네 번째 가게: \_\_\_\_\_시 \_\_\_\_\_구  
 ⑤다섯 번째 가게: \_\_\_\_\_시 \_\_\_\_\_구

98. 귀하는 한국에서 올해까지 사업을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_\_\_\_\_년

99. 귀하의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와 비교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해당 사항에 √를 해주십시오.

	증가 했다	변화 없다	감소 했다
① 종업원 수			
② 수익			
③ 소비자 수			

100. 한국의 회사에 전문직으로 취직할 기회가 있다면 계속 현재의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 )  
 ①예      ②아니오      ③잘 모르겠다

101. 귀하의 자녀가 귀하의 사업을 물려 받아 계속 사업 하시길 원하십니까? ( )  
 ①예      ②아니오      ③잘 모르겠다

102. 귀하가 사업을 시작할 때, 그리고 지금 사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은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창업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  
 ②창업 정보, 지식을 접하기 어렵다  
 ③임대료가 비싸다  
 ④경쟁자가 많다  
 ⑤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  
 ⑥기타(\_\_\_\_\_)

103. 귀하는 현재 하루 평균 몇 시간 일하십니까?  
\_\_\_\_\_시간

104. 귀하는 아래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해당 사항에 ✓를 해주십시오.

	매우 신뢰함	약간 신뢰함	별로 신뢰하지 않음	전혀 신뢰하지 않음	이런 사람 없음
① 가족					
② 조선족 직원					
③ 한족 직원					
④ 한국인 직원					
⑤ 기타 직원					

105. 귀하가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식당 요리, 중개 무역 상품, 기타 상품 등)의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셨습니다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① 먼저 시작한 가게나 회사의 가격을 참조했다
- ② 소비자들의 월급 수준을 참고했다
- ③ 원가, 직원 월급, 임대료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
- ④ 한국의 일반 경제 수준을 고려했다
- ⑤ 수입물품의 경우 환율도 고려했다
- ⑥ 중국에서의 월급과 제품가격의 관계를 고려했다
- ⑦ 기타( )

106. 귀하는 현재의 사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113번을 응답해 주십시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아래는 순수 유학생에 해당하는 질문들입니다.

107. 귀하는 현재 어떤 교육과정에 있습니까? ( )

- ① 언어학원    ② 학부    ③ 석사과정
- ④ 박사과정    ⑤ 교환학생    ⑥ 기타( )

107-1. 귀하의 전공은 어디에 속합니까? ( )

- ① 문과      ② 이과      ③ 기타( )

108. 귀하는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다까? ( )

- ① 전액 한국 정부의 장학금
- ② 전액 한국 일반 재단의 장학금
- ③ 전액 한국 대학의 장학금
- ④ 장학금 일부와 자비
- ⑤ 전액 자비
- ⑥ 기타( )

109. 등록금을 제외하고 귀하의 한 달 평균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_\_\_\_\_ 만 원

109-1. 귀하의 월 평균 수입 중 가장 주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아르바이트    ② 연구 및 수업 조교
- ③ 부모 조달    ④ 장학금    ⑤ 기타( )

110. 귀하는 졸업 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

- ① 상급 학위 과정으로 진학
- ② 졸업 후 바로 한국에서 취직
- ③ 졸업 후 바로 중국으로 귀국
- ④ 졸업 후 바로 제3국으로 출국
- ⑤ 졸업 후 한국에서 취직이 안되면 중국으로 귀국
- ⑥ 취직이 되든 안 되든 한국에서 거주
- ⑦ 계획이 없음
- ⑧ 기타( )

111. 귀하의 유학생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국적과 민족은 무엇입니까? ( )

- ① 중국국적 조선족    ② 중국국적 한족
- ③ 한국국적 한국인    ④ 한국국적 귀화 조선족
- ⑤ 한국국적 귀화 한족    ⑥ 기타( )

111-1. 귀하가 만약 한국에서 취직을 준비한다면 가장 중요한 인맥의 국적과 민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 ① 중국국적 조선족    ② 중국국적 한족
- ③ 한국국적 한국인    ④ 한국국적 귀화 조선족
- ⑤ 한국국적 귀화 한족    ⑥ 기타( )

112. 귀하는 유학생 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하십니까? 해당 사항에 ✓를 해주십시오.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① 학교					
② 학교 외					

113. 서울시에서 중국동포를 위해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주거지 및 주변환경 개선
- ② 자녀 교육문제 개선
- ③ 쉽고 싸게 병 보는 기회 확대
- ④ 취업정보 및 기회 제공
- ⑤ 창업정보 및 기회 제공
- ⑥ 중국동포 전용 경로당 개설
- ⑦ 중국동포 전용 쉼터 개설
- ⑧ 한국사회 적응 교육 실시
- ⑨ 기타( )



[부록 2] 중국동포 인터뷰 대상자 리스트

순번	남/여	나이(만)	국적	직업분류
1	여	32	중국	전문직
2	여	32	중국	전문직
3	남	31	중국	전문직
4	남	33	중국	전문직
5	여	30	중국	전문직
6	남	31	중국	전문직
7	남	29	중국	유학생
8	남	28	중국	유학생
9	여	24	중국	유학생
10	여	30	중국	유학생
11	여	69	한국	단체 운영자
12	여	70	중국	단체 운영자
13	남	72	한국	단체 운영자
14	남	47	중국	사업가
15	여	45	한국	사업가
16	남	52	한국	사업가
17	남	43	한국	사업가
18	여	49	한국	사업가
19	남	43	중국	사업가
20	남	55	중국	사업가
21	남	42	한국	사업가
22	남	45	중국	단체 운영자
23	남	37	한국	단체 운영자
24	남	49	중국	단순 노무직
25	여	27	중국	단순 노무직
26	남	49	중국	단순 노무직
27	남	55	중국	단순 노무직
28	여	33	중국	단순 노무직
29	남	24	중국	단순 노무직
30	남	39	중국	단순 노무직
31	여	53	중국	단순 노무직
32	남	35	중국	단순 노무직
33	남	45	중국	단순 노무직
34	남	63	중국	단순 노무직
35	여	45	중국	단순 노무직
36	남	47	중국	단순 노무직
37	남	53	중국	단순 노무직
38	여	42	중국	단순 노무직
39	남	36	중국	단순 노무직
40	남	57	중국	단순 노무직

## [부록 2-1] 중국동포 면담자료\_일반근로자

### 1. 의료보험 및 기타 복지혜택

- 입국시 의료보험 강제적 가입이 필요하다. 지금의 3개월 이후 가입하는 조건 없애고 정책설명회 같은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길 바란다. 요금은 현재 가격에서 좀 싸게 하고 전체 조선족 다 가입시켜야 한다.
- 현재 한국에 나와 있는 조선족 중 국적취득자 제외하면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이 가장 많다. 이 연령대는 병이 나는 시기이고 의료공단에서 해결 못한다면, 정부에서라도 추진시켰으면 좋겠다.
- “외국인의료조합”이 있는데, 여기에 가입하면 지정한 약국과 지정한 병원만 가야 돼서 불편하다.
- 65세 이상 국적취득하지 않은 조선족도 현재 한국인 65세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
- 공무원들은 위에 정책만 따르고 편하게 월급만 받기를 원한다.

### 2. 다문화 현상 비판

- 세계화, 다문화는 민족을 망친다.
- 앞으로 조선족이 중국인이 될지, 한국인이 될지, 북한에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중국 조선족이다.
- 조선족을 다문화에 왜 넣는지 이해 안 됨. 다문화에서 조선족을 빼야 된다.
- 실제적으로 가난한 것을 도와주는 정부의 정책보다는 우리를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 정부는 다문화, 또 목사도 같이 다 혜택 챙기고 조선족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다

### 3 조선족 단체 및 언론

- 정부에서 대림이나 구로에는 투자도 하지만 여기 강북에는 안 한다. 특히 조선족연합회는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14년 동안 우리 스스로 운영해왔다.
- 평소에 쉼터와 문화활동실 운영으로 12시, 1시전에 자는 것이 힘들 정도다. 기타 조선족 모임에 나갈 여유가 없다.
- 조선족 언론사들이 중국 뉴스 그대로 퍼오지 말고, 현재 이곳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각 지역 동포단체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장소를 제공받고, 함께 무엇이 문제인지 토론하고 개선해나가는 기획이 필요하다. 한국정부도 영등포구처럼 조선족이 밀집된 지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조선족에 대한 한국의 시각

- 한국에서 조선족을 일군으로 본다.
- 조선족이 중국인으로서의 의무와 한국에서 동포로서의 의무는 모순되지 않는데, 한국인들은 자꾸 중국에 대한 감정을 없애기를 강요한다.
- 법무부도 조선족을 동포로 보는 것이 아니다. 한 집 식구가 한국에서 여러 가지 비자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동포로 보고 있다는 것인가?
- 한국에서 조선족을 외국인보다도 더 취급안하고 거지 취급을 한다.

#### 5. 조선족 내부 문제

- 동포들이 돈 악착같이 버는데, 예전과 달리 지금은 주말이면, 친구모임, 결혼식, 생일 등 활동이 많아지고 또 부조를 많이 하는 풍조가 심각하다. 100만 벌어서 10만씩 부조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습관은 고쳐야 한다.
- 대림과 건국대 지역 마작실을 금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무도장도 풍기가 안 좋아서 금지시켜야 한다.
- 다단계 같은 것도 자본주의라서 한국에서 합법인데,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한 때 흑룡강신문사와 협조해서 같이 해결한 적이 있다. 이 문제로 돈 잃고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있다.
- 개인들이 술 혹은 도박 이런 것에서 벗어난 경우 간증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 가리봉동 쪽에 가면 위생환경이 너무 나쁘다. 이런 문제는 누가 봉사료 쓰레기청소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스스로 책임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
- 조선족들 유흥업소를 많이 운영하고, 이런 업소에서 일하는 조선족 여성도 많다. 물론 이런 문제는 전 중국이 개혁개방이후 나타나는 문제이고, 전반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

## [부록 2-2] 중국동포 면담자료\_전문직

### 1. 국민연금, 대출 및 비자

- 조선족 중 H-2비자 소지자는 중국 들어갈 때 연금을 돌려받지만, F-4는 못 받는다. 국가 간 상호인정이 필요하다.
- 영주권을 선호하지만 취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예전에는 한 달 정도 소요됐는데 현재 12개월로 증가한 이유를 모르겠다.
- 비자만료기간과 영주권 발급 시기의 간격은 출국 등 문제를 불편하게 만든다.
- 영주권자의 배우자 비자는 2년에 한번 연장하면 되지만 F-4의 배우자 비자는 1년마다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
- 병원입원 시 한국인 신원보증이 필요한데, 보증금을 내는 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인을 찾아 보증 바라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한다.
- 대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세나 보증금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거주에 있어서 편리할 수 있는데, 현재 모든 은행은 다 거절하고 있다(대기업 직원, F-4 소지자).

### 2. 의료보험

- 가족보험이 잘 돼있지만, 현재 입국날짜와 외국인등록날짜가 보통 차이가 나는데, 보험인정은 외국인등록날짜부터 계산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에 12만원 적게 받았다. 입국날짜부터 계산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다.
- 회사마다 가족보험의 범위가 다르다. 어떤 회사는 아내와 자녀를 포함하고, 어떤 회사는 아내, 자녀, 부모님까지 포함한다.

### 3. 정책 홍보

- 현재 많은 정책은 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고, 모르는 정보가 많다.
- 기존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으면 좋다.

### 4. 기타

- 한국에 살다 보면 우리는 '자기권리' 주장 의식이 약한 것 같다고 느껴진다.
- 출입국, 보험공단 등 상담을 이용해보면, 상담원에 따라 항상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 [부록 2-3] 중국동포 면담자료\_자영업자

### 1. 중국동포의 한국생활 교육

- 다문화 예산은 2800억. 하지만 중국동포 관련 예산은 천만 원이다. 외국인주민의 절반 차지하는 조선족에게 너무 지원을 안 한다.
- 국내 조선족 인구가 58만인데,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특히, 경로당 문제는 누차 계속 제기되는 문제이다. 노년에 고국에 와서 활동하는데 안식처 없어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이 많다.
- 범죄율 통계 보면 조선족 범죄가 한국인보다 낮다. 그런데, 여론의 물매를 맞는 것은 외국인으로서의 범죄이기 때문이다.
- 범죄를 어떻게 줄이는가? 자체의 법률교육 실시 계획, 적응 정착문제 교육진행하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제안했지만 실시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장소 및 자금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강사는 한국인이 없다면 조선족 가운데서도 할 사람 있다.
- 해외 750만 동포 가운데, 조선족은 고국 전통문화 잘 지켜왔다. 장기협회도 있고 골목에 가보면 장기 두는 분들이 많은데 장소가 없으니 상가 앞 혹은 주민집 앞에서 두게 되는데, 그렇게 모이면 다 쫓겨나게 된다. 활동 공간이 필요하다. 민속 활동 하려고 해도 장소가 없다.
- 조금 높은 차원으로는 조선족 상대로 독서실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젊은이 많이 들어오고 25세 이하도 많다. 불과 5~6년 전까지만 해도 척 보면 조선족 젊은이는 티가 났지만 지금은 외모에서 한국인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런데 걸만 한국을 닮아서 안 된다. 구로에 서울시 도서관 있지만 지금 젊은이들 들어와서 읽을 책 없다. 지금 오는 애들은 한국말은 고사하고 조선말도 잘 모르고, 한어만 잘한다. 이 부류의 젊은이들이 중국책도 읽을 수 있는데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술 마시고 친구랑 어울리고, 범죄도 생긴다. 사회가 변하려면 문화가 변해야 한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안 된다. 범죄율도 줄이고 적응 잘 시키기 위해서라도 독서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한국 책 읽기 전에 중국책이라도 읽는다면 안정적인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체류문제는 법무부에서 전담이지만, 거기서는 동포사회의 실제적 문제를 안 보고 자기네 틀에 맞춰 한다.

- 상인들의 어려운 점: 가리봉동에는 고객도 많고 식당 운영도 잘하는 분이 H-2비자가 만기되어 할 수 없이 중국으로 돌아간다. 재입국전까지 1년간 3개월씩 오가면서 운영해야 하는데 이것은 영업에 굉장히 지장된다. 한때는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도 F-4로 전화시켜 주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잘 안 된다.
-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중국동포가 58만이다. 거의 35-40만 명이 서울에 있다. 현재 구로구 인구가 총 42만인데 이것은 거의 한 개 구 주민의 규모인데, 서울시에서 동포를 전담하는 부처가 나와야 한다.
- 중국에서 화교 문제 잘 되는 것은 중앙에 전담부처 있어서이다. 대한민국 정부도 해외동포 전담부처 필요하다.

## 2. 다문화 정책에서 배제된 중국동포

- 현재 대림3동에서 자치회장 맡고 있다. 그런데 우리 동포들은 문화 공간 없기 때문에, 장기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공간 없다. “살기 좋은 영희네 마을”처럼 공간을 제공 받으면 좋겠다.
- 보통 지역사회에 문화 공간 만들어지면 한국 분들은 마음대로 가지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소외되고 있다.
- 한국국적 가져야만 사업자 등록증 낼 수 있고, 국적이 없어서 장사를 못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있었으면 한다.
- 솔직히 한국에 와서 살면서 힘든 과정 겪으며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해도 설 자리가 없다. 우리가 다문화가족의 아픔을 다 아는데, 우리는 활동할 자리가 없고 다 한국인들이 나서고 있다. 다문화 이 안에 구성도 다 한국분이고 그 건물 집세나 직원 임금으로 예산을 다 쓰면, 다문화가족한테는 실제로 피부로 닿는 돈 몇 프로나 될까? 이민자 가족들이 지켜볼 때 정부가 우리에게 정말 관심 갖고 있다는 걸 느끼게끔 했으면 한다.

## 3. 동포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

- 정부에서 관리부처 만들어 주기적으로 모임 하면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서 전담부서가 있어 동포사회와 계속 교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정책 연구와 분석이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결국은 또 탁상공론으로 이어질까 걱정이 된다.

- 지난 십년 단체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동포사회를 대표하는 인정받는 개인 혹은 단체가 아직 없다고 본다.
- 정부차원에서 전문기관이 지속적으로 동포사회와 연락하길 바란다.
- 글로벌 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 150만 외국인 상대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인구의 1/3이 동포이기 때문에 동포전담부서가 필요하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모임 필요하고 동포사회를 전문연구 하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고, 정책의 홍보도 문제가 많다. 정책관련해서 동포사회가 중심이 되는 연구팀이 있다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 4. 동포사회의 단합 필요성

- 우리끼리라도 힘을 합쳐야 된다. 어려운 문제 해결해 나가야 앞으로 단체가 잘 될 것이다. 저부터 앞으로 단체나 영업하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협조하는 것에 열심히 하겠다.

#### 5. 동포 자영업자의 기여와 법적 지위 문제

- 지금 저보다 더 일찍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큰 성공을 한 분도 많다. 또 금방 나와서 F-4로 일반 취직은 안 되고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하고 싶어도 자금문제가 가장 어렵다. 전반적으로 동포사회에서 놓고 보면, 한국정부에서 다문화 관련 포럼이 많지만, 오늘과 같이 우리 상인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이런 포럼은 처음이다.
-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는데, 우리 동포 상인들이 제각기 하는 업종이 수없이 많다. 개인적으로 보면 대략 29가지 상인 영업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 사실 여기에서 영업을 몇 년 하면서 5년 만기돼 들어가야 하니 진퇴양난이다. 현재 동포에게 취업관련 잘해주는 정책이 나왔다. 3년 이상 되면 H-2를 F-4로 바꿔주는데, 상인에 대해서는 왜 그런 혜택 줄 수 없는가? 이국땅에 와서, 창업을 해서 삶의 터전을 발전시키는데 정부에서 조금만 도와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 6. 결혼이민자 취업 우대정책에 동포도 포함되길

- 저는 사실 동포사회 잘 모른다. 한족 학교 다녀서 그런 듯싶다. 일하면서 느낀 건데, 제 신분은 이주여성이라 다문화정책에 포함된다. 잘 살펴보면 이주여성교육프로

그램 아주 많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관련 기관도 많다. 그런데 동포상대 교육프로그램은 별로 없다. 부모님 따라서 한국국적 취득한 분도 많고, 젊은 사람들인데, 한국 사회체제에 익숙하지 않고, 중국에서 배운 것이 많은데 능력을 활용 못 한다. 결혼이주여성한테는 창업, 네일아트 등 프로그램 있는데 귀화한 사람들 대상은 아니다. 이주여성에게 무료 프로그램 아주 많은데, 그런 프로그램의 참여 범위를 넓혀서, 동포, 특히 젊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 [부록 2-4] 중국동포 면담자료\_유학생

### 1. 출입국심사

- 현재 F-4비자 소지자 중 중국현지 공무원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서 아주 불편하다. 유학생 부모에 대해 심사가 없는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30분씩 심사하고 있다.

### 2. 주거환경

- 한국인들이 “최저주택보장”이 있는데, 이 제도를 조선족에게도 실시했으면 좋겠다. ‘공공임대주택’ 과 같은 혜택도 있었으면 좋겠다.
- 주변 사람들을 보면, 다들 더 좋은 직장, 중국과 한국 어디에 남을 것인가, 승진 등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한다. 그러나 직장이 강남인데 비싸서 일산에 거주하지만 이것을 정부정책보다는 개인문제로 환원해서 생각하고 있다. 즉 주거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지 못한다.
- 처음 한국에 온 사람들 중, 친척도 없고 그런 경우, 잘 곳이 문제이다. 한 친척분이 처음 한국 왔을 때 잘 곳이 없어서 지하철 안에서 지냈다.

### 3. 취직, 창업

- 취직정보가 공평하게 접근 가능했으면 좋겠다. 같은 일을 하지만, 금방 온 사람들은 잘 몰라서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적은 수입을 받는 부당한 대우 문제가 있다.
- 여기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중국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면 할 일이 없어서 돈을 다 쓰게 되고, 또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려고 하는데 이런 순환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 4. 의료보험

- 의료보험 가입에 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현재 단속이 심하다. 사실 알면 가입문제가 어렵지 않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

## 5. 정책 홍보

- 예전에 “불법체류” 해결 정책이 나왔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특히 정부 말을 믿고 나갔다가 들어오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 홍보는 TV, 신문, 웹사이트 이런 매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동포문제도 다루고 일반 한국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동포 관련 TV가 있다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에 CNTV나 중화TV는 중국 드라마만 방영할 것이 아니라 정책 홍보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 [부록 2-5] 중국동포 면담자료\_결혼이주여성

### 1. ‘다문화’문제

- 다문화기관에서 일하게 되면 국가지원 유무에 따라 취업 여부가 결정된다. 그리고 다문화 예산 많지만 강사료는 대부분 한국인이 가져간다.
- “다문화” 국회의원으로서는 이 자스민과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 정책을 만들 때는 우리가 필요하지만 만들고 나면 우리를 버린다.

### 2. 자녀양육, 교육

- 최근에 육아문제로 사업을 접고 ‘한국 엄마’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 동포 ‘엄마’들이 정말 많이 배워야 된다. 중2 아들 때문에 봉사 시작했는데, 한국인 엄마와 차이가 아직도 많은 것을 느낀다.
- 자녀에게 내가 “조선족”엄마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다. 그런데 애들이 크면서 또 외가친척 만나면서 내가 중국인인걸 알게 되었다. 물론 지금은 중국 위상이 올라가니 예전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차별 받을까봐 걱정된다.
-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인맥이 별로 없다보니 정보도 잘 모르고, 특히 좋은 학교 가려고 하면 부모가 많이 나서야 하는데, 지금 일도 바쁘고 그럴 힘도 없어서 자녀 앞날이 걱정된다.

### 3. 주거환경

- 대림동에 음식이나 교통이 편리해서 이사 왔는데, 여기 와보니 교포들이 너무 질서를 안 지키고 행패 부리고, 열심히 일하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 남편과 함께 중국에 가서 살려고 한다. 여기서 살면 집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 살기 힘들다.
- 자녀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최근 빌라에서 아파트로 옮겼다. 지출 부담이 크지만 어쩔 수가 없다.

#### 4. 경제활동

- 처음에 식당 같은 곳에 가서 일할 때 어쨌든 무시를 받게 된다. 지금은 자기 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래도 눈치를 보지 않아서 좋다. 그런데 경쟁이 너무 심해서 정말 힘들다. 인터넷 홍보비용부터 사람 구해 쓰는 것 까지 다 경쟁이고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
- 처음에 왔을 때는 살기 위해 일했지만 지금은 자영업을 하고 있다.
-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승진은 외국인으로서 한계가 많은 것 같다. 여자들은 한국인과 결혼하게 되면 남아서 일하는 경우가 있지만, 남자들은 거의 다 중국에 돌아간다.
- 지금 일하는 기업에서 일 하는 양이 너무 많다. 처음에 한국 취직해서 올 때 어머니가 잠깐 돌봐주러 들어왔다가 내가 일하는 것을 보고 아예 지금까지 계속 봐주고 있는 상황이다.
- 앞으로 중국 돌아가기 힘들다. 여기서 일하다보니 다시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아는 사람도 적어졌고 돌아가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부록 3] 한국인 인터뷰 대상자 리스트

순번	남/여	나이(만)	직업	인터뷰 대상 분류
1	여	42	전업주부	중국동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서울 주민
2	여	35	회사원	중국동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서울 주민
3	남	33	회사원	중국동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서울 주민
4	여	27	대학원생	중국동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서울 주민
5	여	26	대학원생	중국동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서울 주민
6	남	39	회사원	중국동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서울 주민
7	남	33	대학원생	중국 경험이 있는 서울 주민
8	남	35	대학원생	중국 경험이 있는 서울 주민
9	여	37	자영업자	중국 경험이 있는 서울 주민
10	남	65	자영업자	중국 경험이 있는 서울 주민
11	남	29	대학생	중국 경험이 있는 서울 주민
12	여	23	대학생	중국동포 친구가 있는 서울 주민
13	남	42	회사원	중국동포 친구가 있는 서울 주민
14	남	41	연구자	중국동포 친구가 있는 서울 주민
15	여	45	연구자	중국동포 친구가 있는 서울 주민
16	남	52	자영업자	중국동포 친구가 있는 서울 주민
17	남	47	자영업자	중국동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서울 주민
18	남	49	자영업자	중국동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서울 주민
19	남	43	자영업자	중국동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서울 주민
20	남	55	자영업자	중국동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서울 주민
21	남	52	자영업자	중국동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서울 주민
22	남	45	자영업자	중국동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서울 주민
23	남	47	자영업자	중국동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서울 주민
24	여	49	자영업자	중국동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서울 주민
25	여	47	자영업자	중국동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서울 주민
26	여	59	전업주부	중국동포 밀집 지역의 서울 주민
27	여	65	전업주부	중국동포 밀집 지역의 서울 주민
28	여	33	회사원	중국동포 밀집 지역의 서울 주민
29	여	24	대학생	중국동포 밀집 지역의 서울 주민
30	남	39	회사원	중국동포 밀집 지역의 서울 주민
31	남	43	자영업자	중국동포 밀집 지역의 서울 주민
32	여	35	자영업자	중국동포 밀집 지역의 서울 주민
33	여	50	자영업자	중국동포 밀집 지역의 서울 주민
34	남	53	자영업자	중국동포 밀집 지역의 서울 주민
35	남	55	자영업자	중국동포 밀집 지역의 서울 주민
36	남	47	자영업자	중국동포 밀집 지역의 서울 주민
37	남	63	자영업자	중국동포 밀집 지역의 서울 주민
38	남	61	자영업자	중국동포 밀집 지역의 서울 주민
39	남	39	연구자	중국동포와 관련된 NGO 활동가
40	남	43	연구자	중국동포와 관련된 NGO 활동가
41	남	49	자영업자	중국동포와 관련된 NGO 활동가
42	남	41	활동가	중국동포와 관련된 NGO 활동가
43	남	55	활동가	중국동포와 관련된 NGO 활동가
44	남	57	활동가	중국동포와 관련된 NGO 활동가
45	여	35	연구자	중국동포와 관련된 NGO 활동가

## 참고문헌

- 강휘원, 2006,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 20(2), pp. 5-34.
- 강휘원, 2013, “지방정부의 다문화정책 성과인식의 영향요인: 조직제도 및 구성원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7권 제1호, pp.247~272.
- 고상두·하명신, 2010, “다문화 시대 독일의 시민권 변화: 개정국적법 및 이민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0(1), pp.421-443.
- 곽재석, 2012, “포용과 배제의 동포정책과 발전과제”, 『다문화사회연구』 5권 1호, pp. 33-73.
- 김명희, 2003, “1990년대 이후 국민국가 독일의 재러 독일계 동포이주자에 대한 정책 고찰: 한국내 조선족 이주자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정책적 접근의 모색을 위하여,” 『재외한인연구』 13-1.
- 김현미, 2009, “방문취업 재중 동포의 일 경험과 생활세계”, 한국문화인류학 42(2): 35-75.
- 박광성, 2010, 「초국적인 인구이동과 중국조선족의 글로벌 네트워크」, 『재외한인연구』제 21호. pp. 86-92.
- 박세훈, 2011, “한국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의 비판적 성찰: ‘다문화 도시정책’의 제언” 『공간과사회』 21(2), pp.5-34.
- 박우, 2011, “한국 체류 조선족 단체의 형성과 인정투쟁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제91권, pp.241-45.
- 박우 외, 2012, 『우리가 만난 한국: 재한 조선족의 구술생애사』, 북코리아.
- 부산광역시, 2009,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pp.56~60.
- 성은혜, 2011, “부산의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27(2), pp.247-272.
- 안전행정부, 2013, 『2013년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통계』.
- 양기호, 2006, “지방정부의 외국인 대책과 내향적 국제화”,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2), pp.67-85.
- 양한순 외. 2013 『맞춤형 공동체 활동(커뮤니티) 발굴 등을 위한 실태조사』, 서울시특별시 연구보고서.

- 이진영, 2010,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동포』, 재외동포재단.
- 이진영 · 박우, 2013, “한국의 차세대 재외동포 정책”, 『민족연구』, 제54호, pp.22-43.
- 최용선 외, 2012,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2권 제1호, pp.34-67.
- 최치원, 2009, “근대 독일의 역사 경험과 오늘날 민족의 의미” 『세계화시대의 민족주의』 pp.62-76.
- 하득선, 2011, “한국 국적 취득과 재한 조선족의 정체성: 서울시 가리봉동, 구로동, 대림동 거주 조선족의 사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한승준, 2010. “다문화사회 형성에 따른 정책추진체계 구축방안: 한국적 모델의 탐색”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논총』 제17권, pp. 39-61.
- 행정자치부, 2008, 『희망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정책백서: 2003-2007』.
- 한승준, 2009, “지자체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행정연구』 20(2), pp.269-291.
- Aihwa Ong, 1996, “Cultural Citizenship as Subject Making: Immigrants Negotiate Racial and Cultural Boundaries in the United States,” *Current Anthropology* 37(5): 737-762.
- Marshall, T. H., 1950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unz, Rainer, 2003, “Ethnic German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d their Return to Germany,” in *Diasporas and Ethnic Migrants: Germany, Israel and Post-Soviet Successor Stat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eds. by Rainer Ohliger and Rainer Munz, Frank Cass, pp. 261-271.
- Levy, Daniel, 2003, “The Politicization of Ethnic German Immigrants: The Transformation of State Priorities,” in *Diasporas and Ethnic Migrants: Germany, Israel and Post-Soviet Successor Stat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eds. by Rainer Ohliger and Rainer Munz, Frank Cass, pp. 289-304.
- Skrentny, John, Stephanie Chan, Jon Fox, and Denis Kim, 2007, “Defining Nations in Asia and Europe: A Comparative Analysis of Ethnic Return Migration Policy,” i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1(4): 793-825.

- Tsuda, Takeyuki, 2010, “Ethnic Return migration and the nation–state: encouraging the diaspora to return ‘home’” in *Nations and Nationalism* 16(4): 616–636.
- Renato Rosaldo, 1994, “Cultural Citizenship in San Jose, California,” *Polar* 17: 57–63.,
- Renato Rosaldo, 1999, “Cultural Citizenship, Inequality, and Multiculturalism” in Torres, Miron, and Inda eds. *RACE, IDENTITY, and CITIZENSHIP: a Reader*, Blackwell Publishing. pp. 253–261.
- von Koppenfels, Amanda Klekowski, 2009, ‘From Germans to migrants: Aussiedler migration to Germany’, in T. Tsuda (ed.), *Diasporic Homecomings: Ethnic Return Migrants in Comparative Perspectiv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103–132.
- 毛起雄, 2007, “解读归侨侨眷权益保护法”, 『北京市司法行政』. 北京市司法局

국무원 교무관공실

[www.gqb.gov.cn](http://www.gqb.gov.cn)

중공중앙 통전부

[www.zytzb.cn](http://www.zytzb.cn)

북경시 교무관공실

[www.bjqb.gov.cn](http://www.bjqb.gov.cn)

중화인민공화국 국교교권권익보호법

<http://baike.baidu.com/view/2489442.htm>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정부 출입국관련업무

[www.gov.cn/banshi](http://www.gov.cn/banshi)

중화전국귀국화교연합회

[www.chinaql.org](http://www.chinaql.org)

중화전국귀국화교연합회 회칙

[www.bjql.org.cn/tabid/64/Default.aspx](http://www.bjql.org.cn/tabid/64/Default.aspx)

화교화인과 중화문화 포럼

[www.bjql.org.cn/tabid/113/Default.aspx](http://www.bjql.org.cn/tabid/113/Default.aspx)



## 〈일본자료〉

駒井洋・渡戸一郎編, 1997, 『自治体の外国人政策 -内なる国際化への取り組み-』: 明石書店.

三田千代子編, 2011, 『グローバル化の中で生きるとは-日系ブラジル人のトランスナショナルな暮らし-』: 上智大学出版

滋賀県国際協会, 2009, 『経済危機に伴う外国人住民の雇用・生活状況調査結果』.

法務省, 2012, 『在留外国人統計』

あいち多文化共生推進プラン2013-2017

<http://www.pref.aichi.jp/0000060369.html>

日系定住外国人施策に関する行動計画

<http://www8.cao.go.jp/teiju/guideline/pdf/fulltext-kouido.pdf>

平成22年国勢調査 産業等基本集計結果

<http://www.stat.go.jp/data/kokusei/2010/kihon2/pdf/gaiyou.pdf>

## 서울 거주 중국동포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 연구

---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발행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발행일 : 2013년 11월

연구기관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